

ARKO 기본연구 2022-0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22. 12

제출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주 관 기 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 책임자 : 민성기 (주)케이아이컨설팅
참여 연구원 : 성연훈 (주)케이아이컨설팅
유홍민 (주)케이아이컨설팅
전인혁 (주)케이아이컨설팅
정고운 (주)케이아이컨설팅
강예린 (주)케이아이컨설팅

이 보고서는 연구진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기초한 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개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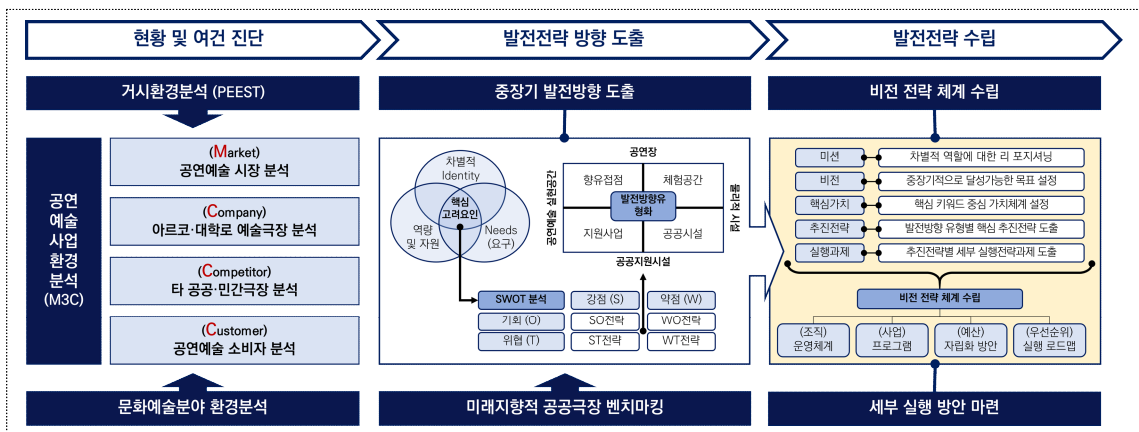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미래형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
 -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새로운 비전을 정립
 -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미래형 공공극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차별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고려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대내외 환경여건 분석) 거시환경 및 전반적 문화·예술 여건 등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을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 환경여건의 전반적인 분석을 수행
 - (선도적 모델 제시)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대응한 미래형 공공극장의 기능 및 운영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미래형 공공극장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범위를 현황 및 여건진단, 발전전략 방향도출, 발전전략 수립으로 구분하여 수행 프로세스를 기획
 - (현황 및 여건진단)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사업 분야인 공연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M3C 분석을 수행하며, 상위 분야인 문화·예술 분야 및 거시환경에 대해 분석
 - (발전전략 방향도출) 현황 및 여건진단, 공공극장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관련 벤치마킹 등 분석 시사점을 중심으로 SWOT 분석을 활용한 전략방향 도출 및 유형화 추진
 - (발전전략 수립) 도출된 발전전략 방향을 기준으로 미션, 비전, 핵심가치,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의 비전 전략체계를 수립

[그림 0-1] 연구 범위 및 프로세스



- 본 연구는 체계적 연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
 - (거시환경분석)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의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메가트렌드 분석 및 정책, 경제, 환경, 사회, 기술 등 거시적 환경변화 분석 및 시사점 파악
 - (문화예술 분야 환경분석) 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에 요구되는 역할 도출
 - (공연예술 분야 환경분석) 공연예술 단체 현황 및 공연예술 산업 주요 이슈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해 아르고·대학로 예술극장의 운영 접점 파악
 -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 분석) 위치 및 지리적 특성, 설립배경 및 목적, 역사적 변천 추이, 주요 시설과 장비 등 기관의 전반적 특성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역량과 자원을 도출
 - (미래지향적 극장 벤치마킹) 국내외 주요 공공극장의 전반적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극장의 발전방안에 대한 트렌드 및 이슈 사항 분석
 - (공연예술 이해관계자 분석) 공연예술 이해관계자 특성 및 니즈 분석을 통해 실제 운영 측면에서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현황 및 여건 분석시사점을 통해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의 내부적 강점·약점 요인과 외부적 기회·위협 요인을 도출하며, 특히,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만의 차별적 아이덴티티(Identity)와 역량·자원을 고려한 핵심요인을 도출하여 반영
- 본 연구를 통해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의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역량 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 운영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변화대응) 빠르게 변화하는 공연예술부문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토대로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이 공연예술 분야의 선도적 포지션 확립
 - (역할확장) 공공극장으로서 예술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 기반조성 및 공연기회 제공과 관객을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한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라는 공공성에 기여한 예술극장이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주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환경 조성하고 함께 새로운 운영 원동력 확보
 - (공연예술 지속) 미래 공공극장 기능을 중심으로 마련된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연 예술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일반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2
제2절 연구 방법	03
1. 연구 범위	03
2. 연구 내용	04
제3절 연구 기대효과	07

제2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현황진단

제1절 문화·예술 분야 환경분석	10
1. 문화·예술 분야 관련 거시환경 분석	10
2. 문화·예술 분야 정책 분석	15
제2절 공연예술 분야 환경분석	18
1. 공연예술 분야 환경분석	18
제3절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현황분석	21
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개요	21
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 계획 검토	29

제3장. 극장 운영 사례분석

제1절 공공극장 현황분석	32
1. 공공극장 개요	32
2. 공공극장의 한계점	35
제2절 공공·민간 극장 운영사례 분석	36
1. 국내 사례	36
2. 국외 사례	50
제3절 미래지향적 극장 운영 키워드별 현황분석	54
1.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in-Resdience), 아티스트 레지던시(창작공간)	54
2. 관객 친화형·참여형 극장 환경	56
3. 공연장 접근성(Access 또는 Universal design) 환경	59
4. 친환경 공연장 조성 사례	62
5. 공연예술과 기술의 공존(기술융복합, 장르융복합)	63

제4장.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인터뷰 및 의견수렴

제1절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내·외부 인터뷰	66
1. 의견수렴 개요	66
2. 내부 구성원 인터뷰	66
3. 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	71
제2절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내·외부 의견수렴	75
1. 중간보고회 주요 의견	75
2. 기후변화 대응 의견수렴 워크숍	76
3. 분과 워크숍 의견수렴	79

제5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발전방안 도출

제1절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핵심 고려요인 도출	82
1. 고려요인 도출을 위한 대내외 여건분석	82
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차별적 특성에 따른 고려요인 도출	86
제2절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발전전략 도출	89
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차별적 특성에 기반한 발전전략 도출	89
2. 차별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발전방안 도출	91
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발전전략 체계도 도출	94

제6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전략 수행을 위한 제언

제1절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	100
1. 창작자와의 소통 강화 및 사회 의제의 적극적 발굴	100
2. 공연의 지속을 위한 대안 마련 및 기초예술에 대한 관심 제고	100
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리모델링	101
별첨. 전략과제에 대응한 세부 실행과제 제언	103
1. 기초예술 분야 세부 실행과제	103
2. 예술인 분야 세부 실행과제	113
3. 관객/일반국민 분야 세부 실행과제	123
4. 사회 분야 세부 실행과제	129
참고문헌	134

표 목차

[표 2-1] 역대 정부별 문화·예술 분야 정책 기조 변화	16
[표 2-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대관 신청 제한 분야	23
[표 2-3] 2021, 2022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대관 심의 기준	24
[표 2-4] 2023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대관 심의 기준	24
[표 2-5]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 현황 (1)	25
[표 2-6]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 현황 (2)	25
[표 2-7]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시설개요	26
[표 2-8]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주요 연혁	28
[표 2-9]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시설개요	29
[표 3-1] 국내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와 주요 공공극장 설립	32
[표 3-2] 국내 공공극장 운영 현황	33
[표 3-3] 국내 주요 공공극장(공공 공연장) 미션 및 비전	33
[표 3-4] 국내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와 주요 공공극장 건립	34
[표 3-5] 국내 주요 공공극장 운영 개요	36
[표 3-6] 국립정동극장 역사 및 연혁	37
[표 3-7] 국립극장 사업 현황	38
[표 3-8] 국립극단 사업 현황	40
[표 3-9] 국립극장 예술교육 프로그램 (2021)	41
[표 3-10] 국립극장 사업 현황	42
[표 3-11] 예술의전당 사업 현황	43
[표 3-12] 예술의전당 사업 현황	45
[표 3-13] LG아트센터 사업 현황	47
[표 3-14] 두산아트센터 사업 현황	49

[표 3-15] 링컨센터 상주 예술기관	50
[표 3-16]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개요	55
[표 4-1] 인터뷰 내용 구성(내부)	68
[표 5-1] 고려요인 도출 (1)	84
[표 5-2] 고려요인 도출 (2)	85
[표 5-3] 차별적 발전전략 관련 키워드 도출	91
[표 5-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전략에 기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전략에 기반한 제안 사업 개요	97
[표 6-1] 타 공공 공연장 개관년도 및 리모델링 시행 사례	102
[표 6-2] 시기별 기초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협력공동체' 운영 세부사항	104
[표 6-3] 기초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협력공동체' 연계방안	104
[표 6-4] 다양성을 위한 대관 심포지엄 운영 세부사항	106
[표 6-5] 다양성을 위한 대관 심포지엄 연계방안	107
[표 6-6] 기초예술인-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파트너십 리빙랩 운영 세부사항	108
[표 6-7] 기초예술인-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파트너십 리빙랩 연계방안	109
[표 6-8] 기초예술인 정책 지원을 위한 청원 시스템 구축 세부사항	111
[표 6-9] 기초예술인 정책 지원을 위한 청원 시스템 구축 연계방안	112
[표 6-10] 예술인(창작자) 중심의 인프라 개선 의견	113
[표 6-11] 중단되지 않는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화 역량 강화 유사사례와 비교	115
[표 6-12] 중단되지 않는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화 역량 강화 연계방안	116
[표 6-13] 기초예술인 소통 및 창작 공유 공간 운영 세부사항	117

[표 6-14] 기초예술인 소통 및 창작 공유 공간 연계방안	118
[표 6-15] 타 분야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극장 파트너즈' 세부사항	119
[표 6-16] 타 분야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극장 파트너즈' 연계방안	120
[표 6-17] 기초예술 국제교류 지원 강화 세부사항	121
[표 6-18] 청소년의 예술함양 능력 정진을 위한 기초예술체험학교 운영 세부사항	124
[표 6-19] 청소년의 예술함양 능력 정진을 위한 기초예술체험학교 운영 연계방안	124
[표 6-20] 마로니에 공원 연계 '예술극장 주간(페스티벌) 운영 세부사항	126
[표 6-21] 마로니에 공원 연계 '예술극장 주간(페스티벌) 운영 연계방안	127
[표 6-22] 예술 복합공간 전환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 세부사항	128
[표 6-23] 현장 중심 사회적 가치 확산 세부사항	130
[표 6-24] 현장 중심 사회적 가치 확산 연계방안	130
[표 6-25] 범 공공극장 연계 '기후포럼' 운영 세부사항	132

그림 목차

[그림 0-1] 연구 범위 및 프로세스	1
[그림 1-1] 연구 범위 및 프로세스	3
[그림 1-2] 연구 기대효과	7
[그림 2-1] 문화예술 분야 환경분석 요약	10
[그림 2-2]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의 전체 공연 시장 매출액	11
[그림 2-3]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좌), 소극장(우) 모습	22
[그림 2-4]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좌), 소극장(우) 모습	23
[그림 3-1] 예술의전당 세계음악분수	44
[그림 3-2] LG아트센터 루프탑과 포그캐논	47
[그림 3-3] 두산아트센터 입구 및 스페이스111 로비	49
[그림 3-4] 링컨센터 수직 정원 및 더 그린 광장	51
[그림 3-5] 템즈강변 문화지구 및 청소년 연극 축제	52
[그림 3-6] 비비드 시드니 축제, Antidote 강연 한 장면	53
[그림 3-7] 경기창작센터 및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55
[그림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문화정보원 북라운지 및 라이브러리 파크	57
[그림 3-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57
[그림 3-10] LG아트센터 서울 시설	58
[그림 3-11] 신한플레이 뮤지컬 라운지 및 LG아트센터 서울	59
[그림 3-12] <소리극 옥이> 공연 현장	62
[그림 4-1] 의견수렴 운영 프로세스	66

[그림 4-2] 내부직원 의견수렴 내 발전방향 도출 방향	69
[그림 5-1] 예술극장과 타 극장과의 차별성 비교분석	87
[그림 5-2] 예술극장의 차별적 특성요인과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응한 발전방향 도출	88
[그림 5-3] 차별적 특성에 기반한 발전방향 도출 개요	89
[그림 5-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발전방안	92
[그림 5-5] 발전방안① - 활용자원의 확장	92
[그림 5-6] 발전방안② - 역할의 확대	93
[그림 5-7] 발전방안③ - 관계의 발전	93
[그림 5-8]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전략 비전·전략 체계도	94
[그림 6-1] 기초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협력공동체' 운영 개요	103
[그림 6-2] 다양성을 위한 대관 심포지엄 운영방안 개요	106
[그림 6-3] 기초예술인-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파트너십 리빙랩 운영 개요	108
[그림 6-4] 기초예술인 정책 지원을 위한 청원 시스템 구축 운영	111
[그림 6-5] 중단되지 않는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화 역량 강화 운영 개요	115
[그림 6-6] 기초예술인 소통 및 창작 공유 공간 운영 개요	117
[그림 6-7] 타 분야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극장 파트너즈' 운영 개요	119
[그림 6-8] 기초예술 국제교류 지원 강화 운영	121
[그림 6-9] 청소년의 예술함양 능력 정진을 위한 기초예술체험학교 운영 개요	123
[그림 6-10] 마로니에 공원 연계 '예술극장 주간(페스티벌) 운영 개요	126
[그림 6-11] 예술 복합공간 전환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 개요	128
[그림 6-12] 현장 중심 사회적 가치 확산 운영 개요	129
[그림 6-13] 범 공공극장 연계 '기후포럼' 운영 개요	132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의 새로운 비전을 정립
 -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을 둘러싼 다양한 내외부 환경변화 속 문화·예술계의 변화 또한 진행
 - 공연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동반자 역할로서 아르고·대학로 예술극장의 성과 존재
 - 변화한 환경과 기존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극장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발생

-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미래형 공공극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의 차별적 아이덴티티(Identity)에 기반한 미션 및 역할을 설정
 -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방향에 기반한 미션-비전-전략-핵심가치 도출
 -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및 실질적 실행을 위한 단계별 실행과제 도출

- **(대내외 환경여건 분석)**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을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 환경여건의 전반적인 분석을 수행
 - 거시환경 및 전반적 문화·예술 여건 등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수행
 - 공연예술 분야의 시장, 경쟁자, 수요자 분석 및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의 내부 환경분석을 통해 사업 환경 분석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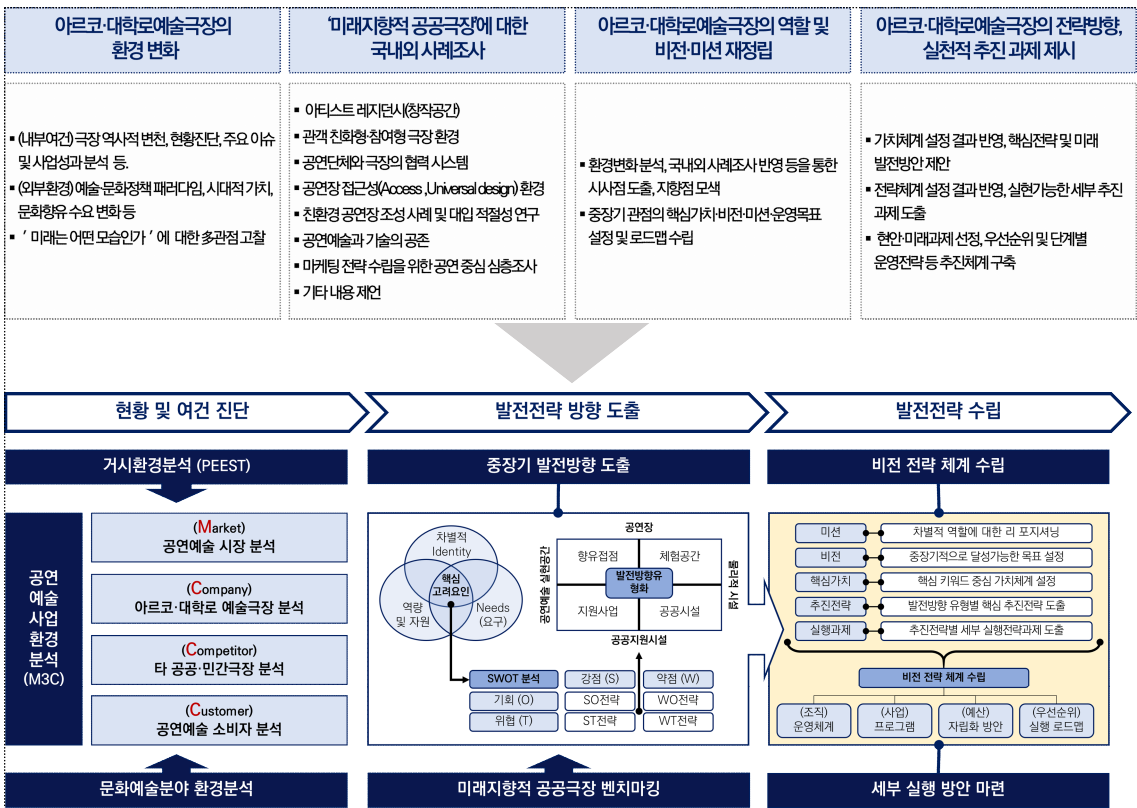
- **(선도적 모델 제시)** 미래형 공공극장의 기능 및 운영사례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미래형 공공극장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대응한 선도적 발전 방향 및 사례발굴을 통해 공공극장의 발전 방향 모색
 - 발전 방향에 대응한 사업 사례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해 선도적 사업을 발굴

제2절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

- 본 과업을 크게 현황 및 여건진단, 발전전략 방향도출, 발전전략 수립으로 구분하여 과업 내용을 정리하여 수행 프로세스를 기획
- (현황 및 여건진단) 아르크-대학로예술극장의 사업 분야인 공연예술시장을 중심으로 한 M3C 분석과 상위 분야인 문화예술 분야 및 거시환경분석에 대한 분석을 수행
- (발전전략 방향도출) 현황분석 시사점 및 공공극장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과 관련된 벤치마킹 분석 시사점을 중심으로 SWOT 분석을 활용한 전략 방향도출 및 유형화 추진
- (발전전략 수립) 도출된 전략 방향을 기준으로 미션, 비전, 핵심가치,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의 비전-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개발

[그림 1-1] 연구 범위 및 프로세스



2. 연구 내용

가. 거시환경분석

- 예술극장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메가트렌드 분석 및 정책, 경제, 환경, 사회, 기술 등 거시적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시사점 파악
- 각 환경요인 중 관련성이 높은 3~5개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현재와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 도출
- 또한, 각 요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여 예술극장 발전 방향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가치적 측면 도출

나. 문화·예술 분야 환경분석

- 산업 동향 및 전망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예술극장에 요구되는 예술극장의 역할 도출
- 공급과 수요를 각각 예술인과 예술향유자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각 주체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점 분석 중점
- 문화·예술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단계별로 규정하고 단계에 따라 강조되고 있는 주요 정책의 시사점 파악
- 패러다임 변화를 대표하고 있는 문화·예술 정책에서 예술극장에 요구되고 있는 변화 사항을 외부적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구분
- 문화·예술 분야의 이슈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인문학, 철학, 역사학, 과학 등 타 분야에서의 미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예술극장 발전 방향의 지향점 도출
-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가치 접점을 파악함으로써 과거 접목하지 못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융합적 발전 요인 도출

다. 공연예술 분야 환경분석

- 공연예술 단체 현황 및 공연예술 산업 주요 이슈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예술극장 운영 접점 파악
- 공연예술 시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연예술 단체와 관련 산업이 예술극장 운영에 미치는 외부적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두 구성요소를 활용 방안 도출

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분석

- 예술극장의 위치 및 지리적 특성, 설립배경 및 목적, 역사적 변천 추이, 주요 시설이나 장비 등 기관의 전반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발전방안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역량과 자원을 도출
- 기관의 비전 및 미션 등 전략체계 추진 추이와 함께 조직, 사업 등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발전방안 설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비전 및 미션과 하부 실행전략의 부합성을 분석함으로써 예술극장 발전방안의 방향성에 대한 구조적(構造的) 특성 도출
- 예술극장 운영조직 및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人的) 요인 발굴에 중점
- 주요사업의 추진 성과와 주요 예산 지출 분석을 통해 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발전방안의 물적(物的) 요인 발굴에 중점

마. 미래지향적 극장 벤치마킹

- 국내외 주요 공공극장의 전반적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에 대한 트렌드 및 이슈 사항 분석
- 특히, 주요 공공극장의 미션 및 비전을 중점 분석하여 공공극장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적 측면 도출
-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에 대해 유형화하고 유형별 핵심 키워드를 도출함으로써 예술극장에 적용 가능한 발전방안 도출
- 국내 여건을 고려한 발전방안 도출에 주안점을 두고 각각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이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 분석
- 또한, 아르코·예술극장에 적용 시 예상되는 한계점을 도출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단계별 개선사항 도출

바. 공연예술 이해관계자 분석

- 공연예술 이해관계자 특성 및 니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운영 측면에서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내부 임직원, 기초예술 분야 전문가, 기초예술 분야 예술인, 관객 대상 인터뷰 수행을 통해 현황에 기초한 발전방안 도출
-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포럼을 통해 연구진이 도출한 예술극장 발전 방향의 검증과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발전방안 도출
- 예술극장의 서비스,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과 시설 및 자원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유형별 요구사항 분석 및 발전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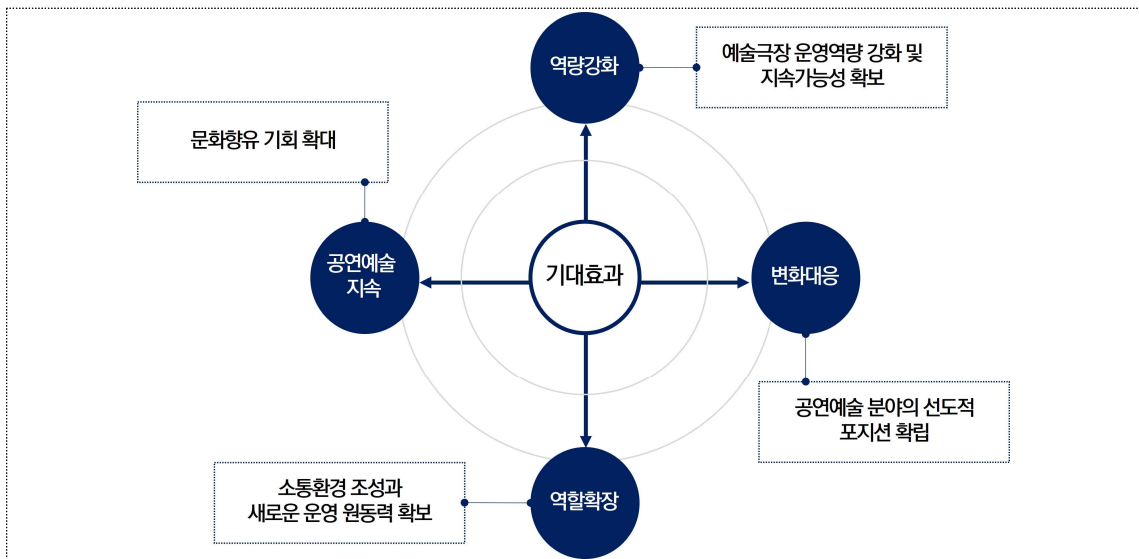
사.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 현황 및 여건분석 시사점을 통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내부적 강점·약점 요인과 외부적 기회·위협 요인을 도출함
- 내부분석을 통한 강점 및 약점 요인과 거시환경 및 대외여건분석을 통한 기회 및 약점 요인을 발굴
- 특히, 다양한 요구(needs)에 대응하여,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만의 차별적 Identity와 역량·자원을 고려한 핵심요인을 도출하여 반영함
- 미래지향적 공공극장 운영사례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발전방안 대상 필요성, 시급성, 적합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타 민간·공공극장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적 Identity 및 역량 및 특성을 도출
- 도출된 전략 방향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다양한 측면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해 유형화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을 모색
- 발전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야별 유형화를 통해 분야별 다양한 발전방안을 도출
- 분야별 복수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한 논의 및 협의 과정을 통해 분야별 핵심 전략을 설정

제3절 연구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아르고대학교로예술극장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체계적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연구의 궁극적 목표인 아르고대학교로예술극장의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연구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첫째, **(역량 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아르고대학교로예술극장 운영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둘째, **(변화대응)** 빠르게 변화하는 공연예술부문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토대로 아르고대학교로예술극장이 공연예술 분야의 선도적 포지션 확립
- 셋째, **(역할확장)** 공공극장으로서 예술인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 기반조성 및 공연기회 제공과 관객을 포함한 일반국민에 대한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라는 공공성에 기여한 예술극장이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주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환경 조성과 함께 새로운 운영 원동력 확보
- 넷째, **(공연예술 지속)** 미래 공공극장 기능을 중심으로 마련된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연예술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일반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그림 1-2] 연구 기대효과



제2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현황진단

제1절 문화예술 분야 환경분석

1. 문화예술 분야 관련 거시환경 분석

[그림 2-1] 문화예술 분야 환경분석 요약



가. 정치적 요인

-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 여가, 문화·예술 등 다양한 측면의 정부 정책 시행 및 법·제도 개선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행복추구권’의 높은 수준 실현을 위해 역대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및 법·제도를 개선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및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노동, 여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시행과 함께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4차 산업혁명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사회적 전환기에 돌입
 - 그러나 다양한 정책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낮은 여가시간, 긴 노동시간, 여가활동의 제약 등의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은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기본 문화권 보장)** 기존 문화·예술의 보급과 확산 측면에서 국민의 문화권 보장, 향유권 존중으로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
 - 기존 문화·예술의 지속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을 넘어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의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의 지속뿐만이 아니라 수요자인 일반국민의 문화권 보장과 향유 측면을 강조

- 또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해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 지방과의 연계, 지방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자생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
- **(자율성, 독립성 중심 예술지원)**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예술지원 정책 추진
-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사태(블랙리스트 사태)로 신뢰를 잃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 체계의 자율성 확립을 추진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시행 등 예술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안전망을 확충
- **(새 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문화예술 정책은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며 문화예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으로 이원화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
- 문화예술 취약계층 등 문화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기회의 확대와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면에서의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시행
- 예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함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예술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예술지원 정책에 있어 기존 한정된 장르에서만 이루어지던 다년(3년 이상) 지원을 모든 장르로 확대할 계획

나. 경제적 요인

- **(공연예술계 피해 지속)**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중심의 공연예술 산업의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
- 대면과 현장성을 기본으로 하는 예술행사, 전시, 교육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문화예술계 특히, 공연예술계의 피해가 지속
-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전체 공연 건수 65.0%, 공연시설의 공연횟수 68.4%, 공연시설의 공연장 가동일 수는 69.1%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공연예술기관 중 43.6%가 휴업, 2.2%의 기관은 폐업
- 공연횟수의 감소와 함께 전체 공연예술 관객 수는 2020년 전년 대비 90%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피해액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합 7,200억 규모로 예상되며, 문화예술인의 2021년 평균 연 수입도 3년 전보다 41% 감소한 755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의 전체 공연 시장 매출액



- **(대중문화예술 산업 성장)**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전체 규모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약 7조 원 수준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
- 대면 중심의 공연예술과 다르게 OTT, 온라인화 등 비대면 매체를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송, 영상을 중심으로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
- 2014년 총 3조 8,492억 원 규모의 대중문화예술 산업은 2020년 7조 8,594억 원으로 약 2배가량 성장
- 대중문화예술 산업매출의 대부분은 영상물 제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방송 및 영화의 비중이 약 70%로 높은 비중을 차지

다. 환경적 요인

- **(기후변화 등 환경이슈 제기)** 세계적 온난화 경향과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운동이 전 세계적인 주요 이슈로 대두
- 기업에서도 ESG 경영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철학이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의 환경 보호에 대한 민감도 및 인식이 강화로 1회용품 사용 절감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 움직임이 발생
- **(공급자 측면의 환경)** 문화예술의 주제 측면과 제작 과정에서 환경 및 환경 보호가 중요 요소로 부각
- 사회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문화예술의 주제로써 환경 및 환경 보호 관련된 기획 및 제작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
- 세트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 소재 활용 등을 향후 문화예술 운영 과정에서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
- **(수요자 측면의 환경)** 친환경 요소(업사이클링 창작, 유통에서의 탄소 절감 등)가 문화예술 소비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
- 친환경이 소비자가 소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소비도 친환경적 요소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와 그 가치를 소비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환경적인 문화예술 제작과 유통과정은 문화예술 기업, 기관, 단체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라. 사회적 요인

- **(저출산, 고령화 심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문제의 심화 속 2021년 관측 후 처음 한국의 연간 인구가 감소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었으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처음 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21년에는 0.81을 기록
-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의 평균 나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은 평균 43.4세로 10년 뒤에는 인구의 절반 이 5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사회문화 변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주의 확대 등의 사회 가치관 변화로 이어짐
- 혈연, 지연, 학연 등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개념이 약해지고 개인의 삶이 강조되는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 끈끈한 인간관계보다는 공통의 관심사와 주제를 바탕으로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 발생
- 사회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높아지며 진짜 '나'의 모습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탈물질주의 사회로의 진입과 연계되어 멀티 페르소나라는 다양한 자아를 가지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시작
 - 디지털 네이티브인 MZ 세대의 부상과 함께 디지털 세상에서 웹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가치 소비'로 대표되는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산업의 중심으로 등장
 - **(문화향유 증가)** 일반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가 지속 증가
 - 2010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67.3%였으나, 2019년은 81.8%로 증가하였으며 일반국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4.2회였으나, 2019년은 6.3회로 증가하는 등 문화·예술행사의 관람률과 관람 횟수는 지속해서 증가
 - **(참여확대)** 일반국민의 문화·예술 관련 직접 참여 활동이 증가하며, 기존 예술가 중심의 예술과 함께 일반국민 중심의 생활예술 문화가 확산
 - 단순 문화·예술행사의 참여를 넘어 원데이 클래스, 소모임, 개인레슨 등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앱 이용률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일반국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가는 관람을 넘어 직접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음
 - **(라이프스타일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고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
 - 재택근무, 홈 트레이닝,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되며 집은 휴식의 기능을 넘어 업무, 레저,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
 - 코로나19로 인해 주거공간 주변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며 상권의 중심축이 기존 상권의 중심축이었던 도심 또는 교외 지역에서 동네 위주로 변화
 - **(신중년 세대의 부상)** 신중년 세대인 5060세대가 문화·예술 시장에서의 주요 소비자로 부상
 - 코로나19로 인해 신중년 세대의 온라인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경제력을 가진 해당 세대의 움직임이 큰 반향 보임
 - 5060세대의 음악, 영상, 도서 분야의 2020년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2017년 대비 2.6배 증가
 - 신중년 세대의 선호 장르(예 : 트로트)가 사회적 유행으로 탄생했으며, 이에 따른 소셜 네트워크 팬덤 발전이 강력한 팬덤 문화를 형성
 - 또한, 향후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전체적인 문화·예술 시장의 규모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으나, 신중년 세대와 노년층의 문화·예술 소비 규모는 증가하여 소비의 주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자(창작자)로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존재
 -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강세)** 한국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반향
 - 음악(BTS, 블랙핑크 등), 영화(기생충, 윤여정 등), 영상(오징어게임 등) 등의 세계적 성공을 통해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의 경쟁력 입증 및 세계적인 관심과 인기 획득
 - 이에 대한 이슈화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 인지 및 인식 수준이 향상

마. 매체적 요인

- **(문화·예술 매체의 온라인화)** 방송 등 전통매체의 영향력이 줄고 유튜브, 소셜미디어, OTT 등 개인화된 매체의 영향력이 강화
 - 예술가의 공간적·시간적 한계가 확장되었으며, 예술가는 작품의 전시·공연을 위한 물리적 매개 없이 관객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
 -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온라인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의 문화·예술 행태 및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이 존재
 - 메타버스, AR, VR 등 관련 산업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신인, 비인기, 무명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개인 또는 아마추어가 제작한 창작물 역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디지털 리터러시 중요성 증대)** 문화·예술의 분야가 온라인으로 확대되어 나가면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요구가 향후 증대할 것으로 전망
 -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일상의 편의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문제(악성 댓글, 가짜 뉴스, 사기 등)를 야기
 - 디지털 범죄의 증가와 함께 디지털을 활용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윤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온라인 실명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예술 활동에 대한 책임성도 증대
 - 명예훼손성 패러디,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과 같은 윤리문제 대두. 디지털 창작 활동에 대한 논란과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바. 기술적 요인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련된 신기술이 대두
 - IT, BT, ET,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
- **(산업간 융합, 비대면 방식)** 신기술의 적용은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된 '뉴 노멀'시대의 대두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며, 이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사회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
 - 비대면 관련하여 매장 무인화, 온라인 시장 성장 등 새로운 산업 또는 시장이 형성되거나 확대
 -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흐름은 관련 신규 기술(AR, VR 등)의 확대와 체험형 기술의 대두로 이어지고 있음

2. 문화·예술 분야 정책 분석

가. 문화·예술 분야 정책환경 변화 양상

- (2000년대 이전) 경제성장 위주 전 국가적 발전전략에서 국민의 삶과 복지 중심으로의 정책 인식 변화
 - 1990년 초반까지 이어진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경제성장이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으나,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간 격차 확대 등의 병폐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자각과 함께 물질적 성장 이상의 복지와 내적 성장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김영삼 정부(1993~1998), 김대중 정부(1998~2003)를 지나며 지역 문화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문화적 지역 문화정책을 인식
 - 이에 따라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복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비전과 전략수립 등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과제화
- (2000년대) 문화·예술정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시도
 - 노무현 정부(2003~2008) 시기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 강력한 기능분산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분배적 차원의 지원 정책실시
 - 문화 영역에서도 지역혁신체제, 산업클러스터, 장소 마케팅(브랜딩),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과 같은 지역발전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이론 도입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내 지역문화과가 신설되었고 문화향유에 있어 지역별로 균형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문화 기반구축 중심의 정책 추진
 - 이와 함께 예술 분야의 지역성을 고려한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지방문화원과 재단의 설립, 거점화, 지역 문화·예술사업 및 축제육성 등이 본격화
- (2010년대 이후) 주체적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및 강화
 - 능동적 문화복지로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일상적 문화향유 및 생활권 내 문화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계속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행복추구권'의 높은 수준 실현을 위해 역대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및 법·제도를 개선하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및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노동, 여가,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시행
 - 국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생애주기 예술 활동, 문화 다양성 등의 가치적 깊이를 더해 가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협력체계 등의 주체성이 강조

[표 2-1] 역대 정부별 문화·예술 분야 정책 기조 변화

구분	주요 방향	주요 변화 / 도입정책
1960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 위주 발전에서 국민의 삶과 복지에 대한 중요성 인식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 개념 등장 	(1984) 지방문화진흥 5개년 계획 (1989)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김영삼 정부 (1993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정책의 인식 및 연계 필요성 대두 문화의 경제적 가치창출 추구 문화복지 기본구상 수립 및 문화시설 확충 	(1996)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복지기획단 설치
김대중 정부 (1998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예술 자치화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공론화 지역 문화예술 기반으로 관련 시설 확충 지역 문화 자원 확충 	(1998) 새 문화관광정책 (2001) 지역 문화의 해 지정
노무현 정부 (2003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배적 문화복지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문화정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2003) 문화비전 중장기계획 발표
이명박 정부 (2008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동적 문화복지로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 산업 공간 재생, 장소 기반형 문화예술 정책 	(2008)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박근혜 정부 (2013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융성위 설치,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보장 	(2013) 문화융성위 설치 (2013) 문화기본법 제정 (201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재인 정부 (2018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와 여가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생활문화 및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 마련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배경 마련 	(2018) 문화비전2030 선포 (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2)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나. 문화정책 분석

- (정책 배경) 기술 발달, 사회구조 변화, 제도 변화로 인해 국민의 삶과 문화향유 방식이 지속해서 변화
-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 향유 가능
- (사회구조) MZ세대의 부상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문화 활동 참여와 체험방식의 다양화
- (제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2018년) 이후 여가시대 확대에 의한 문화 수요의 지속 증가
- (외부요인) 코로나19 이후 기존 문화 활동의 비대면 문화 활동 전환 등 비대면 문화 활동 유행
- (목표) 국민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제도 및 환경 조성
- (문화 나눔 사업)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국민의 기초문화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력
- (문화 다양성) 다양한 문화 주체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 (인문정신문화 진흥)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계획 수립(2021년)과 국민 생활 속 인문정신 문화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 (정책의 문화화) 문화기본법에 의거 추진되는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
-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의 여가 수요에 미치는 활동 분석을 통한 생활양식의 변화 및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여가활동조사를 1년 주기로 실시

다. 예술정책 분석

- (정책 배경)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이 공공재로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핵심원천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예술의 창조성과 창의성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목적) 예술 분야의 시장경쟁력이 일부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예술이 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예술 분야를 정책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목표)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과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와 문화예술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수행
-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 권리 보호와 구제를 위한 기본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자유 계약자, 예비 예술인 등으로 보호 영역을 확장하고 예술창작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
-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개선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보) 문화예술 창작지원의 근간이 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 (예술 유통 선진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연계기관을 통한 확대 등 장르별 유통 및 향유기반을 활성화
- (한국 문학의 해외확산) 국내 발간 우수 문학 도서 선정 및 보급을 통해 문학 창작 및 유통 활성화와 국가별 맞춤형 번역출간 추진
- (문화예술교육 확대) 지역 유희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 예술 감수성 증진과 예술 체험기회 제공을 도모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

제2절 공연예술 분야 환경분석

1. 공연예술 분야 환경분석

가. 공연예술 분야 일반 개요

- **(특징)** 예술가와 무대 전문가 및 관객의 호응을 통해 예술성이 완성되는 집단예술로 다수의 관객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성'이란 특성을 통해 다른 예술 장르보다도 일반 대중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강력한 것이 특징
- (현실적 한계) 공연예술은 일회성, 노동집약성, 수요의 비 탄력성 등의 특성으로 일부 흥행성을 띤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워 비영리 분야로 간주
- (사회적 이점) 국민 정서 함양, 창의력 계발, 문화 향수권 확대, 민족 정체성 확립 및 국가 이미지 개선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보유
- **(대중예술)** 그동안 정부에서는 대중예술을 자생력이 있다는 이유로 방관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점차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대중예술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 산업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대중예술 분야의 정책적 비중을 제고
- **(공연예술 향유권)** 문화·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일반국민 및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향유권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현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연예술의 성격상 접근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
- (배리어프리) 물리적 접근성(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를 고려한 동선 설계 및 경사로 설치 등) 외에도 심리적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시도가 지속
- (창작) 공연예술의 향유권은 일반적인 인권 등의 사회적 가치를 다룸에 따라 해당 소재를 주제로 한 공연예술 창작이나, 공연예술 창작,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려와 적용이 활발
- **(지원정책)** 기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부터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변화
- (제도 보완) 각종 규제의 완화, 기부금 세금감면범위 확대, 예술행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 (인력 양성, 교육) 전문 예술법인 지정 및 육성근거 마련,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 (향유권 확대) 공연관람료 지원, 사랑티켓 지원 확대
- (인프라 조성) 공연 연습공간 인프라 구축, 대학로 공연장 임대 지원

나. 공연예술 분야 주요 이슈

-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전반적인 문화·예술계 모두에게 이루어졌으나, 현장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공연예술계의 피해가 유독 극심
 - 2020년 2월 25일 전염병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 이래, 문체부 소속 국립문화·예술시설, 국립공연기관 등이 코로나19 전개 국면에 따라 휴관 및 재개관을 반복
 - 각 지자체의 요청 또는 자체적 결정에 따라 공공 문화시설의 휴관 상태가 계속되어 2022년 현시점에도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 (공연예술계 피해) 2020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실시한 ‘공연예술 분야 피해현황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운영상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기관이 82.4%, 예정된 공연의 ‘잠정 취소’(53.5%), ‘일정연기’(33.8%), ‘상연중단’(25.7%)으로 집계
 - (온라인화) 코로나19 이후 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오프라인 예술 활동을 온라인화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발생하였으며,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해당 시도와 해당 논의가 계속되며 ‘현장성’ 전달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
- **(공연예술 가치사슬의 변화)** 비대면 중심의 제작과 향유방식 증가로 전통적 개념의 향유자 또는 창조자 그룹의 엄밀한 경계가 다변화 및 유연화
 - 문화·예술의 개념 및 범위가 개인에 따라 달리 규정됨에 따라 전통적 개념의 향유자·창조자 그룹이 재편되고, 둘 간의 관계 형성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
 - 공연예술 제작 방식의 변화는 창작, 공급, 향유, 재창조 프로세스 및 채널의 변화와 유연화로 진행

다. 공연예술 분야 정책 현황

- **(목적)** 예술 ‘창작’의 관점에서 창조적 예술 활동여건 확충과 예술 ‘소비 및 유통’ 관점에서 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추진
 - 예술창작과 소비·유통 양측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창작지원)** 예술 활동의 창작지원을 위한 활동, 행사, 단체, 시설에 대한 지원
 - (지역 활동 지원 강화) 문화·예술시설 및 공연예술단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편중됨에 따라 지역 문예회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예술 활동 지원 및 지역 기반의 다양한 공연예술 행사 지원
 - (상주단체 육성)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과 공연단체를 중심으로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가 협업하는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 추진
 - (지역 공연예술행사 지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 등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예술축제를 지원과 공연예술 수준의 향상, 일반국민과의 접점 확대 등에 기여
 - (문예회관 활성화) 문예회관이 각 지역에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향수와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거점 공간임을 고려하여 문예회관의 시설, 운영, 기술정보 공유 등 지원정책 강화
 - (창작여건 확보) 창작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창작지원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계의 수요가 높은 새로운 예술창작공간을 운영

- (예술가의 집)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을 현장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한 공간으로 활용
 - (전용 연습실 운영)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등 국립예술단체들이 안정적으로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국립예술단체 전용 연습장 운영
 - (연습공간 제공) 민간 공연예술 단체와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연습공간 제공을 위해 전국각지에 공연예술연습공간의 조성, 운영비용을 제공하는 운영지원 사업 시행
- **(유통·소비 구조 선진화)** 예술 활동이 향유계층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정책 수행
- (창작, 유통구조 선진화) 창작 산실 사업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자체 우수 레퍼토리 확보 및 공연예술 창작기반 강화
 - (관객개발) 관객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및 채널을 활용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관객개발 지원을 병행
 - (범위확대) 창작실험 활동 지원을 통해 참신한 창작 아이디어의 완성도 높은 무대화를 위한 창작 워크숍, 리서치 등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 활동 지원
 - (소외계층 공연예술 향유기회 확대) 지역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문화 소외지역의 공연예술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수행
 - (지역 단체 지원) 지역의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제작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단체에 대한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지원 사업 운영
 - (문화향유 기회 확대)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통해 문화향유 기반이 부족한 전국각지의 사회 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교정시설, 군부대, 산업단지공단 및 중소기업근로자, 새터민 등 문화 소외지역과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일반국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 제공
 - (공연예술 창작기반 강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등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대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제작의 전(全) 과정을 지원
 - (연극) 우수작품 발굴 및 레퍼토리화 지원을 통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작품의 발전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설정
 - (뮤지컬) 우수레퍼토리를 발굴, 유통하는 것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창작뮤지컬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
 - (무용) 단순 제작비 지원이 아닌 작품아이디어 단계부터 공연 실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제작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및 사후 자생적 유통 고려 등 전문적 제작 및 유통 지원시스템 도입
 - (오페라) 우리 창작오페라를 개발하여 한국오페라의 체질을 강화하여 공연예술 전반의 동반 발전을 목적으로 설정
 - (음악) 작곡가의 창작곡 실연기회 확대와 이가 지속될 수 있는 우리나라 작곡가의 창작곡 연주(재연)를 지원

제3절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현황분석

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개요

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시설현황

1) 아르코예술극장

- (개요) 공연예술 전문극장으로서 폭넓은 공연예술 사업의 기획, 해외 주요 공연장과의 교류 추진 등을 취지로 1981년 개관
- 개관 이후 새로운 가치와 시각을 제시하는 다양한 공연예술작품을 개발, 지원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술적 가치창조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 (건축물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8길 7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축면적 2,386.42㎡, 연면적 5,376.37㎡, 지하 2층/지상 3층으로 구성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총 2층, 600석의 규모로 부채형 객석과 프로시니엄 무대¹⁾로 구성
 - (일반 객석) 1층 447석(휠체어석 6석 포함)과 2층 153석으로 구성
 - (보금자리 객석)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관람객 전용 공간으로 영유아 포함 12명의 수용인원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운영
 - (특징) 객석 간 앞 좌석과의 간격을 넓혀 관람객의 편의를 높였으며, 직경 12m의 양방향 회전이 가능한 회전무대 보유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총 110석 규모로 수납형 좌석과 블랙박스형 공간²⁾ 구성으로 객석을 자유롭게 배치 가능
 - (특징) 디지털 플레이어와 소극장 무대에 적합한 이동식 스피커가 구비되어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품의 시도가 가능
- (아르코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 면적 182.69㎡, 높이 6.57m 규모의 다목적 연습공간으로 아르코 예술극장 3층에 위치
- (아르코예술극장 연습실) 면적 270㎡, 높이 3m 규모의 연습실로 공연장 대관단체뿐 아니라 일반 단체에게도 개방 (보유시설 - 음향설비, 피아노, 전면 거울, 발레 바)
- (아르코예술극장 로비) 면적 약 383㎡ 규모로 공연장 대관단체를 대상으로 대관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연, 전시 및 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아르코예술극장 1층에 위치
-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 면적 약 842㎡ 규모로 공연장 대관단체를 대상으로 대관하고 있으며, 마로니에

1) '액자형 무대, 사진틀 무대'라고도 불리며, 객석에서 볼 때 원형이나 반원형으로 보이는 무대

2) '자유배치형 무대'라고도 불리며, 조명, 객석의 배치가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

공원과 연결된 공간으로서 풍부한 유동인구를 활용한 소규모 공연, 설치미술, 프로모션 행사 등이 가능

[그림 2-3]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좌), 소극장(우) 모습



2) 대학로예술극장

- (개요) 소극장이 밀집된 대학로에 부족한 중규모의 공공극장 설립을 통해 대학로의 순수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개관
- 대학로의 문화적 활력 재생의 중심점으로서 역할과 차세대예술가의 발굴 및 배출 플랫폼 공연장으로 다양한 공연예술작품을 개발, 지원
- (건축물정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에 자리 잡고 있으며, 건축면적 1,253.20㎡, 연면적 8,585.08㎡, 지하 4층/지상 5층으로 구성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총 2층, 504석의 규모로 부채형 객석과 프로시니엄 무대로 구성
 - (일반 객석) 1층 342석(휠체어석 6석 포함)과 2층 162석으로 구성
 - (특징) 객석과 무대의 거리를 좁혀 생생한 공연 관람이 가능하며 후무대와 하부무대를 활용한 다양한 무대연출이 가능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총 132석 규모로 수납형 좌석과 블랙박스형 공간 구성으로 객석을 자유롭게 배치 가능
 - (특징) 기획공연과 실험적인 창작공연을 통해 소극장의 구형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차별화된 젊은 신진 예술가 육성과 지원을 지향
- (대학로예술극장 스튜디오 다락) 면적 240㎡, 높이 3.24m 규모의 다목적 연습공간으로 대학로 예술극장 6층에 위치
- (대학로예술극장 연습실1) 면적 241㎡, 높이 2.2m 규모의 연습실로 공연장 대관단체뿐 아니라 일반 단체에게도 개방 (보유시설 - 분장실, 화장실, 샤워실, 발레 바)
- (대학로예술극장 연습실2(중연습실)) 면적 63㎡, 높이 5.9m 규모의 연습실로 공연장 대관단체뿐 아니라 일반 단체에게도 개방 (보유시설 - 음향설비, 분장실)
- (대학로 공작소) 공연단체와 예술가가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콘텐츠 촬영, 온라인 라이브송출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보유시설 - 촬영 장비(카메라, 캡처보드, 모니터, 오디오믹서, 마이크, 모니터 스피커 등), 라이브송출 스트리밍 프로그램 등

[그림 2-4]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좌), 소극장(우) 모습



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 현황

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일반 운영 현황

- (개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공모방식으로 차기 1~2년 단위 정기대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수시대관을 통해 공연 및 축제를 운영
 - (운영근거) 예술위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 운영규정’을 통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을 운영
 - (대관일정) 기획 프로그램 운영 일정, 극장 보수 및 안전점검 일정, 기타 극장이 정한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공모를 통해 대관 진행
 - (기획 프로그램) 2023년의 경우, <봄 작가, 겨울 무대>, <벽산 희곡상 수상작>,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운영
 - (대관 범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극장과 부대시설 및 장비, 지원 인력을 대관
 - (대관 시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기타 부속 공간과 부대시설 및 장비
 - (지원 인력) 무대감독 및 무대 기계 운영 인력, 조명디자이너, 음향 디자이너 및 오퍼레이터
 - (대관 분야) 연극, 무용, 뮤지컬, 다원 등 공연예술 공연 또는 행사를 대상으로 대관
 - (대관 신청 제한 분야) 일반 사회적 통념에 벗어난 공연 또는 행사나 공연예술 단체가 아닌 대상의 대관을 제한

[표 2-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대관 신청 제한 분야

구분	신청 제한 분야
일반적인 대관 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 • 공연장 시설,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공연예술 단체가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문 공연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 • 개인 기업체·시설 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

- (대관 심의) 공정한 대관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 (정기대관) 전체 위원 중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 (수시대관) 예술극장 극장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극장장, 극장운영부장, 무대기술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극장장이 결정
 - (심의 결과) 대관 심의는 제척, 기피, 회피제, 심의결과 공개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운영
- (대관 심의 기준) 대관 심의 기준은 매년 대관을 공모할 때 함께 공개하고 있으며 세부평가내용이 점차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변화
 - (평가내용) 2021년 이전 대관 공모에는 심의 기준별 가중치만 공개되던 상황에서 2022년 대관 공모부터 세부평가내용을 공개하였으며, 2023년 대관 공모에서는 심의 기준 및 평가항목이 변화

[표 2-3] 2021, 2022년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 대관 심의 기준

심의 기준	평가내용
공연작품의 예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완성도 • 작품의 우수성 및 인지도
공연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 및 의도의 타당성
공연작품의 해당 분야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 달성 기여도 • 관객파급효과 및 관객개발 기여도 •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
신청단체의 활동 실적 및 운영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의 확보 여부 • 적극적인 홍보계획 및 그 내용의 적정성 • 공연단체의 활동실적(객석점유율 등)

[표 2-4] 2023년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 대관 심의 기준

심의 기준	평가내용
창(제)작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제)작 의도와 목적) 창(제)작 의도의 목적의 명료성 및 동시대성 • (실현방법) 창(제)작 의도의 목적을 실현한 방법의 구체성 • (일정 및 단계) 전체 일정 및 단계의 적정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운영) 제작진 구성의 적정성 •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과 인력의 전문성 • (작업과정) 구성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고려
사회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기후 및 생태) 제작준비과정에서의 고려 • ((선택) 접근성) 접근성(배리어 프리 등)에 대한 고려 • ((선택) 다양성) 구성원의 나이, 젠더, 장애, 국적, 인종 등 다양성 • ((선택) 예술 현장 기여도) 창작 생태계에 대한 고려 • ((선택) 전통성) 전통적 가치에 대한 고려 • ((선택) 실험성) 새로운 가치에 대한 제안 • ((선택) 사회성) 동시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제안

- (대관 필수 이행사항) 예술인의 권리, 안전 등을 담보하기 위한 규약 및 이행사항을 요구
 - (세부내용) 스태프와 출연진의 '상해보험' 의무 가입, 공연자 안전교육 의무이행에 따라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 자치규약' 준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극장 및 대관단체 이행사항' 준수 필요

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 현황

- (개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공연 현황 파악
- (공연 상연 현황³⁾) 전체 연극시장의 공연 현황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건수 및 티켓판매 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

[표 2-5]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 현황 (1)

구분		공연 건수(건)	개막 편수(편)	상연횟수(회)	티켓판매 수
2019	아르코예술극장	58	58	201	18,556
	대학로예술극장	53	53	287	31,049
	계	111	111	488	49,605
	연극시장 전체	2,346	2,250	37,052	2,462,787
2020	아르코예술극장	84	82	301	21,784
	대학로예술극장	77	77	317	23,151
	계	161	159	618	44,935
	연극시장 전체	1,961	1,894	30,045	1,481,571
2021	아르코예술극장	63	62	212	17,405
	대학로예술극장	42	40	243	19,723
	계	105	102	455	37,128
	연극시장 전체	1,239	1,134	29,546	976,195
2022 ⁴⁾	아르코예술극장	108	108	369	43,395
	대학로예술극장	74	72	409	43,641
	계	182	180	778	87,036
	연극시장 전체	1,789	1,709	40,438	1,987,342

- (코로나19) 2020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티켓판매수는 전년 대비 9.4% 감소하였으나, 전체 연극 시장에서는 39.8% 감소하였으며, 2021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티켓판매수는 2019년 대비 25.2% 감소하였으나, 전체 연극 시장에서는 60.4% 감소
 -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연극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공공극장으로서 연극시장의 위기 속에 중심을 잡은 것으로 파악

[표 2-6]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공연 현황 (2)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공연 편당 상연횟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4.4	3.9	4.5	4.3	4.2
	연극시장 전체	16.5	15.9	26.1	23.7	19.6
상연 당 티켓 판매 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101.6	72.7	81.6	111.9	93.5
	연극시장 전체	66.5	49.3	33.0	49.1	50.4

- (공연 편 당 상연횟수) 2019년~2022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는 개별 공연 당 평균 4.2회 공연을 상연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체 연극 시장에서는 개별 공연 당 평균 19.6회 공연을 상연
 - 이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대관 공연장으로서 다양한 대관 단체에게 비교적 균등한 기회를

3)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4) 2022년의 경우 2022.01.01. ~ 2022.11.30.까지의 기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상연 당 티켓판매 수) 2019년~2022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는 개별 상연 당 평균 93.5개의 티켓을 판매하였으며, 같은 기간 전체 연극 시장에서는 개별 상연 당 평균 50.4개의 티켓을 판매
 - 이는 연극시장의 대부분 공연장이 소극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규모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 (공연 분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연극과 무용을 중심으로 공연을 수행하고 있으며, 점차 다원 공연(행사)의 비중이 증가

[표 2-7]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시설개요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극	51.5%	46.2%	32.4%	38.1%	42.3%
무용	42.3%	41.7%	59.0%	50.0%	48.3%
연극·무용 계	93.8%	87.9%	91.3%	88.1%	90.7%
뮤지컬	3.1%	5.3%	2.3%	0.7%	2.8%
전통	3.1%	5.3%	2.3%	1.5%	3.0%
음악	-	0.8%	0.6%	0.0%	0.3%
다원	-	-	2.9%	6.0%	2.1%
행사	-	-	-	-	-
기타	-	0.8%	0.6%	3.7%	1.1%

- (공연 분야 현황)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전체 공연 중 90.8%가 연극과 무용으로 나타남
- (대관단체) 창작산실 등의 자체 기획공연과 SPAF(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무용제 등 주요 축제가 매년 지속해서 개최
 - 2019년 연속대관 공연은 창작산실, 신춘문예 단막극전, MODAFE 2019, 2019 K-Ballet world (서울국제발레 축제), 2019 SPAF, 제19회 월드 2인극 페스티벌, 제40회 서울무용제 등으로 나타남
 - 2020년 연속대관 공연은 창작산실, 차세대열전 2019!, 제41회 서울무용제 등으로 나타남
 - 2021년 연속대관 공연은 2020 창작산실, 제42회 서울연극제, 제24회 크리티스 초이스 댄스 페스티벌 2021, 2021 SPAF, 제42회 서울무용제 등으로 나타남
 - 2022년 연속대관 공연은 제18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창작산실, 제43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 MODAFE 2022, 2022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2022 SPAF, 제43회 서울무용제, 2022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등으로 나타남

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변천사

- (설립 이전/1970년대) ‘문예회관’ 이전 공연예술 분야의 공간지원 열망
 -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으로 미술 부문과 공연예술 부문의 공간지원 요구가 대두
 - 1970년대 당시 서울 거점의 20여 개 연극단체와 50여 개 대학생 연극단체가 활동하였으나, 이 중 5~6개

5) 출처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홈페이지, 공연예매, 연간일정 기준 (2022.12.10.)

- 단체만이 공연장(소극장)을 보유하여 연극인의 창작 활동 및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에 대한 니즈 지속
- 1974년 7월 5일, 중구 충무로 5가의 정음사 건물을 임차 사용하며 '연극인회관'이 극장으로서 정식 개관
 - 극장 목적의 건축물이 아닌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극장으로 재구성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
 - 전속단체의 전용 무대가 아닌 대관 위주의 극장 운영과 적당한 규모의 크기를 통해 무대 공간의 부재 상태에 빠져있던 여러 극단에게 공연의 기회를 준 긍정적 평가
 - 그러나, 협소한 공간과 시설의 미비(전문 공연장으로 설계된 공간이 아님)에 따라 실험극 중심의 공연이 많이 상연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비한 시설로 인해 기성 극단들이 외면하게 되는 한계점도 존재
 - 이후 1977년 덕수궁 옆 세실극장으로 장소를 옮겨 재개관하였으며, 1976년부터 종합문화예술회관(미술회관, 문예회관)의 건립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1980년 12월 운영을 종료
 - **(설립/1980년대)** 공연예술 전문 공연공간으로 '문예회관' 개관
 - '공연예술의 진흥과 공연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 공연공간을 확보, 대관함으로써 무대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공연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함'의 목적으로 1981년 4월 1일 개관
 - 개관 당시인 198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 부의 획득과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이와 함께 공연예술 또한 질적, 양적 팽창이 요구되었으나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공연장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
 - 공연장 부족으로 인한 공연단체의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대학로 일대에 문예회관을 개관
 - 문예회관 이전 문화공간이 거의 없던 대학로 일대는, 이후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전문 소극장이 들어서며, 서울 시내의 가장 핵심적인 공연예술 지역으로 발전
 - 개관 이후 서울연극제, 대한민국무용제 등의 대규모 공연예술 행사를 연례적으로 유치하였고, 86아시아 게임 문화예술축전공연 등 국제적 행사도 유치하며 공연예술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정립
 - 타 극장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임대료, 좋은 지리적 위치, 훌륭한 극장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많은 공연예술인이 선호하는 극장으로 자리매김
 - **(개편/2000년대)** 공연예술 전용 공간의 부족 해결이라는 시대적 소명 달성과 함께 공연예술 분야의 새로운 지원을 위해 '예술극장'으로 개편
 - 1980년대 중반 이후 전국각지에 건설된 수많은 공연장이 문예회관이라는 약칭을 사용한 까닭에 이들과 차별성을 두고 이미지 향상을 꾀하고자 2002년 5월 24일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으로 극장 명칭을 변경
 - 예술극장은 기존 문예회관 시절 운영 방침을 고수하되, 창작 활동에 대한 간접지원 중 하나로 예술성이 뛰어난 순수 공연예술 작품 및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예술 활동을 진작시키며 일반에게 폭넓은 공연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
 - 2004년 총 17억을 들여 대대적인 시설 현대화 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재개관하였으며, 객석 천장, 조명실링, 조정실 천정을 교체하여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제거하였으며 객석 의자도 일괄적으로 교체
 - 시설 현대화 공사를 2005년 8월 16일부터 40여 일간 한 차례 더 진행하여 회전무대 및 오케스트라 피트 등 교체공사와 스피커 앰프 등의 음향기기 교체를 실시
 - 시설 현대화 공사와 함께 다양한 대상에게 공연예술을 전달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부가시설을 함께 설치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 1층 대극장에 영·유아를 포함할 수 있는 14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석'을 마련
- 2005년부터는 자체 예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2005년 8월 26일 예술극장을 운영하고 있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예술위로 전환됨에 따라 극장의 명칭 또한 '아르코예술극장'으로 변경
- **(재도약 준비/2000년대 후반)** 대학로예술극장의 개관과 함께 공연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팝업 씨어터 사태'로 인한 위기
- 2009년 6월 11일, 소극장이 밀집된 대학로에 부족한 중규모의 공공극장 설립을 통해 대학로의 순수 공연예술을 활성화를 위해 대학로예술극장 개관
 - 대학로예술극장은 대학로 문화적 활력 재생의 구심점으로서 역할과 차세대예술가의 발굴 및 배출 플랫폼 공연장으로 다양한 공연예술작품 개발 및 지원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
 - 차세대예술가의 발굴·지원의 중심극장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는 폭넓은 공연예술 사업을 기획, 추진
- 2010년 2월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등 6개 공연장을 통합한 한국공연예술센터(HANPAC) 설립으로 운영 주체가 한국공연예술센터로 변경
 - 한국공연예술센터는 기존의 직접지원을 투자의 형태로 가졌던 것과 달리 공연장 운영에 기반을 두고 시스템 지원을 통한 공연단체의 제작비를 절감시키는 간접지원 형태로 운영
 - 아르코예술극장은 무용 중심, 대학로예술극장은 연극 중심으로 운영을 계획
- 2014년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예술위로 기관 통합이 되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현재의 예술위 소속의 극장으로 운영
 - 한국공연예술센터의 운영기간 동안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미션, 운영 방향에 대해 사용자(연극인, 관객), 운영자, 지원기관(예술위, 문체부) 간의 협의나 합의가 없었다는 비판과 2015년 정기대관 공모 심사에서 서울연극제가 탈락하며, 심사 경위를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비판받음
 - 예술위로 통합 후 2015년 10월 '팝업씨어터' 운영 중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연중단 사태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내홍과 사태에 대한 공연예술인의 비판이 지속

[표 2-8]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주요 연혁

연도	세부내용	주요 이슈
1981	문예회관 개관	연극인회관을 넘어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문예회관 건립
2002	문예회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으로 명칭변경	타 극장과의 차별성을 위해 극장 명칭변경
2005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아르코예술극장으로 명칭변경	운영기관의 변경으로 극장 명칭변경
2009	아르코시티극장 개관 (같은 해 대학로예술극장으로 명칭변경)	대학로 내 새 극장 건립
2010	아르코예술극장 분리 후 통합법인(한국공연예술센터) 출범	새로운 운영 주체 도입
2014	한국공연예술센터-예술위 기관 통합으로 운영 주체가 다시 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	현재

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 계획 검토

가. 2022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 계획 검토

- **(기존 성과)** 안전하고 끊임없는 공연 실현과 예술현장과의 지속 소통
 - (코로나19) 2년 연속 공연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0'을 유지하였으며, 관련 노하우를 「공연장 감염병 대응 매뉴얼」로 제작하여 전국 955개 공연장에 배포
 - (안전한 공연장 환경) 7년 연속 공연장 내 안전사고 '0'을 달성하였으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자치 규약」 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공연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지속
 - (현장과 협업체계 구축) 대관 운영체계 혁신을 통한 현장 예술가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일상적인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 보상 및 교육의 기회 제공
 - (예술가의 지속가능성) 예술가의 지속가능성을 돕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이를 제도화
 - (홍보콘텐츠 심화) 미디어 창작공간 '대학로 공작소' 활용 홍보 확대 및 연계프로그램 발생 콘텐츠를 기반으로 홍보 스펙트럼 확장
- **(운영한계)** 코로나19의 지속 및 내부의 운영 이슈(운영체계 개편, 공연장 노후화 개선)
 - (코로나19)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 누적
 - (운영체계 개편) 기관 소속 공공극장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책임운영의 안정화 토대 구축이 필요
 - (공연장 노후화) 아르코예술극장 노후화로 인한 무대·객선, 기계·전기, 배관시설 등 전면적인 보수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건축에 대한 공론화 필요
- **(운영방안)** 문화예술위원회의 'ARKO VISION 2030' 방향성 아래 미래형 공공극장을 향한 예술가의 창조 활동을 돕는 파트너로의 운영방안 마련

[표 2-9]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시설개요

예술극장 비전	아르코 창작공간의 역할 정립
예술극장 운영목표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연장 운영 공연계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해 대관단체 프로덕션 책임제 운영 등 현장 협업 시스템 안착
추진전략	① 안전한 공간 운영 - 공연현장 안전, 감염병, 접근성 및 인권 강화
	② 대관운영체계 혁신 - 프로덕션 책임제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 강화
	③ 예술현장 협업 구축 - 예술극장 운영위원회 구성, 배리어프리 협업체계 구축
	④ 최상의 무대기술 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강화, 무대시설 현대화로 대관단체의 예술창작활동 기여
중장기 비전	(기존)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이 시민·관객과 만나는 공론장 (검토) 미래형 공공극장을 향하여, 예술가의 창조활동을 돕는 파트너

■ 안전한 공연장 환경 조성

- (안전체계 강화)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운영 및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와 인력 재교육 수행
- (접근성 강화) 배리어프리 공연제작 방식 다각화로 장애와 연령 구분 없는 공연문화 장려
- (안전기준 강화) 공연장 운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기준 강화

■ 예술극장 운영사업 안정화

- (대관운영체계 혁신) 공간지원 중심 대관을 벗어나 대관 공연 단체 중심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 (기획공연 개선) '봄 작가, 겨울 무대' 개선을 통해 신진작가의 창작 기회 확대와 창작자 간 소통과 네트워크 장 마련
- (현장 파트너십 구축) 예술극장 운영위원회 재구성 등 예술현장과 다양한 파트너십과 협업 시스템 구축
- (신규 관객 개발) 창작자와 관객 소통 다변화를 위한 내실 있는 콘텐츠 생산과 이를 통한 공연예술 관심도 제고

■ 최상의 무대기술 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으로의 역량 강화, 무대시설 현대화로 대관단체의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

나. 2022년 이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 계획 및 평가내용 검토

■ (공공성 확보-예술인) 예술현장과의 지속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

- (소통채널 다각화)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의 소통 채널 다각화를 위해 공론화 및 소통채널 다각화 노력, 코로나19 각 단계별 공연단체 개별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공연환경 조성
- (대관 운영 개선) 대관단체-극장 간 상호협력 모니터링을 통한 소통체계 및 공연장 운영 개선, 대관 절차 및 운영내용 제도화와 대관계약서 개정
- (의견수렴) 다양한 이슈 관련('팝업씨어터' 사과회 및 공청회, 아르코 화요 세미나 등) 예술현장과 공론화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 사업 체계 구축 노력

■ (공공성 확보-사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 노력 지속

- (배리어프리) 장애인 시설 및 공연접근성 워크숍 진행과 시설개선, 배리어프리 공연 최초 제작 추진, 대학로예술극장 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티켓마스터 파트 이동
- (안전) 다중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로 안전한 극장 조성 지속 노력
- (권리) 안전한 창작활동 과정 보장을 위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자치규약 제정과 이를 위한 공론화 과정 진행

■ (공공성 확보-관객) 관객 편의성 고려 및 잠재고객 발굴을 통한 공연예술 향유권의 확대

- (마케팅) 공연장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및 티켓 마케팅 신규추진
- (관객 친화) 관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객 중심의 1:1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일정 변경 시 총 85개 작품, 3,669건의 유선 안내 진행)
- (접점 확대) 외부 교육생 및 나주 근무자의 예술체험 경험 제공
- (참여) 시민참여형 관객 리포터 및 온라인 기자단 등 관객(일반국민)의 참여 폭 확대

제3장

극장 운영 사례분석

제1절 공공극장 현황분석

1. 공공극장 개요

- 공연예술의 현장성을 고려할 때, 이가 실현되는 공간인 극장 역시 공연예술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
- (공공극장의 목적) 공공극장이란 국비를 포함한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한 극장을 의미하며, 문화·예술의 공익성 달성을 위해 설립
- (정의) 공공극장이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립한 다목적 공연장을 의미
- (역할) 공공극장의 건립과 운영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극장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 연관이 있으며, 단순히 상연 장르의 상업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을 통한 공익성 달성이 주요한 역할
- (공공극장의 특성) 공공극장은 물리적 공연장만을 보유하여 대관 위주의 운영을 하거나 공연을 제작하고 만들어가는 예술단체를 보유하여 자체공연을 기획, 상연하며 운영
- (전속단체) 공연장 전체 조직이나 직제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공연장의 수직적 위계 선상에 있는 단체로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공연장의 방향성, 가치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반영
- (상주단체) 한 장소의 공연장에 상주해있는 예술단체로서 상주에 관한 특정한 계약에 의한 공연장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단체
- (대관 운영) 공연장만을 공연단체에게 대관하는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공연단체에게 기회를 제공하나 상대적으로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공연장의 방향성, 가치 등을 표현하는데 한계점 존재

[표 3-1] 국내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와 주요 공공극장 설립

공연장/기관	상주/전속단체	구분	창단연도
국립중앙극장	국립창극단	전속단체	1978
	국립무용단	전속단체	1962
	국립국악관현악단	전속단체	1962
예술의 전당	국립오페라단	상주단체	1962
	국립합창단	상주단체	1973
	국립발레단	상주단체	1962
	국립현대무용단	상주단체	2010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상주단체	1985
	서울예술단	입주단체	1986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무용단	전속단체	1975
	서울시오페라단	전속단체	1985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전속단체	1984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전속단체	2005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전속단체	1964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전속단체	1965

공연장/기관	상주/전속단체	구분	창단연도
	서울시뮤지컬단	전속단체	1961
	서울시극단	전속단체	1997
	서울시합창단	전속단체	1997
국립국악원	정악단	전속단체	1951
	민속악단	전속단체	1979
	창작악단	전속단체	2004
	무용단	전속단체	1962

■ (공공극장의 종류) 공공극장은 운영방식 또는 운영형태에 따라 구별

- (운영방식) 운영 주체에 따라 운영방식을 구분
 - (직접관리) 행정기관(공공단체)에서 직접 관여하고 공급하는 운영방식
 - (간접관리)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나 운영은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
 - (혼합관리) 공연장 운영 인력은 공무원이나 최고책임자는 계약에 의해 일정 기간 해당 기관의 책임을 맡는 운영방식
- (운영형태) 운영 주체의 형태에 따라 특별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정부 단체, 정부 단체 소속 등으로 구분
- 현재 공공극장은 국내 전체 공연시설 1,007개 중 50.2%로 506개가 존재하며, 대부분 유형은 문예 회관으로서 광역 및 기초지역자치단체에서 운영

[표 3-2] 국내 공공극장 운영 현황

구분	중앙정부	문예회관	기타(공공)
공연시설	12개	260개	234개
구분	국립	공립(광역)	공립(기초)
공연단체	30개	16개	66개

[표 3-3] 국내 주요 공공극장(공공 공연장) 미션 및 비전

구분	미션	비전
국립극장	전통에 기반한 동시대적 공연예술의 창작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시대적 전통공연예술 흐름의 선도 역할과 공공성 회복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 창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지속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국가대표 문화예술 기관의 위상 정립
국립정동극장	공연예술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공간	공연예술의 고객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문화집단
국립극단	누구나 경험하는 연극의 가치로 커가는 미래	오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내일의 연극을 분비하는 연극 플랫폼
국립국악원	-	국악으로 세계 속 신한류 확산

- **(공공극장 역사)** 해방 이후 1950년 국립극장의 건설을 시작으로 공공극장 건립이 시작되었으며, 각 정부의 문화정책에 조응하여 설립되고 운영
 - (설립목적) 공공극장은 시대적 필요에 의해 설립되기도 하나, 정부의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도 설립
 - (정책 변화) 정부의 문화정책은 초기 절대적인 공연장 부족 측면에서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 수도권-지역 간의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형 확대, 2010년대 이후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한 측면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진행
 - 정부 정책은 분절적 흐름이 아닌, 시대적 소명이나 니즈를 반영해 연속적으로 진행

[표 3-4] 국내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와 주요 공공극장 건립

시기	문화-예술정책 이념	문화-예술 정책 주요 내용	주요 공공극장
1948 ~1961	반공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행정 기반 조성 • 문화유산 보존 	국립극장(1950) 명동국립극장(1957)
1961 ~1972	민족문화 창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행정 중심 • 문화예술 행정의 본격화 	
1972 ~1981	자주적 민족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계승 • 정신문화, 생활문화 강조 • 국민홍보용 문화예술사업 	세종문화회관(1978)
1981 ~1988	문화 민주주의, 문화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투자 확대 • 대규모 문화시설의 조성 • 문화예술 향수권의 강조 	
1988 ~1993	문화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향수권과 참여권의 신장 • 국제문화-예술교류의 양적 확대와 다변화 • 창작풍토 조성 및 환경과 제도 개선 	아르코예술극장(1981) 예술의 전당(1990)
1993 ~1998	세계화, 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와 문화-예술 산업 강조 • 문화예술발전을 국가발전 중심축으로 인식 	
1998 ~2003	창의적 문화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기반사회의 문화예술 역할 강조 • 국가발전 성장동력으로 문화예술 산업 육성 	정동극장(1995)
2003 ~2008	참여, 자율, 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행정의 국민참여 확대 • 문화예술정책 자율체계 정립 	
2008 ~2013	국민, 희망, 문화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기반시설 지속 확충 • 신성장동력 육성 및 전통문화 활용 	국립남도국악원(2004)
2013 ~2017	문화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융성 토대 구축 • 국민 생활과 현장에서 문화예술 융성 실천 	대학로예술극장(2009)
2017 ~2022	자율성,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문화예술 기본권 강조 • 문화예술 공급자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5)

2. 공공극장의 한계점

- **(공공극장의 한계)** 대부분 공공극장의 설립목적 및 운영 방향은 정부 중심의 문화·예술 ‘지속가능성’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강조하는 등 차별화가 부족
 - 공공극장의 경우 보통 비영리로 운영되며 건립비의 대부분을 공공재원에서 부담하고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공공재원에 기대므로 관객이나 이용자들에게 단순한 공연장 이상의 역할을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
 - 공공극장은 보통 국가를 대표하며, 우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주민(또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부응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
 - 그러나 이러한 설립목적을 공공극장 대부분이 공유함에 따라 각 공공극장으로서의 특성은 지역적 위치나 주요 상연공연의 장르를 제외하고는 차별성이 다소 부족
- **(대관 중심 사업의 한계점)** 자체 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기획공연이 적은 경우 공공극장의 한계점이 더욱 부각
 - 대관 중심의 공공극장(문예회관)의 경우 공연을 위한 예술시설이 아닌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행사시설로 이용됨에 따라 문화·예술 인프라에 비해 효과성이 낮게 도출
 - 공공극장이 문화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예술가는 관객을 만나기 위해 시설관리자들의 시설을 대관하거나 허락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발생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예술 예산은 한 해 1조 9천억 원에 이르나 문예회관 운영상에서 규모의 과잉(인구와 예술소비량에 비해 부적절), 스펙의 과잉(허구적 목표와 정책에서 기인한 대형 다목적홀 일색) 등의 문제점 드러내며 예산 낭비가 지적

제2절 공공-민간 극장 운영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 국내 다른 공공극장의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의 차별적인 특성을 도출
- 국내 대표적인 공공극장(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극장)을 중심으로 공공극장의 일반적인 운영사례 파악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주요 공연 부문(연극, 무용)을 중심으로 유사한 공연 부문을 운영하는 공공극장 파악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공연장 규모를 중심으로 유사한 공연장 규모를 운영하는 공공극장 파악

[표 3-5] 국내 주요 공공극장 운영 개요

구분	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방향
국립 정동극장	공연예술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공간	공연예술의 고객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문화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tivity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 Communication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 Challenge 지속적으로 도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고품질 공연 기획 제작 체계 구축 •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강화 • 정동극장의 대외 브랜드 인지도 제고 • 경영효율화 확립
국립극단	누구나 경험하는 연극의 가치로 커가는 미래	오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내일의 연극을 준비하는 연극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FP (Excellent, New and Friendly People, everyday New Fantastic Possi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Excellence) 뛰어난 - 동시대 연극을 선도 • N(Novelty) 새로움 - 관객과 무대의 확장 • F(Friendly) 어울림 - 연극예술의 ESG경영 • P(Purity) 깨끗함 - 안전하고 밝은 조직
국립극장	전통에 기반한 동시대적 공연예술의 창작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시대적 전통공연예술 흐름의 선도 역할과 공공성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창작 • 일상에서 누리는 공연예술문화 향유 증진 • 미래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공연예술부분 문화행정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와 소통하는 국립극장 레퍼토리 제작 • 국립극장 브랜드 가치 확산 • 고품질 공연 실황 영상 제작 유통 • 어디서나 체험할 수 있는 전통예술교육 프로그램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박물관 지향 /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열린 복합문화공간 운영 / 국립예술기관에 특화된 대민 접점 서비스 향상 •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전략적 홍보 / 무대예술 전문인력 배출 및 교육
예술의	문화예술 창달	문화예술의 가치	• 문화예술의 가치 제고	• 수준 높은 작품 기획·제작

전당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진흥	제고를 통한 예술기관의 위상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책임경영 • 예술인·고객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제작 환경 마련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예술 창작과 향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
세종 문화회관	문화예술의 살아 있는 역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	특별한 경험으로 시민 삶에 가치를 더하는, 세종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Creative) 창의성을 예술가와 협력하려는 의지 • 도전(Challenge) 위험을 극복하려는 용기와 도전 • 통찰(Insight) 역사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통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예술의 흐름을 선도하는 제작극장 •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차별화하는 예술단 •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예술

가. 국립정동극장

1) 개요

- (위치 및 지리적 특성)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 ‘원각사’가 위치했던 서울 정동(중구)에 새롭게 개관
- (설립배경 및 목적)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 ‘원각사’의 복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근현대 예술정신을 계승하여 1995년 ‘정동극장’ 명칭으로 개관
 -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더불어 창작 초기 단계를 걸친 공연 중 발전 가능성이 큰 작품을 발굴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육성·지원·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2차 제작극장’의 역할을 수행
- (주요 시설 및 규모) 국립정동극장(326석·휠체어석 2석)과 국립정동극장 세실(234석), 유니크 배뉴 정동마루(공간면적 143㎡, 60석(좌석), 80인(스탠딩) 규모)를 운영
 - (부속시설) 편의시설로 카페(CAFE 정담) 운영
 - (문화공간) 정동극장 야외마당을 통해 시민을 위한 야외 공연 프로그램 운영
 - (연간 공연횟수) 2021년 기준 총 16편의 공연, 451회 진행

[표 3-6] 국립정동극장 역사 및 연혁

연도	세부내용
1995. 06. 17.	‘정동극장’ 개관 (국립중앙극장 분관체제 운영)
1997. 01. 01.	재단법인 정동극장 출범 (문화관광부 관리위탁)
2008. 06. 18.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 출범 (명동예술극장·정동극장 통합 운영)
2011. 07. 01.	경주 브랜드공연 연중 상설공연 개막
2015. 04. 01.	재단법인 정동극장 출범 (명동예술극장 분리)
2017. 03. 01.	‘정담’ 편의시설 오픈
2017. 04. 14.	‘정동마루’ 개관
2021. 03. 23.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법인명 변경

2)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차별적 특성

- (국립정동극장의 특성) 제작극장으로서의 창작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제작극장으로서 정동극장의 위상 강화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추구

[표 3-7] 국립극장 사업 현황

전략목표	추진과제	구조적·인적·물적 특성
지속가능한 우수 공연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래퍼토리 작품개발 및 작품만족도 확대 • 협업과 상생을 통한 제작역량 강화 •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언택트) 사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공연 콘텐츠 강화 및 해외 우수 공연콘텐츠 확보 • 극장의 작품 선정, 제작 방식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협업 시스템을 운영 • 주요 포털, SNS 외 통신사와 협업하여 서비스 제공 플랫폼 확대 추진
미래지향형 전통예술 콘텐츠 개발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예술공연 강화 및 전통 창작공연 확대 • 전통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공연 확대 • 실감형 전통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동극장 예술단(원) 창단 및 운영 • 한국공연관광협회, 한국관광공사 등과 협업 강화 • ICT를 활용한 전통예술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역문화 콘텐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지역브랜드공연 신규작품 개발 및 강화 • 지역과의 협업을 통한 모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지역의 특징(신라 등)을 반영한 경주지역 브랜드 공연 운영 • 경주지역브랜드 공연을 20~30분으로 축소한 갈라 공연을 지역 협업 공연으로 운영
공공문화·예술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예술가 발굴, 지원 지속화 • 문턱을 낮춘 열린 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예술인 지원 사업 ‘청춘만발’ 운영 강화 • 정동극장 주변 대사관, 역사·문화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정동 가을 문화 축제’ 운영
대외브랜드 인지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가치 및 경쟁력 증대 • 극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동극장 예술단원 온라인 전통아카데미 시리즈 기획 제작 • 무료회원제(정동메이트) 대상 서비스 강화
극장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장 재건축 추진 및 공연장 특성화 준비 • 극장 중장기 운영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장(300석)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예술적 실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 • 정동극장과 정동극장 예술단의 중장기 운영 비전 수립

자료: 국립정동극장 자료 재구성(비전 및 주요사업과 사업계획 기반)

3)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 (관객 친화형 극장) 공연 작품이 아닌 ‘예술가와 창작과정’을 소개하고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연예술 창작의 주요 분야(작곡, 음악 등)를 집중 조명하는 공연 전문 작곡가의 작업이야기 <오선지를 걷어가는 작곡가(오걸작)>, 스토리텔링이 있는 대중음악 콘서트 <정동의 여름> 등 운영
- (공연단체와 극장 협력) 제작시스템의 다양화를 위한 ‘공공-민간 협업 시스템’ 지속 강화
- 1차 제작된 가능성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극장의 다양한 제작, 홍보시스템 지원 및 작품 업그레이드

- 등 2차 제작극장으로의 역할을 정립
-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간접지원 및 상생 협력 강화 및 민간과 함께하는 ‘공동제작’ 시스템의 고도화 및 파트너십 강화
- **(공연단체와 극장 협력)** 경주지역브랜드 공연을 통한 지역과의 협업 강화
- ‘신라’의 전통적 소재와 뮤지컬적 요소를 결합하여 경주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
- 경주 지역브랜드 공연과 지역축제, 행사 등을 연계하여 지역민 및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대상의 특별 공연 시행
- **(공연예술과 기술의 공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전통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재건축 이후 극장 운영 방향을 점검
- AR, VR, IoT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정동극장의 특성 활용 예정
- **(관객 지향적 마케팅)** 극장 시즌제 마케팅 확대 및 마케팅 네트워크 확대
- ‘Hello, 정동’을 통한 연간 브랜딩을 추진하며 시즌제 운영을 통한 사전 티켓 판매 등의 마케팅 효과 강화
- 예매처 공동마케팅, 제휴판매 마케팅 강화 등 관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 시도

나. 국립극단

1) 개요

- **(위치 및 지리적 특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접근성 높은 명동의 지리적 이점과 건물 복원을 통해 과거 명동으로 상징되던 한국 문화예술 정신의 귀환 상징성을 더함
- **(설립배경 및 목적)**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립극장설치령(1949)으로 국립극장과 함께 국립극단 창단
- 우리나라 연극예술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 안정적인 연극 제작환경 조성 및 공연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극단의 전용극장으로 사용
- **(주요 시설 및 규모)** 3개 층으로 이뤄진 명동예술극장(552석·휠체어석 8석)과 가변형 극장인 백성희 장민호극장(180석·휠체어석 2석) 및 소극장 판(100석·공연별 휠체어석 위치 상이)을 갖춘
- (부속시설) 오페라, 발레, 합창 분야별 공연예술 연습실 조성
- (문화공간) 국립극단 출판도서 및 기념품 구매가 가능한 명동예술극장의 아트숍과 문화 휴식 공간 및 야외광장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 (연간 공연횟수) 2021년 기준 총 60회 진행(연극강좌 12회 포함)
- **(교육 프로그램)** 차세대 예술가 육성과 미래의 관객 개발을 위한 청소년극 공연제작 및 창작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운영

2)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차별적 특성

- (국립극단의 특성) 전통극 보존·전승을 위해 청소년과 신진작가 대상 작품개발 과정 작품개발 및 창작인큐베이팅 등 다원화된 방식으로 협업 진행

[표 3-8] 국립극단 사업 현황

전략목표	추진과제	구조적·인적·물적 특성
동시대 연극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연극 제작 및 미래 연극 발전 추진 • 어린이·청소년 연극 발전 및 문화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 작가와 협업을 통한 ‘창작공감’ 창작극 개발 프로그램 신설 • 청소년 연극 방향성 제시와 제작공연을 위한 ‘어린이청 소년극연구소’ 운영 *
고객과 무대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접근성을 위한 무대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단체 중 첫 자체 OTT 플랫폼 ‘온라인 극장’ 개관 • 실험무대 ‘SETUP202’진행 **

자료: 국립극단 자료 재구성(운영목표 기반)

* 청소년극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 및 청소년극의 예술적 뒷받침(청소년극에 진입하는 예술가 발굴 및 진입유도)을 통한 청소년 예술가 및 관객 확장

** 관객이 무대 위에 설치한 회전 의자에 앉아 원하는 방향으로 360도 회전하며 관람하는 형태로 실험적 공간 사용

3)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 (관객 친화형 극장) 국립극단 서계동 야외마당을 활용해 어린이·청소년이 연극을 일상에서 마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소규모 이동형 공연 개발 및 ‘연극인 잔치’ 등 특별공연 공간으로 구성
- (친환경 공연장 조성) 공연물품 무료 나눔 사업 ‘빨간지붕 나눔장터’ 기획, 국립극단의 자산을 민간극단에게 나눔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 실천 및 공공예술기관으로서 국립극단 역할 수행
- (공연장 접근성) 연극 ‘로드킬인더씨어터’를 준비하며 국립극단 배리어프리 공연 접근성 강화 매뉴얼을 제작해 장애인 관객 지원방안 구체화
 - 온라인극장으로 상영된 공연에 수어 통역, 공연해설 오디오, 공연해설 자막 등 제공, 관객 현황 조사 결과 전체 관객 대비 장애인 관객 증가(‘19~’22)
- (공연예술과 기술의 공존) ‘코오피와 최면약’ 연극에서 최신기술 VR 장비를 통해 관객 주도형 콘텐츠 활성화, 프로시니엄(액자형 무대)에 갇혀 있던 공연의 정형성을 깨고 공연의 개념을 극장 바깥에서 재정립
 - ‘몰입형 입체음향시스템(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 도입으로 음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입체적·생동감 넘치는 소리 사운드 제공
- (관객 지향적 마케팅)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충성도 강화
 - ‘대사 좀 맞춰줄래’ 및 ‘읽어양덕(일거양덕)’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실제 공연에 출연하는 배우들과 영상을 통해 대사를 맞추는 방식으로 ‘관객들과 논다’를 목적으로 연극에 대한 회원들의 몰입도 향상

다. 국립극장

1) 개요

- **(위치 및 지리적 특성)** 서울의 중심인 남산에 위치함으로써 지리적 상징성을 더함
- **(설립배경 및 목적)** 민족예술의 창조적 발전, 한국문화의 국위선양,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의 목적으로 1950년 4월 29일 아시아 최초의 국립극장으로 설립
- 대부분 단일목적의 용도를 가진 외국의 극장과 달리 순수연극 외에도 오페라, 발레, 교향악 등을 공연할 수 있는 다목적극장의 성격으로 설립
- **(주요 시설 및 규모)** 대극장 해오름극장(1221석·휠체어석 12석)과 소극장 달오름극장(510석·휠체어석 6석), 공연에 따라 무대가 변하는 별오름극장(74석·이동식 30석), 원형 야외무대 하늘극장(627석·휠체어석 6석)을 갖춘
- (부속시설) 공연예술박물관, 전속단체 단원들을 위한 뜰아래 연습장 조성
- (문화공간) 문화광장, 은하수 쉼터, 무지개 쉼터, 무지개길, 조각공원 등 시민들의 여가·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공간 조성
- (연간 공연횟수) 2021년 기준 총 134회 진행(기타 공간 8회 포함: 롯데콘서트홀 등)
- **(교육 프로그램)** 주로 전통예술을 접목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어린이 예술교육 활성화 및 예술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어린이 예술학교' 운영

[표 3-9] 국립극장 예술교육 프로그램 (2021)

대상	교육명/강좌명
일반인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념 학술행사)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념 학술행사
어린이/청소년	(어린이 예술학교) 2021 국립극장 겨울방학 어린이 예술학교(오후반)
	(어린이 예술학교) 2021 국립극장 겨울방학 어린이 예술학교(오전반)
일반인	(전통예술아카데미) [2021 집에서 만나는 전통예술아카데미-상반기] 한국무용(입춤)
	(전통예술아카데미) [2021 집에서 만나는 전통예술아카데미-상반기] 판소리
어린이/청소년	(청소년 창극아카데미) 2021 국립극장 창극아카데미(혼합형학습)
일반인	(여우락 아카데미) [2021 여우락 아카데미] 여우락 워크숍
기타	(교사직무연수) 2021 국립극장 교사직무연수
어린이/청소년	(어린이 예술학교) 2021 국립극장 겨울방학 어린이 예술학교(오후반)
	(어린이 예술학교) 2021 국립극장 겨울방학 어린이 예술학교(오전반)
일반인	(공연예술특강) [2021 공연예술특강 1회] '숨 그리고 걸_이슬기 가야금연주가
	(전통예술아카데미) [2021 전통예술아카데미-하반기] 사물놀이
	(전통예술아카데미) [2021 전통예술아카데미-하반기] 한국무용(입춤)
	(전통예술아카데미) [2021 전통예술아카데미-상반기] 판소리
	(공연예술특강) [2021 공연예술특강 2회] '한국적인 것?' 김설진 무용가,배우
(공연예술특강) 2021 공연예술특강 3회 '詩 그리는 歌_하윤주 정가보컬리스트	

2)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차별적 특성

- (국립극장의 특성)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동시대적 공연예술 창작을 중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연·작품 지속 개발 및 전통 공연예술확산

[표 3-10] 국립극장 사업 현황

전략목표	추진과제	구조적·인적·물적 특성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와 소통하는 국립극장 레퍼토리 제작 • 국립극장 브랜드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공연예술에 기반한 동시대성을 담은 국내 유일의 제작극장 •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진행('12~)*
미래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복합문화공간 운영 • 국립예술기관에 특화된 대민접점 서비스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공연 실황 영상 제작·유통 •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서비스 **

자료: 국립극장 자료 재구성(비전 및 주요사업과 사업계획 기반)

* 한 해 동안 공연할 전체 프로그램을 미리 구성해 작품·출연자 등 라인업을 미리 제공

** 모바일·OTT·영화관 등 폭넓은 채널을 통해 초고화질 영상부터 5G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멀티뷰 영상 제공

3)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 (관객 친화형 극장) 약 2천여 평의 넓은 문화광장을 개방적인 공연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무료 야외 공연 포함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포용적 공간 조성
- 국립극장의 계절 축제인 '여우樂 페스티벌'과 야외축제 '여우야(夜)'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분수대와 하늘공원 등을 마련하여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 (공연단체와 극장 협력) 지역극장과 국립극장 레퍼토리 공연 협업
- 지방 주요 거점 극장들과 기획 단계부터 공동기획·제작, 공동주최 등 다양한 방식 협업을 통해 신작 개발·공연함으로써 지역극장의 제작역량 제고 및 전통공연 관객 저변 확대
- (공연장 접근성 환경)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시 자막 및 수화 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 친화 서비스 제공
- 한글 자막과 음성 해설, 수어 통역이 함께하는 무장애 공연과 터치 투어(Touch Tour) 진행
- (친환경 공연장 조성) 국립극장과 농부시장 마르쉐가 협업해 선보이는 '아트 인 마르쉐'를 통해 친환경 행사 및 광장의 야외무대에서 공연 진행
- (공연예술과 기술의 공존) 국내 공연장 최초로 '물입형 입체음향시스템(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 도입, 음형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입체적·생동감 넘치는 선명한 음감 제공 및 음향 개선 작업 진행
- (관객 지향적 마케팅) 전략적 통합 마케팅 추진을 통한 관객 증대
- '정오의 시연' 엽서 이벤트 지속 운영, 관객이 월별주제와 관련된 사연을 남기면 해설자가 공연 중에 읽어주는 시간을 통해 '참여형 공연' 유도 및 공연 전후 이벤트 강화로 관객 참여도 제고

라. 예술의전당

1) 개요

- (위치 및 지리적 특성) 대다수 외국의 유명 문화시설은 도심의 광장, 시청 등 공공 공간에 있으나 예술의 전당은 일반 시민들의 우연한 방문이 어려운 위치
- (설립배경 및 목적) 88올림픽이 탄생시킨 문화공간으로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타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
-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를 모델로 시각예술과 자료관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음악계의 강한 오페라하우스 설립 요구에 맞춰 콘서트홀·미술관·자료관·오페라극장 등을 갖춘 아시아 최초 복합예술기관이자 장르별 전문 공연장
- (주요 시설 및 규모) 대표극장인 오페라극장(2,283석·휠체어석 20석)과 다목적 공연장 CJ토월극장(1004석·휠체어석 10석), 실험적인 자유소극장(221석·휠체어석 4석), 국내 최초 콘서트홀(2,505석·휠체어석 24석), 실내악 전용 연주홀인 IBK챔버홀(600석·휠체어석 6석), 리사이틀홀(350석·휠체어석 4석), 인촌아트홀(100석·휠체어석 2석)을 갖춘
- (부속시설) 오페라, 발레, 합창 등 5개 국립예술단체 공용 공연 연습실 조성을 통해 예술단체 간 교류 도모
- (문화공간) 한가람디자인미술관·한가람미술관·서울서예박물관 등을 포함한 전문 전시장과 문화휴식공간(음악광장, 야외광장, 계단광장 등)을 통해 서울시민과의 접근성 확대
- (연간 공연횟수) 2021년 기준 총 1,021회 진행(총 351회 개인 독주회 포함)
- (협력기관) 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국립합창단·국립현대무용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상주 및 서울 예술단·예술위 아르코예술기록원·한국문화·예술연합회 입주

2)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차별적 특성

- (예술의전당 특성) 자체 기획·제작 콘텐츠를 활용 지역 공연문화 발전 및 문화·예술 종사자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플랫폼 선도

[표 3-11] 예술의전당 사업 현황

경영목표	전략과제	구조적·인적·물적 특성
예술가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기획·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연장 확충 • 작품 창작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인 공연 및 전시 기회 제공 * • 'SAC 나눔' 예술기부 플랫폼 고도화 ** • 국내 대표 청년서예작가 단체와 콜라보 *** • 창작 예술작품의 해외공연 추진
공공성과 보편성 지닌 장르·작품 소개로 문화 향유 가능 계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장르의 영상 콘텐츠 제작 보급 • 실감형 콘텐츠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영상을 지역으로 보급하여 문화 편중 현상 해소 ****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플랫폼으로서 효율적 공간 운영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선제적 예방 • 상생을 위한 예술장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전자티켓 및 검표 시스템 도입 • 공연영상 제작 스튜디오 활성화

자료: 예술의전당 기관업무 보고자료(2022) 재구성(기관 운영방향 기반)

* 한국가곡축제, 여름음악축제, 한국소극장오페라축제, 대한민국발레축제 등 공연분야 청년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

** 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예술 기부 디지털화로 손쉬운 기부문화 정착 기대

*** 전통서예와 현대예술을 융합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전시기회 확대

**** 영상화 사업을 통해 (지역)문예회관·학교·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으로 보급

3)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 **(관객 친화형 극장) 센터 앞 광장의 세계음악분수를 잔디광장으로 개·보수하여 시민들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식공간으로 활용**

[그림 3-1] 예술의전당 세계음악분수



- **(친환경 공연장 조성)** 예술의전당 뒤편 우면산 자락의 연못 주변에 야외무대인 숲속 공연장을 설치, 클래식부터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무료로 선보이는 ‘한여름 밤의 숲속 음악회’ 진행
 -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과 함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공연장 접근성 환경)** 시각장애 음악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및 장애인과 보호자 초대를 통해 장애 관객과 창작자들의 접근성 장벽 제거
- **(공연예술과 기술의 공존)**
 - ‘Sac on SCREEN’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술의전당이 선별한 예술 콘텐츠(발레·클래식·뮤지컬·연극 및 전시 등)를 영상 또는 실시간으로 송출 등 온라인 공연 활성화
 - 또한 한국 가곡 8곡을 VR(가상현실) 기술과 접목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음원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콘서트홀 무대에 서보는 경험 제공 및 음악을 즐기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공연단체-극장 협력)** 민간 공연예술단체 대상 영상 제작 지원 사업
 - 공연 영상 스튜디오 ‘실감’을 운영하여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장비 접근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창작과 유통 기회 제공

마. 세종문화회관

1) 개요

- (위치 및 지리적 특성) 서울 중심지인 광화문 근처(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하여, 서울 시민의 접근성이 우수
- (설립배경 및 목적) 1972년 서울시민회관의 화재 소실 이후 국내에 부족한 대형 공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74년 1월 서울시민회관 자리에 건립되어, 1978년 4월 개관
- 1961년 우남회관으로 출발해 1978년 개관 이후 한국 공연예술의 등용문이자 국제공연예술의 유일한 통로로 활용
- 예술의전당 건립 이후 국내 국제공연예술의 상연 공간이 다변화
- (주요 시설 및 규모) 대표극장인 세종대극장(3,022석·장애인 좌석 20석)과 종합구성물 전문 공연장 세종M씨어터(609석·장애인 좌석 7석), 실내악 전문홀 세종체임버홀(443석·장애인 좌석 5석), 가변형 공연장 세종S씨어터(328석·장애인 좌석 4석)를 운영
- (부속시설) 산하 예술단 연습실과 사무실이 위치한 세종예술동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 소재하는 꿈의숲아트센터 운영
- (문화공간) 전시공간인 세종 미술관(1,2관), 일반국민 대상 문화·예술강좌 공간인 세종예술아카데미 운영
- (연간 공연횟수) 2021년 기준 공연 450편, 공연횟수 총 1,159회 진행
- (예술단) 9개의 서울시예술단을 전속단체로 운영(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서울시무용단, 서울시합창단, 서울시뮤지컬단, 서울시오페라단,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서울시청소년국악단)
- (교육 프로그램)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돕기 위해 세종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클래식, 오페라, 미술사, 영화 등 다양한 강좌 마련

2)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차별적 특성

- (세종문화회관 특성) 산하 예술단을 통한 공연과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추구하며,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산에 초점을 둔 세부 사업을 수행

[표 3-12] 예술의전당 사업 현황

경영목표	전략과제	구조적·인적·물적 특성
세계 예술의 흐름을 선도하는 제작 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시즌제(세종시즌) 운영 • 프로그램 제작 방식의 변화 • MZ세대 중심의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단 중심의 시즌 구성으로 운영 • 동시대성을 강화한 서울시예술단의 공연과 기획공연을 시즌으로 구성 • 다양한 장르의 동시대 공연예술계의 대표 아티스트 기획 공연 • 옴니보어 형식의 공연 제작 및 상연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차별화하는 예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예술 리더십 발굴 • 서울시예술단의 정체성 회복 • 청소년예술단 운영방향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단의 직책단원 역량 강화 • 전문 예술단체는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청소년 단체는 설립 취지에 맞는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로 운영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렌디한 예술교육 및 전시 • 시민 문화 충전 프로젝트 •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의 문화충전을 위한 '천원의 행복' 사업 운영 • '세종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통해 어린이 예술교육 강화 • 온라인 세종예술아카데미를 통해 메타버스 및 VR, AR 기반의 예술교육 체험 플랫폼 기술 협력 방안 모색

자료: 세종문화회관 주요업무계획(2022) 재구성(기관 운영방향 기반)

3)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 **(관객 친화형 극장)** 광화문광장 재개장에 따른 시민 편의공간 확충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 (지상 1층) 공공라운지, 통합매표소, 키즈라운지 등 편의시설 설치
 - (지하 1층) 내외부 지원시설 운영
- **(공연장 접근성 환경)** 세종문화회관 접근성 개선 사업계획
 - 광화문광장 연계, 외부공간 활성화 및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 2층 테라스 시민 편의공간 조성, M씨어터 무대장비 반입 리프트 설치 등)
- **(공연장 접근성 환경)** 다양한 시민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공연장 문턱을 낮추는 사업 시행
 - ‘천원의 행복’을 통해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
 -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
 - ‘수어연극’ 등 배리어프리 공연 활성화
- **(공연예술과 기술의 공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정적인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자동검표 방식을 도입하며 원스톱(문진표, 발권, 입장)으로 입장 가능한 모바일 티켓, 키오스크 형태의 무인발권기 등 적극 활용
 - 세종문화회관의 공연, 전시 등 우수 콘텐츠를 선정하여 영상자료로 송출과 예술자료의 디지털화 지속 및 구축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고도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예술 실기 교육 운영 등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 강화
- **(공연단체·극장 협력)** 민간 공연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기획공연 상연
 - 무용, 다큐연극, 전통, 실험 오페라, 오디오비주얼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대표 아티스트들의 기획 공연을 운영

바. LG아트센터

1) 개요

- **(위치 및 지리적 특성)** 서울식물원 내에 위치하여 자연·예술의 융합 공간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동시에 지하철역과 공연장이 곧바로 연결돼 이용 고객의 접근성 확대
- **(설립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립
 - 사회 공공기여 차원에서 오페라, 뮤지컬, 발레,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설계
- **(주요 시설 및 규모)** 다목적 공연장 LG시그니처 홀(1,335석·휠체어석 14석)과 가변형 극장 U+ 스테이지(365석·휠체어석 2석)을 갖춘
 - (부속시설) 오케스트라·뮤지컬·오페라 연습이 가능한 대형 리허설룸과 연극·무용 연습에 적합한 소형 리허설룸 구비, 공연 제작을 위한 환경 구현

- (문화공간) 관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루프탑과 소규모 전시 및 라운지 공간인 아트 라운지 및 포크캐논 구조물을 통해 무대 외 극장 공간 공유
 - 포크캐논: 8개의 캐논에서 도넛 모양의 포그가 발사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

[그림 3-2] LG아트센터 루프탑과 포크캐논



- (연간 공연회수) 2021년 기준 총 8편의 기획공연을 진행(정확한 공연회수 데이터 확보 어려움)
- 국내 최초 '기획공연 시즌제' 도입을 통해 공연계 패러다임 전환
- (교육 프로그램)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만큼 공연장/건축 투어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2)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차별적 특성

- (LG아트센터 특성) 희소성 강한 공연문화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공연 생태계 조성

[표 3-13] LG아트센터 사업 현황

전략목표	추진과제	구조적·인적·물적 특성
공연예술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정상급 예술가들의 작품 소개 • 현대 공연예술계 최신 트렌드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수준의 기획공연 프로그램 * •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에서 호평을 얻은 우수한 작품 소개
공연문화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인 경영으로 국내 공연 문화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권 폐지, 시즌제·패키지 제도 도입, 뮤지컬 장기 대관 등

자료: LG아트센터 인터뷰 자료 재구성

* 피나 바우쉬, 피터 브룩 등 세계 최고 거장들의 작품 및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들과의 작품 발굴 및 꾸준한 소개로 안정적인 관객층 확보

3)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 (관객 친화형 극장) 무용 및 연극 등 전통적인 공연예술 장르가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을 대상으로 극장에 대한 심리적인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클럽 아크(Club ARC)' 진행
- '클럽 아크'공연 기간 동안 극장과 로비 공간을 활용 팝업스토어 및 바 운영, 관객들의 자유로운 이동 및 관객 체험형 공연 진행
- (공연예술과 기술의 공존) 소개해온 국내외의 공연 콘텐츠를 디지털 스테이지'컴온(CoM+On, CoMPAS Online)'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객들에게 소개, 기획공연 중 화제를 모은 작품들로 구성
- 잔향 가변 장치(VABS)와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 등 최첨단 음향 장비 도입을 통해 공연의 대면성 가치 강조

사. 두산아트센터

1) 개요

- (위치 및 지리적 특성) 궁궐, 한옥마을, 대학로 등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종로에 위치함으로써 문화예술 특성을 더함
- (설립배경 및 목적) 1993년 두산 창업 100주년·111주년 기념을 맞이해 젊은 예술가들에게 재정 지원을, 관람객에게는 새로운 예술을 소개하는 문화예술 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 '93년부터 운영해 오던 연강홀을 다양한 문화사업 지속을 위해 음향, 조명, 무대시스템을 갖춘 620석 규모의 뮤지컬 전문극장으로 탈바꿈
- (주요 시설 및 규모) 중극장 연강홀(620석·휠체어석 별도 준비)과 블랙박스형 공연장 Space111(230석·휠체어석 별도 준비)을 갖춘
- (부속시설) 뮤지컬과 같은 대형 공연을 위한 연습실과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습실을 별도로 조성
- (연간 공연횟수) 2021년 기준 총 15편의 공연 진행(정확한 공연횟수 데이터 확보 어려움)
- (교육 프로그램) 주로 공연예술분야의 기획가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 이야기를 공유하는 창작 워크숍 진행, 또한 인문극장 운영

2)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차별적 특성

- (두산아트센터 특성) 젊은 예술가 인재양성과 더불어 문화·예술지원부터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표 3-14] 두산아트센터 사업 현황

전략목표	추진과제	구조적·인적·물적 특성
예술이 담아야 할 동시대 화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적·인문학적·예술적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산인문극장 프로그램 운영(~'13) *
문화·예술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공연 분야에서 독자적 세계 구축 및 흐름을 위한 예술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산연강예술상(~'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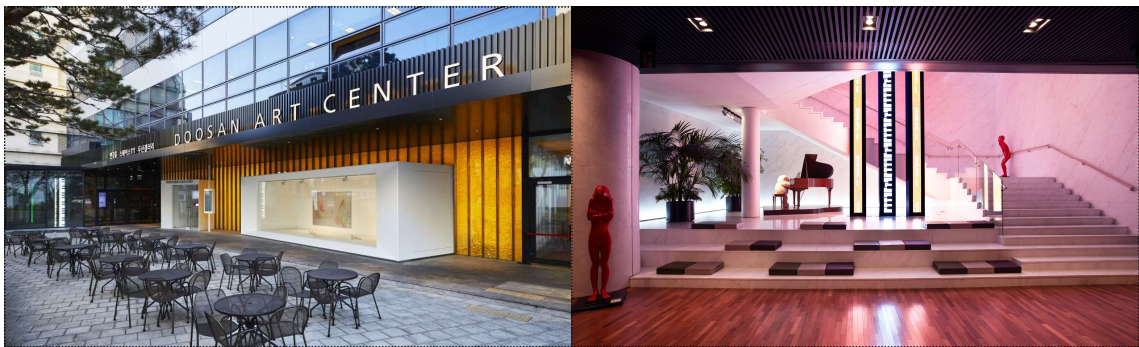
자료: 두산아트센터 재구성(홈페이지 및 뉴스 기반)

* 매년 정해진 주제에 대해 공연·전시·강연·아티스트 토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 전개

3)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 (아티스트 레지던시) ‘두산레지던시 뉴욕’ 젊은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 최초 뉴욕주 정부와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받고 설립
- '09년부터 '22년까지 64명의 입주작가에게 6개월간 두산갤러리 서울·뉴욕에서 개인전, 입주 기간 중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및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지원
- (관객 친화형 극장) 극장 입구 공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문화공간 조성, 로비를 활용한 전시를 통해 공연 관람 목적 이외의 접근성 향상

[그림 3-3] 두산아트센터 입구 및 스페이스111 로비



- (공연단체와 극장 협력) 공연예술 분야 창작자 양성을 위한 ‘공동기획’ 작품 공모
- ‘공동기획’ 작품 공모를 통해 장르제한 없이 '07년부터 사회적 약자를 다룬 50여 편의 작품을 선보임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공연장 및 부대장비 무료 사용 및 공연 진행 시 필요한 극장 운영 및 제작비 지원
- (공연장 접근성 환경) 휠체어 이용 관객 접근성 영상 제작을 통해 위치·교통·공연 관련 안내 내용 제공
- 배리어프리 관람 지원을 위해 접근성 매니저를 통한 음성 및 문자 예매 등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공연장 안전 대비 방법과 작품 소개 등을 포함한 음성 혹은 텍스트 파일 제공

2. 국외 사례

가. (미국) 링컨센터

1) 개요

- **(위치 및 지리적 특성)**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12개의 상주단체가 공연하는 26개의 공연장이 광장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예술과 교육에 있어 미국 내 선도적인 위치 확보
- **(설립배경 및 목적)** 1950년대 도시재생 프로젝트(Lincoln Square Renewal Project) 일환으로 재즈와 예술을 번성시킨 최초의 현대 공연예술 종합 센터로서 역할
- **(주요 시설 및 규모)**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상주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3,800석), 뉴욕 필하모닉의 홈 콘서트홀인 데이비드 게펜 홀(2,738석)과 시티발레 전용극장인 데이비드 코흐 극장(2,586석) 등 포함 총 22개의 실내외 공연시설을 갖춘
- (협력기관) 링컨센터를 포함한 12개의 예술기관이 뉴욕시 맨하탄에 캠퍼스를 형성, 아트 콤플렉스(Art Complex)로 자리 잡음

[표 3-15] 링컨센터 상주 예술기관

구분	상주 예술기관
1	채임버 뮤직 소사이어티(The Chamber Music Society of Lincoln Center)
2	필름 소사이어티(The Film Society of Lincoln Center)
3	재즈 앳 링컨센터(Jazz at Lincoln Center)
4	줄리어드 음악학교(Julliard School)
5	링컨센터 시어터(Lincoln Center Theater)
6	메트로폴리탄 오페라(Metropolitan Opera)
7	뉴욕시 발레단(New York City Ballet)
8	뉴욕시 오페라단(New York City Opera)
9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New York Philharmonic)
10	뉴욕 공연예술 전문 공립 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Performing Arts)
11	아메리칸 발레 스쿨(The School of American Ballet)
12	링컨 센터(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c., LCPA)

- **(교육 프로그램)** 전문 예술 교육기관의 표본으로 뉴욕시 학교 교사와 예술가 교사와의 연계를 통해 예술 교육가 양성 및 대학(원)생 인턴 지원
- **(연례 축제)** 매년 뉴욕 영화제와 5개의 축제(1000명 이상의 예술인 참여 및 300개의 무료 이벤트 기획) 진행 특히 야외공연의 경우 센터 앞 광장을 무대로 활용
- 총 22개의 공연장 및 순회공연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년 1,000여 개의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2)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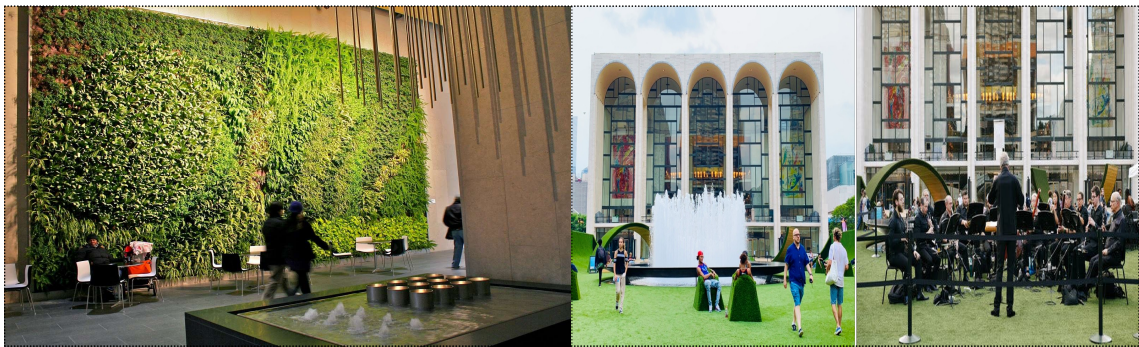
■ (공공성 회복)

- 센터 앞 콘크리트 광장을 누구나 이용 가능한 '더 그린(The Green)' 잔디광장으로 새로 단장함으로써 휴식공간 및 야외공연장으로 재탄생
- 장애인 관객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발레, 재즈, 특별 콘서트 등) 무료 제공

■ (지속가능성 추구)

- (환경친화적 지속가능성) 실내 수직 정원 설치 및 인조 잔디를 사용한 잔디광장 조성
- (창작 활동의 지속가능성) 매년 한 명의 신진작가에게 창작 활동 프로그램
- (멘토링&공간) 지원 및 뉴욕 영화제에서 영상을 선보일 기회 제공

[그림 3-4] 링컨센터 수직 정원 및 더 그린 광장



나. (영국) 로열 국립극장

1) 개요

- (위치 및 지리적 특성) 템즈강변에 조성된 거대한 문화지구(사우스뱅크센터)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자연경관과 예술공간의 조화를 이룬 런던의 문화적 중심지 상징
- (설립배경 및 목적) 1848년 런던 출판업자(Effingham Wilson)의 최초 제안으로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적 혜택 제공 및 정기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국립극장의 필요성 제기
- (주요 시설 및 규모) 대극장이자 부채꼴 모양인 올리비에 극장(1,160석), 작은 프로시니어 아치 디자인으로 구성된 중극장 리틀턴 극장(890석)과 도르프만 극장(450석)을 갖춘
- (교육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주로 연극을 매개로 감수성 및 시민의식 고양과 같은 교육적 효과에 집중
- (연례 축제) 매년 청소년 연극 축제(Connections Festival)를 통해 공연진행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영상·조명·음향 등 무대 기술 인력개발

2)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 (공공성 회복)

- 발달장애 친화 공연(Relaxed Environment Performances) 및 촉각 투어 진행 등을 통해 모두를 위한 관람 환경 조성
- 스마트 캡션 안경을 제공함으로써 청각 장애인 및 난청 청중이 라이브 공연을 즐길 기회 마련

■ (지속가능성 추구)

- (환경친화적 지속가능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사용 및 탄소 발자국 감축을 위해 60% 이상 자국 음식 재료 사용
-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 스토리텔링의 영역 확장을 목표로 가상 현실(VR), 증강 현실(AR) 등 기술 접목을 통한 극의 다변화 추진

[그림 3-5] 템즈강변 문화지구 및 청소년 연극 축제



다.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1) 개요

- (위치 및 지리적 특성) 호주 랜드마크 중 하나인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배경으로 위치하여 공연 관람 목적이 아닌 예술 저관여층의 접근성 확대
- (설립배경 및 목적) 호주 뉴사우스웨일리 주정부의 1950년대 시드니의 식민지 이미지를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이미지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주요 시설 및 규모) 조안 서덜랜드 극장(1,507석), 콘서트 홀(2,679석), 드라마 극장(544석) 등 플레이하우스, Forecourt 야외 공연자, 웃곤룸(210석) 및 소규모 다목적 공간을 갖춘
- (교육 프로그램) 예술교육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과 예술을 접목한 ‘디지털 창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예술경험 확장
- (연례 축제) 매년 청소년 연극 축제(Connections Festival)를 통해 공연진행 및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영상·조명·음향 등 무대 기술 인력개발

2)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추진현황

■ (지속가능성 추구)

- (환경친화적 지속가능성) 에너지 절약형 조명시스템 적용을 통해 공연장의 전력 소비 75% 감소
- (창작 활동의 지속가능성) 호주 독립 예술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Unwrapped) 제공 및 2년에 한 번씩 공연 개최

[그림 3-6] 비비드 시드니 축제, Antidote 강연 한 장면



마. 기타 사례

■ (일본) 도쿄예술극장

- (공간 특성) 도쿄 예술제가 개최되는 동안 예술극장 주위 광장 곳곳에서 공연 진행 및 사전에 제공된 이어폰을 통해 작품 관람이 가능한 환경 조성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열린 문화 예술공간 제공

■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 (영국) 드루리 레인 왕립 극장

- (공간 특성) 극장의 역사적 상징성과 특성은 보존하되 관람객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들도 이용 가능한 개방 공간(음식점, 카페 등) 마련

■ (호주) 멜버른 박물관

- (예술의 가치 확산) 자폐성 장애 친화적 프로그램(박물관 내 감각지도 제공) 및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박물관 투어 매뉴얼 보급

제3절 미래지향적 극장 운영 키워드별 현황분석

1.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in-Residence), 아티스트 레지던시(창작공간)

가. 경기창작센터

- (레지던시 개요) 해마다 약 30-50명 규모로 창작레지던시 입주작가 모집. 한국작가(1~2년) 해외작가(2개월)의 입주기간. 매년 10-11월에 공개모집 접수, 12-1월에 심사. 선정된 입주작가는 매년 3월부터 입주하여 창작활동 개시
- 창작활성화 프로그램(멘토링&워크숍): 발전과 예술적 지평확장을 위해 크고작은 행사 개최. 입주작가 멘토링은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과 입주작가를 연결, 작업 발전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획됨. 초청멘토는 장르 비평가와 이론가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가의 작품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초청
- 오픈 스튜디오: 전체 입주작가들이 한 해 동안 창작한 과정과 결과를 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에서 일반에 공개하는 축제로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 센터의 모든 공간이 열린 토론과 발표의 장이 되는 기간, 참여작가들은 예술과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 행사, 공연을 기획, 관람객들은 작가의 예술체험 프로그램도 경험 가능
- 전시 및 공연발표: 경기창작 센터에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실험전시실, 공연장이 있으며 프리뷰전과 기획전을 비롯한 입주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과정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연중 수시로 제공
- (국제교류) 짧은 기간의 방문과 차별되는 보다 폭넓은 문화적 교감과 예술적 아이디어의 교환을 위해 개관 이후 레즈아티스 국제 컨퍼런스 유치, 르빠비용(프랑스)과의 기획교류전 <우리 시대의 다문화>, 네덜란드(BKVB),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아프리카 센터와의 작가교류 및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확장, 향후 일본(AIAV), 오스트리아(Krems), 대만(Pier-2, 타이베이국립예술종합대학), 인도네시아(Arcolabs), 싱가포르(Grey Projects)와의 지속적인 작가교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 교감과 아이디어 확장 노력
- (주요 특징) '2022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비 지원 사업' 예산 60억을 확보하여 지원 분야와 대상 확대 및 노후한 시설 정비하여 2024년 재개관(복합문화공간 '경기창작캠퍼스'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가 레지던시 운영

나.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고양 레지던시, 창동 레지던시)

■ (레지던시 개요) 고양 레지던시와 창동 레지던시 2개소 운영

[표 3-16]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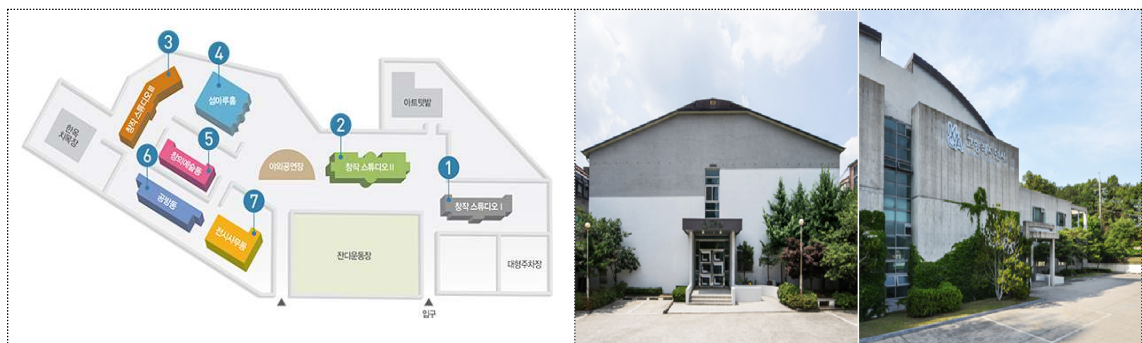
구분	고양레지던시	창동레지던시
모집인원	14명 내외	3명 내외
입주기간	약 12개월	약 9개월
모집분야	회화, 조각, 사진, 설치, 뉴미디어 등 현대미술 전 분야	시각 예술 및 문학, 음악, 영화, 비평 등 문화예술계 전 분야
신청자격	집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고양창동레지던시 입주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술 작가	집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의 고양창동레지던시 입주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술 작가
비고	고양, 창동레지던시 중복 지원 불가	

■ (레지던시 프로그램) 레지던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전시 및 오픈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연례행사로 입주기간 동안 작가들의 작업성과를 미술계 및 일반 관람객 등에 공개
- 국제 교환 입주프로그램: 해외 우수 문화예술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작가 상호 교환 입주 기회 제공
- (아트토크) 입주작가 및 연구자와 외부 전문가 간의 교류를 위한 자리로 작품 소개 및 네트워크 확장의 장을 마련
- 기술지원특강: 작업 활동에 필요한 실용적 기술 관련 특강 및 워크숍을 기획 및 지원
- 입주작가 협업프로젝트: 입주작가 간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증진시키고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입주작가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창작 영역의 실현으로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
- (출판) 전시 및 오픈스튜디오 홍보물, 운영결과집 등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엮어 예술가들의 성과를 홍보

■ (주요 특징) 예술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

[그림 3-7] 경기창작센터 및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 (레지던시 개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을 위한 레지던시
- 광주광역시 근대역사문화마을에 위치,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1904년 서양 선교사들이 조성한 지역의 언더우드 사택을 창작공간으로 사용. 청년작가 육성, 국내외 작가교류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를 목표로 매년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 중.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양림산 바로 아래 위치한 덕분에 공기가 맑고 매우 조용하며 근처에 근대역사문화 유산이 산재해 있어 주변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2021년 광주비엔날레의 메인전시장 중 한 곳. 반경 1km 이내에 시립도서관이 위치해있고 3개의 종합병원, 약국,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음
- 시각예술, 영화(영상), 음악, 문학 등 국내외 작가 모집
- (레지던시 프로그램) 전시, 발표, 교류 등 공동체 예술창작 관련 프로그램 운영
- Exhibition(전시)
- Art Fair
- Open Studio: 정기적인 작업실 공개로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
- Culture and Art education: 참여 작가들의 재능 기부 / 공동체 예술창작의 기본 바탕
- Talking Exhibition: 적절한 주제 선정 / 작가들의 기획 발표
- (주요 특징) 시각 예술, 공연 예술, 영화, 문학, 패션 등 다양한 분야 모집, 2015년에는 예술위에서 선정하는 '지역예술특성화지원사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

2. 관객 친화형·참여형 극장 환경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sia Culture Center: ACC)

1) 문화정보원 북라운지 및 라이브러리 파크

- 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도서, 잡지, 신문 등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휴식공간
-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사업 시행
- 아시아문화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 '자료 정리 및 보존', '수집', '서비스' 시행과 동시에 연구·수집·기획 콘텐츠 등을 진행하며 프로젝트의 한 파트로 라이브러리 파크와 북라운지를 운영 중에 있음
- 매년 ACC예술극장과 어린이 극장에서 창제작되는 공연을 선별하여 희곡집 출간, 공연이 끝난 작품을 미처 관람하지 못한 관객, 다시 보고싶은 관객들이 희곡을 통해 연극을 다시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희곡집(종이책)은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출판

[그림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문화정보원 북라운지 및 라이브러리 파크



출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네이버 블로그

2) 하늘마당

-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문화창조원 건물의 옥상 정원
- 정원은 잔디 바닥으로 구성, 중간중간 조형물과 편의 시설물 설치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인 경사를 조절한 보도와 산책로가 있으며, 끝쪽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음

[그림 3-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나. 신한플레이 뮤지컬 라운지

- 40㎡의 휴게공간을 공연을 대기하는 관람객들의 예술적 경험을 돕는 장소로 오픈한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
- 신한카드와 블르스퀘어를 상징하는 블루 컬러, 시멘트 우드 패널인 바이록(Viroc)소재, 벨벳 커튼과 카펫으로 디자인
- 본 공연 전에 연주되는 도입곡 '서곡'의 콘셉트에 맞게 라운지 중앙의 '슈퍼 미러 오브제'에 비치는 모습들을 보고 무대 위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도 체험 가능
- 독일의 권위 있는 디자인 분야 시상식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 주관)'에서 본상을 수상하여 디자인의 경쟁력을 인정받음

다. LG아트센터

- LG아트센터 서울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교류를 통한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공연장으로, 200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LG아트센터’로 운영됨. 최근 2022년 10월 서울 강서구로 이전하여 ‘LG아트센터 서울’이라는 새 이름으로 개관
- 새로운 건물은 1995년 건축의 노벨상이라 여겨지는 프리츠커상 등을 수상하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안도 다다오(AndTadao)’가 디자인하였으며 ‘각각의 공간이 개성을 가지고 상호교차하고 ‘신선한 자극’, ‘발걸음을 하는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공간’을 기대하며 디자인함

1) 건축 콘셉트와 LG오디오 투어

- LG오디오 투어는 건물의 8개의 스팟에서 누구나 셀프로 감상할 수 있는 오디오 투어 프로그램으로 QR코드 스캔을 통해 오디오로 스팟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 오디오 투어를 통해 공간의 존재와 의미를 쉽게 접하고 극장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심리적 거리감을 줄임
 - (게이트 아크) 각 공연장의 관객을 초대하는 상징적인 문(Gate)
 - (튜브) 지상의 관객들을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며, 건물이 예술, 과학, 자연 융합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전달
 - (스텝 아트리움) 마곡나루역에서부터 LG아트센터 서울 지상 3층까지 연결하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로 구성, 공간을 연결
 - (루프탑) 건물 3층은 개방된 루프탑 공간으로, 벤치와 의자 설치, 화단 및 조경, 산책로가 조성됨
- 스텝 아트리움은 실제 물리적·심리적 연결 공간이며, 충분한 빛이 들어와서 그곳을 지나온 사람들은 차가운 느낌은 받지 않았음
- 또한, 스텝 아트리움에는 천장의 설치작품 메도우(Drift 作)라는 작품은 센서를 통해 꽃이 피고 지는 움직임이 있는 설치예술로 공간에 들어온 관람객이 환영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튜브 공간은 우주선을 타고 있는 느낌, 자연을 거니는 느낌, 다른 세상으로 넘어온 듯한 느낌 등 공간을 찾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며 특이한 설계로 ‘포토 스팟’으로 활용
- 루프탑은 탁 트이고 아늑한 공간 연출로 마곡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의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밤에는 주변과 루프탑 공간의 조명을 통해 야경을 감상 가능

[그림 3-10] LG아트센터 서울 시설



2) 아트라운지, 클래스룸

- LG아트센터 서울의 2층에 위치하였으며 건물의 건축과정과 안도 다다오의 설계도, 초기 계획안, 건축모형, 관련 영상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관
- LG아트센터 서울의 3층에 위치한 공간으로 3개의 공간이 있으며 워크숍 및 문화이벤트, 서울시립 교향악단, 국립현대무용단, 정림건축문화재단 등의 파트너가 참여하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진행

[그림 3-11]신한플레이 뮤지컬 라운지 및 LG아트센터 서울



3. 공연장 접근성(Access 또는 Universal design) 환경

가. 국내 배리어프리의 발단과 전개

- 장애 예술단체에서 시도, 공공 영역에서의 논의가 시작
- <7번국도>를 시작으로<명왕성에서>,<목적지수>,<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 등에서 문자통역, 수어통역, 음성해설 등을 제공
- 리플릿과 수어버전 공연소개 영상 제작 등으로 이어지며 실황생중계로 문자 및 수어 통역, 음성해설 제공,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도 5개의 공연 상영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에서도 2019이음 해외공연 쇼케이스 초청작에 자막과 수어 통역이 이루어짐

나. 다양한 단체의 다양한 시도

- 2021 무장애 예술주간 프리뷰에서는 댄스필름 제작 과정에서 휠체어 무용가들이 참여, 기존 안무를 재구성하고 공동창작하여 안무가가 음성 해설을 직접 쓰고 낭독하는 시도

-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연극원은 한일 공동연출 프로젝트〈어느 마을〉의 온라인 낭독공연을 진행, 전 회차 수어통역, 자막해설, 음성지원을 제공
- 배리어프리 매니저와 모니터링단이 스태프로 참여하여 장애 예술인과 작업 경험이 있는 배리어프리 매니저를 두어 창작자의 의도를 파악,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되거나 장벽이 되는 지점을 축소/제거하여 공연을 함께 제작
- 국립극단은 장문원과 협력하여 화면해설 버전,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버전을 별도 제작, 온라인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 국립극단 자체도 장애예술을 주제로 〈창작공감: 연출〉이 이루어짐
- 서울시극단은 〈천만 개의 도시〉를 통해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한 배리어프리 공연 진행, 휠체어 장애인 배우를 위해 연습실에 경사로를 설치, 문턱을 바꿨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를 배치
- 장애인 관객만이 아닌 참여하는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고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에게 배리어프리를 인식의 계기
- 연극 〈7분〉은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해 11명의 배우와 11명의 수어통역사를 매칭하여 배우와 수어통역사가 하나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시범적인 방식으로, 역할별로 수어통역사가 무대에 서서 극의 중요한 ‘대사’와 ‘논쟁’을 이끌어감

다. 해외의 배리어프리

- (버즈 오브 파라다이스 Birds of Paradise) 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를 동등하게 고용
- 스코틀랜드 국립극단과 협력한 뮤지컬〈나의 왼발 MY LEFT/RIGHT FOOT〉은 수어통역사이자 배우가 직접 출연, 수어통역, 문자통역 제공 및 일부 회차에서는 릴렉스드 퍼포먼스도 제공
- 수어통역 트레이너 영상과 음성 공연 전단, 캐릭터 음성 소개, 무대세트 음성소개 등 장애인 관객이 불편 없이 공연정보를 접하도록 준비
- (영국 그레이아이 극단 Graeae Theatre Company) 장애인이 주도하고 있는 극단으로 프로덕션 단계부터 음성해설, 수어 및 자막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청각장애 배우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다양한 장애 유형의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공연을 진행
- 해외는 (장애)예술단체와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을 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접근성 서비스를 필수로 진행중

라. 국내의 단계와 앞으로의 과제, 전망

- 창작단계부터 배리어프리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
- 배리어프리 버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와 배리어프리 전문인력(단체)과의 협력과 이해를 위한 소통과정을 거쳐야함
- 예산, 저작권 등 배리어프리 공연 제작에 부담을 주는 요소, 제작 이후에도 장애인 관객들의 관람수,

감상평, 배리어프리로서 유효한 작용과 의견 반영과 개선할 부분을 파악, 비장애인으로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는 없었는지, 참여배우나 창작자들의 경험과 느낌에 대한 질문과 피드백 의견교환들이 필요

- 국내에서 필요한 단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가 함께 창작단계에서부터 서로 간의 장벽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과 환경을 찾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단계를 거친다면 이후 다른 창작과정이 나타날 것
- 배리어프리는 단순히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누구나 공연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기본값으로서 존재해야 함. 배리어프리 공연은 장르적 특성, 작품의 특징, 공연제작자와 참여관객, 제작환경 등에 따라 달리 제작되어야하며, 모든 공연, 극장, 플랫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

마. 배리어프리 공연 형식

- 오디오 해설(AD)은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극도로 낮은 사람들에게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음성으로 해설해주는 것, 공연의 경우 전문 음성해설사가 무대 세트와 등장인물의 의상, 배우의 표정, 동선 등 모든 시각적 요소와 함께 극의 전개 등 비시각적 요소까지 설명하는 오디오 디스크립션(Audio Description)을 의미
- 터치투어(Touch Tour)는 주로 음성해설사와 함께 공연 관람 전 무대 세트, 소품, 의상 등을 직접 만져보며 공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
- 문자통역(자막해설)은 폐쇄형(핸드폰이나 단말기를 이용해 개별로 볼 수 있는 고정형 자막 제공형태), 개방형(공연 형태에 따라 스크린 설치, 무대자막 투사 등의 형태)이 있으며 보통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 릴렉스드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
 - 영국 내셔널시어터(National Theatre)에 의하면, ‘릴렉스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란 보통 자폐증 또는 감각적 의사소통 장애를 가진 관객을 대상으로 극장에 갈 때 더 편안한 환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게 각색된 공연
 - (모두에게 편안한 극장 환경) 접근이 쉬운 위치의 공연장, 여유로운 주차장, 충분한 의자가 있는 대기실, 외부로 쉽게 나갈 수 있는 통로,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앉을 수 있는 좌석, 부드러운 카펫 등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적 환경조성
 - 또한, 장애로 인해 공연 관람을 망설이는 관객들을 위해 예술가와의 사전 협의 및 관객 대상 사전 안내를 통해 공연 도중 불가피한 압퇴장 및 소리, 객석 간 이동 등을 허용하는 포용적 관람 문화 등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

바. <소리극 옥이>

- 장애예술단체 극단 ‘다빈나오’의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작품은 시각장애인 옥이의 삶과 어려운 환경에서 만난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은아의 우정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우회적으로 일깨워주며 소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실제 배역은 시각장애인 배우와

저신장 배우가 연기

- 공연은 음성 해설과 수어 통역사가 참여한 수어 통역이 제공되며 무료로 제공되는 안내지는 점자 서비스가 제공
- 재상연됐던 국립극장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장애인용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보조 휠체어 서비스 등도 마련

[그림 3-12]〈소리극 옥이〉 공연 현장



4. 친환경 공연장 조성 사례

가. The National Theatre

- 영국 국립극장(The National Theatre)은 홈페이지를 통해 탄소중립 극장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환경(Environmental Sustainability)’에 대한 홍보와 노력, 실천을 알림
- (지속가능성) 관행 개선, 스토리텔링을 통한 대화형성 노력, 기후 위기에 맞서는 산업활동 활성화 노력을 약속, 등급표시 에너지 인증서 보유, 재생가능한 전기 구입, 장비와 열, 발전소를 결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데 노력, 세트와 의상재료 재사용 및 활용, 비생산 폐기물의 약 3분의 2를 재활용하여 목표치 75%에 근접함을 알림
- (지속가능한 생산) 지속가능한 극장을 위한 극장 그린북 표준작업 시작, 재활용과 재사용 및 배달을 포함한 새로운 품목이나 재료,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소 노력
- (에너지) 풍력과 태양열 생산을 중심으로 열과 발전소를 결합하여 에너지 사용,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LED조명 시스템 개선
- (냉난방) 지상 열원 히트 펌프로 난방 및 냉방이 되는 Max Rayne Centre 건물 건립, 주변의 지하 온도를 사용하여 120m 깊이의 보어홀(boreholes) 12개의 파이프 네트워크를 통해 겨울에는 지상에서 열을 전달, 여름에는 지상으로 열을 방출
- (물) 음용하지 않는 물을 지하수원인 백악 대수층(London chalk aquifer)에서 물을 끌어와 사용하여 물 공급에 대한 의존도 저감, 극장 여러 곳에 물을 공급하는 빗물 수집 탱크 존재

- (쓰레기) 상업폐기물의 67%를 재활용, 현재 75%를 목표로 함. 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줄이고 커피 찌꺼기를 모아 친환경 난방용 연탄으로 바꾼 활동 공개
- (생물다양성) 벌집을 두어 꿀을 생산하고 판매, 꽃과 화초를 심어 생물 다양성 추구
- (업계와의 협력) Julie's Bicycle(문화 및 환경 파트너와 협력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습 프로그램, 도구 및 리소스, 리더십 교육기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과 함께 환경의 관심이 높은 단체와 협력

나. Denver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 Denver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의 음악기술자 Meagan Holdeman은 센터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선도적인 지역적 움직임을 보여줌
- 세트의 절반을 재사용된 목재를 이용하여 만들, 극장단지를 개조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보존
- 극장의 탄소중립 문제에 공감하여 실용적 단계 조연과 방법을 제시
- (건물의 온도 조절) 건물 가열과 냉각이 가장 큰 탄소배출의 원인, 외부와의 온도 차이 줄이기
- (퇴비화 가능한 컵 사용 및 퇴비화 프로그램 시행) 퇴비화 프로그램이 없다면 되려 더 큰 환경오염에 영향
- (배터리 충전) 충전제 마이크 팩과 헤드셋 사용
- (디지털화) 대본과 같은 작업 시 사용되는 종이 대신 아이패드나 태블릿 사용, QR티켓 시스템 구축 등
-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 무대 뒤편 및 건물에서의 가전제품 사용 시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 노력
- 상위차원의 단체와의 연합, 환경 관련 '그린 캡틴' 분위기 조성 및 육성 노력

5. 공연예술과 기술의 공존(기술융복합, 장르융복합)

가. 국내의 기술융복합 사례

- 가상(VR)·증강(AR) 현실을 이용한 공연
- (이정연 댄스프로젝트'루시드 드림 II') 증강현실을 통해 가상과 실체가 어우러진 새로운 차원의 공간과 무용수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무대를 구성, 예술과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이자 한계를 넘어선 풍부한 표현 방식과 관객에게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선사, 아트앤티크(ART&TECH) 창작지원 공연
- (가천대학교 '오! 햄릿') 모션캡처와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시킨 온라인 연극으로 배우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연기하고 버추얼 스튜디오 기법을 통해 하나의 가상부대에서 실시간 합성해 공연을 선보임
- (아르코 온라인극장 '너를 만난다') 이머시브 씨어터를 '아트앤티크'적인 방법으로 재해석, 무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 영상, 레이저, 연기가 동시에 진행, 기술을 이용한 즉각적인 관객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실황 중계 공연

- (해외 초청 공연 '울트라 월드') 독일 신진연출가 '주자네 케네디'의 작품으로 2021년 한국 국립극장에서 초연, 연극의 줄거리에 메타버스를 녹여내고 가상현실(VR)기술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진행된 연극
- 그 외 기술 활용 공연
- (메타버스 뮤지컬) 서울예술단'잃어버린 얼굴1895'은 볼륨메트릭 비디오, 모션캡처 등의 기술을 사용,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에서 진행, 서울시뮤지컬단'작은아씨들'은 무대를 가상공간에 옮겨 이용자들이 무대를 만나보고 실제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
- 단, 메타버스를 온전한 공연이 아닌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계 존재
- (콘서트) 가수를 360도로 촬영하여 '3D홀로그램'을 만들어 공연하는 방식, 크로마키 배경에서 촬영하여 3D배경을 입혀 진행, 융합기술(XR기술: 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과 혼합현실(MR)기술을 사용, SM beyond live, 네이버 NOW K-pop 콘서트 등이 있음

나. 해외의 기술융복합 사례(영국)

- 영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기술시장을 가졌으며, 유럽안에서 가상(VR), 증강(AR), 혼합(MR), 확장(XR)현실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임.* Immersive Economy in the UK Report, 2019
- 국립극장을 포함하여 활용방식을 실험하고 정부차원에서 미래관객(Audience of the Future)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구와 지원, 가상현실을 비롯한 기술이 공연 시장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
- 예술산업과 기술산업이 만나는 행사 개최(Unity Unicorns)
- (공동 창작 스튜디오(Co-Creation Studio))를 통해 방문객을 포함하여 누구나 창의적 기술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도움
- (이머시브 퍼포먼스 스튜디오(Immersive Performance studio), 이머시브 코랩 스페이스(Immersive CoLab Studio))에서는 증강현실(AR)을 비롯한 신기술을 이용한 극과 기술을 보여주며 경험, 통합하는 새로운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몰입형 예술을 위한 기술 탐색하고 참여했던 제작사나 민간기업을 소개하여 협업의 접근성을 높임
- 극장과 인텔(Intel),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을 가진 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
- 템페스트(The Tempest), 드림(Dream), 올카인즈오브림보(All kinds of Limbo) 등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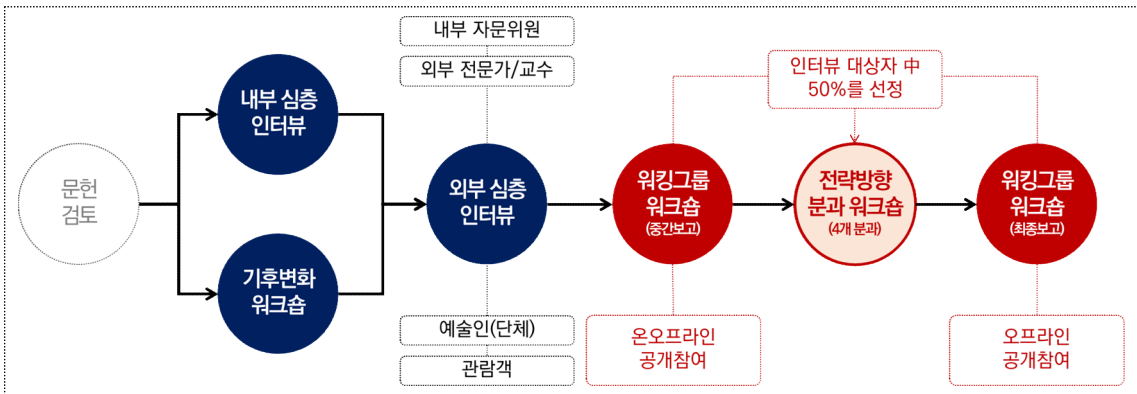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인터뷰 및 의견수렴

제1절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내·외부 인터뷰

1. 의견수렴 개요

- 초기 문헌분석과 내외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극장에 대한 의견수렴 워크숍 추진
- 발전전략을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워킹그룹 워크숍 진행
- 발전전략 방향별 분과 워크숍 운영을 통해 현장 의견 반영

[그림 4-1] 의견수렴 운영 프로세스



2. 내부 구성원 인터뷰

가. 인터뷰 개요

인터뷰 기간 : 2022년 10월 10일~21일
 인터뷰 대상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직원 16명
 인터뷰 방법 : 1:1 심층 인터뷰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발전방향 도출을 위해 예술극장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
- 인터뷰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자문회의 내용, 종합운영실적평가, 좌담회, 포럼 등에서 발전방향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유형 분류 진행

[표 4-1] 인터뷰 내용 구성(내부)

문제의식	유형	구분	질문(안)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가?	내부요인	정체성(목적)	정체성(극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가지고 있는 극장으로서의 특징
			운영 목적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목적
			공공성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추구해야하는 공공극장으로서의 방향성
	외부요인	차별성	민간극장(대학로 내)	대학로 내의 타 극장과의 차별성
			민간극장(대학로 외)	대학로 외의 유사규모 타 극장과의 차별성
			공공극장	타 공공극장과의 차별성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내부요인	방식	대관공연	대관공연에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주요하게 여기는 부분
			기획공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기획공연 필요성 및 내부 역량
	외부요인	대상	창작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창작자에게 제공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관객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관객에게 제공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주체/대상은 누구인가?	내부요인	예술행정(극장)	편의성	공연(극장)을 위한 예술행정 방향성
			가치	공연, 창작자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외부요인	창작자	공공성	창작자가 공공극장에서 발현할 수 있는 공공성은 무엇인가
			관객	관객
		일반국민		공연을 관람하지 않는 일반국민(시민)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관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협업		과정
			결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창작자, 관객과 협업할 수 있는 결과물은 무엇인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변화와	내부요인	물리적 공간	극장 내부 시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발전을 위해 극장 내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문제의식	유형	구분		질문(안)
발전을 위한 공간은 어디인가?			극장 외부 시설	극장 외부 시설(및 아르코 시설(예술가의 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타 시설과의 연계	대학로 또는 지방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외부요인	개념적 공간	대학로	대학로(연극)에서의 랜드마크로서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이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온라인	O2실현을 위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변화와 발전은 어떠한 시기에 이루어져야하는가?	내부요인	내부역량	조직구성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변화를 위한 적절한 조직 구성인가?
			현실성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변화를 위한 제약사항은 무엇인가? (한계점은 무엇인가?)
	외부요인	네트워크	창작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창작자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관객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관객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일반국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일반국민(공연예술 저 관여층) 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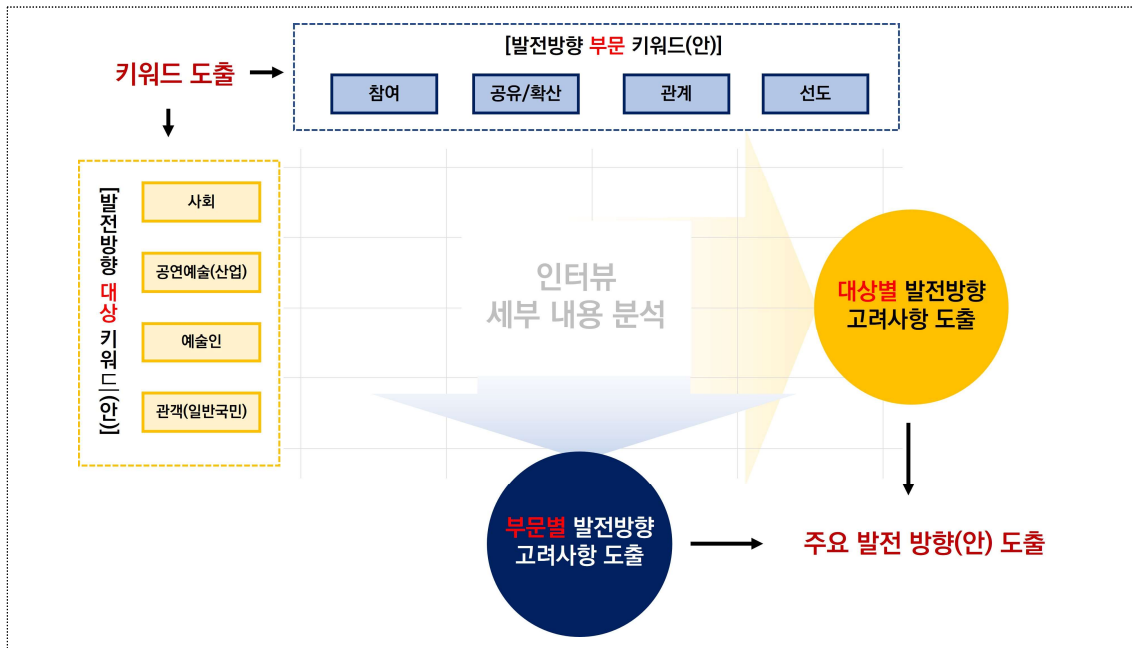
■ 분석 내용을 토대로 문제의식 유형 중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최종 인터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 과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공공극장으로서 역할
- ▶ 타 공공민간극장과의 차별적 역할
- ▶ 현재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및 공연예술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변화, 이슈, 애로사항
- ▶ 미래형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추구해야 할 발전방향 및 개선사항
- ▶ 공연예술의 다양한 주체 및 주체 간 소통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방향
-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의견
- ▶ 전문 분야에 따른 기타

나. 인터뷰 결과 분석 개요

- 내부 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요 부문 및 대상 키워드를 도출하고, 발전방향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을 구조화하여, 인터뷰 주요내용을 정리
- 발전방안의 '대상' 키워드는 사회, 공연예술(산업), 예술인, 관객(일반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부문' 키워드는 참여, 공유(확산), 관계, 선도적 역할로 도출

[그림 4-2] 내부직원 의견수렴 내 발전방향 도출 방향



다. 인터뷰 주요 내용

- 발전방안 대상 - 사회
 - (공유/확산) 기후위기, 젠더이슈 등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대응과 공연예술계에 영향력과 이슈를 전달할 수 있는 기관 정체성 강화
 - (공유/확산) 홍보물, 공연 도구 처리 및 재활용 등 친환경 요소 강화
 - (선도) 기후변화(탄소중립)에 대응하는 미래형 공공극장으로서의 하드웨어 및 관리운영 측면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형태의 무대(아외무대,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무대 등) 확대
 - (선도) 관객/공연 진행 등과 관련해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매뉴얼 제작과 같은 시스템화 선도
- 발전방안 대상 - 공연예술(산업)
 - (공유/확산) 예술극장이 보유한 인적/물적 노하우에 대한 공유
 - 저탄소, 재활용과 관련된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 예술극장에서 공연하는 단체의 노하우를 수집/취합하고 데이터화 하여 공유할 수 있는 역할 강화
- (관계) 예술가, 관객, 공연장 등 공연예술 이해관계자 간 존중문화 형성
- (관계) 대학로 보존을 위한 무대기술 협회 등 더 많은 단체 간 협업 및 인력 확대를 위한 노력
- (선도) 공연예술계의 4차산업 연계 지원 선도
 - 4차산업 및 융복합 기술을 통한 다양한 참여형 공연기획 강화
 - 공공기관으로서 예술위 내 관련 부서 간 협업 강화 가능
- (선도) 예술극장 내 4개의 극장에 대한 차별화된 컨셉 정립
 - 4계절/입시, 취업 등 사회적 관심 시기(시즌)에 대한 적극 활용
 - 결과적으로 양질의 공연을 만들고 올리는 극장보다 과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극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 발전방안 대상 - 예술인

- (참여) 대관 심의를 통한 공연 참여가 아닌 신생 연출가와 단체를 위한 기회 제공
 - 극장 외부의 공간 활용(마로니에 공원)을 활용한 무대 기회 제공(팝업 시어터)
- (공유/확산) 창작활동의 한계에 대한 집단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역할 강화
 - SNS 등을 활용한 의견 공유 및 이슈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
 - 포럼, 네트워크 등 극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강화 및 공간 제공
 - 예술가가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지원책 강화
 - 단기적 성과창출이 아닌 중장기적 지원, 예술가의 소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
- (선도) 더 다양한 공연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소극장 공연 중 호응이 좋은 공연에 대해 대극장 공연 제공 등
 - 신진에서 중견으로 넘어가는 '데스벨리' 지점에서 지원
- (선도) 공연 단체들에 대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발전방안 대상 - 관객

- (참여) 극장이 공연 외 자유로운 이용과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
 - 공연과 연계된 공연 전후 별도의 프로그램 마련
 - 공연 외 가볍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 교육 프로그램 및 차별화된 워크숍 등을 별도로 운영
- (참여) 관객안내원 등 공연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공유/확산) 관객의 예술극장(공연예술) 접근성 향상
 - 리허설이나 연습장면을 스케치 등의 짧은 숏폼으로 제작 및 홍보
 - 관객의니즈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관계) 관객과의 접점 확대
 - 예술극장과 일선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관객안내원 등)의 활용
 - 새로운 관객 유입을 위해 충성고객을 브랜드화한 홍보
- (선도) 다양한 관객층의 확보
 -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 개발
 - 대중성과 예술성을 가질 수 있고 순수예술을 관객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방안
 - 공연예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로로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중심적 역할

3. 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

가. 인터뷰 개요

인터뷰 기간 : 2022년 11월 7일~18일
인터뷰 대상 : 외부전문가 13명
인터뷰 방법 : 1:1 심층 인터뷰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
- 인터뷰 대상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자문위원을 포함해 연극무용공연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를 선정
- 인터뷰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내부 구성원 인터뷰 분석 결과 도출된 주요 발전방안과 환경분석 및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내부 자료를 분석
-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최종 인터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가지고 있는 극장으로서의 차별적 특징
시설/인프라 측면, 예술가/관객 대상 인식적 측면, 지리적 측면 등
-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공공극장으로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구해야 할 공공성
(공연예술)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수행해야 할 공적 역할
(예술가) 예술가의 안정적 창작 및 성장 측면에서 수행해야 할 공적 역할
(관객/일반국민) 공연예술 관련 관객과의 접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공적 역할
(사회) 공연예술분야 공공시설로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해야 할 공적 역할
- ▶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및 확보해야 할 역량 및 강점
-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도해야 할 미래형 극장의 모습
(기후변화) 기후변화 인식 확산 및 공연예술계 실천을 선도하는 극장
(코로나) '멈추지 않는 공연예술'을 위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극장
(융복합) 장르 간,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도하는 극장
(민주주의/인권) 공연예술 제작 및 관람에 제약이 없는 환경을 선도하는 극장
(참여) 다양한 공연예술 및 공연예술을 통한 사회적 참여 기회를 선도하는 극장
- ▶ 미래형 극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실천해야 할 과제
- ▶ 현장접점(극장)으로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계소통 방안
대관/관람을 목적으로 한 극장무대 접점 외 보다 다양한 관계 접점 마련
(외부공간 활용, 보유역량 활용, 현재 수행업무와 연계, 새로운 사업추진 등)

나. 인터뷰 결과 분석 개요

-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분석에서 도출되었던 발전방향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터뷰 결과 정리
- 외부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 △활용자원의 확장적 측면 △발전적 관계 측면 △역할의 확대 측면이 부각

다. 인터뷰 주요 내용

■ 활용자원의 확장

- ▶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기술적, 가치적 확장의 필요성 강조
- ▶ 공간의 활용이 예술인 뿐만 아니라 예술인, 관객, 일반국민의 다양한 접점으로서 활용되고, 각 주체별 또는 각 주체간 사회적 가치를 논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 강화 강조

- 4개의 극장과 연습실, 옥상 등 공간 활용 접근성 확대 필요(예술단체/일반시민)
-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장점이지만 배리어프리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음
- 앞마당, 스튜디오 다락 등에서 실험적인 것들 시도 → 극장의 미션이나 취지에 맞게 활용 필요
- 아르고예술극장 로비가 연극인들이 소식을 전하고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광장으로 활용
- 카페, 책방, 연극센터 세미나 룸 등을 통해 연극인, 연극 애호가, 아마추어 동호회 등 사용하는 공간 필요
- ‘스튜디오 다락’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 또는 공연과 연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연 예술계를 활성화 해야함
- 예술위가 가지고 있는 공간(미술관, 극장, 스튜디오, 등)을 베이스로 한 지원 필요 → 공간을 베이스로 한 지원전략, 지원 아이디어 발굴 필요. 이것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가야함
- 예술위의 공간력을 활용해 씨어터카페를 통한 순수예술에 관한 영상 송출 등 접근성과 익숙해지는 기회 제공
- 현재 아르고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관람객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활용 할 수 있도록 개방 필요 (플랫폼화)
- 아르고 소유 매체 활용 필요 → 유튜브, 저널, 공간 등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관객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쟁점(기후극장 등) 가지고 가야 할 필요성 강조
- 공연-시민간 접점 확대는 티켓파워 등 제한되어 있음 → 관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징검다리 (카페를 통해 극장 방문, SNS를 통한 공연 접근, 대화 프로그램 및 전시 등)를 통한 접근성 확대 중요
- 관객과의 접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개방성 제안 → 공공극장 자체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필요

■ 발전적 관계

- ▶ 다양한 참여와 체험을 통해 공연예술 저관심층의 흥미 유발 필요
- ▶ 예술가, 관객, 일반국민, 극장 관계자 등 각 주체간의 실질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필요
- ▶ 직접적 이해관계자를 넘어 네트워킹 등 관계 발전을 통해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소통 필요

-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신진 예술가 대상, 특별 기획, 큐레이터, 공동예술가 협업 프로그램 등) → 프로그램 과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 연극에 관심이 없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무용/연극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 유발
- 장르 간 연계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예술가 중심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필요→ 새로운 관객 유입

- 일반시민(관객)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현대무용 ‘노출’ 필요 → 예술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대무용 과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소수의 작가와 연출배우만 보이는 결과 중심적 공연에서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공유하는 극장으로 발전 필요
- 극장이 공연을 올리는 시설 뿐 아니라 소통의 공간으로도 인식할 필요성 제고 → 이를 위해 ‘소통 위원회’와 같은 상시적 플랫폼 마련 필요
- 새로운 관객개발을 통해 더 많은 관객들에게 공연 제공과 동시에 관객-예술가가 서로 자극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담론 필요
- 문화 향유 및 관객을 위한 시스템 부재 →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계기 마련을 위해 유년기에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필요
- 관객 대상 프로그램 발굴 필요 → 특정 시간이나 요일에 비슷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관객들을 무료로 초대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모객 진행 가능
- 예술단체와 관객들이 예술극장에 가면 인권/장애/소수자 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
-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에서 공연을 하지 않는 ‘전체 예술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작품에 대한 기계적 홍보 → 적극적으로 작품을 읽어내 줄 수 있는 예술계 밖에 있는 전문가/비평 그룹/시민그룹 등과의 연결 필요
- 예술단체, 관객 등 네트워킹의 ‘장’필요 →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시대/삶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동시대적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 필요
- 공연장과 예술가와 관객이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 필요

■ 역할의 확대

- ▶ 공연을 올리기 위한 일반적 지원을 넘어 다양한 공공성 실현을 위해 협력적 관계 형성 필요
- ▶ 장르별 특성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공유, 과정에 대한 개방 등을 고려한 적극적 관객개발 필요
- ▶ 예술인, 관객, 일반국민이 극장의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발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

- 모두가 존중받으며 장애인, 인권, 기후위기, 성별, 학력 등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느끼게 하는 극장으로서 역할 필요 → 상주 예술인을 통해 이러한 과정에 더 집중(포럼, 세미나 등은 결과물)
- 적극적인 대관을 통한 능동/적극적 방식의 대관 극장 → 기 공연 작품 중 예술극장의 아젠다 및 방향 성과 관련된 작품을 아르고에서 재공연하는 기획
- 초기 대관사업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주제 등 조율하는 영역 발굴 2~3년 내에 올릴 예술극장을 염두한 무대 기획
- 대부분의 극단이 극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공연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좋은 공연을 많은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 대학로는 공연 예술의 메카이자 공연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공간을 오픈하는 것이 또 다른 ‘공공성’

- 공공극장으로서 온라인 극장 플랫폼 역할 확대 필요 → 민간 작품들을 온라인으로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 기대
- 현대무용 한계 극복 방안 필요(진입장벽 해소) → 학생을 대상으로 리허설 과정 개방을 통해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무용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무용에 대한 통계 자료 수집 필요(무용에 대한 생각/리뷰/만족도 등) → 관객별 만족도가 높았던 작품과 비슷한 작품이 나오면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관객개발 필요
- 관객개발에 의지가 있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예술극장에서의 배리어프리 공연 자체가 모범사례가 되어 민간으로 확산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필요
- 공연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나 관심있는 관객층을 대상으로 이 공연에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으로서 역할 필요
- 국제공연예술제를 통해 해외공연들 다수 유입 → 해외의 좋은 공연과 교류하는 플랫폼 역할 발전 필요

제2절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내·외부 의견수렴

1. 중간보고회 주요 의견

가. 중간보고회 추진 개요

의견수렴 일시 : 2023년 1월 13일
의견수렴 대상 : 외부 전문가 7명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내부 구성원 6명

■ 중간보고회 추진 목적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예술인, 관객 대상 개별 인터뷰 내용에서 도출된 발전방향과 수행과제를 중심으로 정리된 전략 방향 공유
- 도출된 전략 방향에 대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전략방향 보완 및 향후 분과 워크숍에서 진행될 실행과제 구체화

나. 중간보고회 주요 내용

■ (공공성)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차별적인 공공성 규정 필요

- 다양한 공공극장이 '공공성'과 '차별성'에 대한 고민을 지속
 - 각 극장의 개별 이슈(국립극단-리모델링/국립정동극장-운영 변화/창작연극지원센터-개관)에 대응한 역할의 고민
 - 중장기적 운영방안에서의 극장 운영의 차별화는 중요하며 지속되는 이슈
- '공공성'에 대한 정교한 규정 필요
 - 공공성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광범위하며, 공공성의 추구 방향에 따라 서로 상충할 수 있음
 - 극장마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필요
 - 다양한 가치의 표방보다는 유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

■ (보유 자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보유 자원을 고려한 역할 설정 필요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보유한 공간 자원의 활용가능성을 고려
 - 현재 보유 공간 자원에서 속에서 다양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여력 존재
 - 보유한 4개의 극장에 대한 차별적 운영(장르 특화 등)이 이전에도 시도되었으나,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과 실질적 운영의 어려움 도출
- 극장 공간 외에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는 다양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 자원이 충분

- 다양한 것을 시도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는 인지
- **(관객)**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주요 관객층에 대한 특성 고려 필요
- 극장의 차별화를 위해, 극장과 예술가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가 관객에게 이어지는 흐름이 필요
 - 공연예술의 저변 확대의 방향성 설정이 공공극장이 가져야 할 공공성의 주요 방향성 중 하나라고 생각
 - 단순히 다수가 사용하는 것으로 저변이 확대되거나 공공성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깊은 관계를 맺는 관객의 특성을 고려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상연되는 작품과 이를 관람하는 관객층은 일반적인 문화향유 차원보다 심도 있는 수준을 원한다고 생각
- **(운영방안)** 현장과의 신뢰 형성과 관계 형성
- 주요 장르(연극, 무용) 간 관계설정과 축제 등과의 관계설정 등 필요
- 대관 계획의 변화로 극장이 예술가에게 요구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의연하게 이끌어갈 필요 존재
- **기타 의견**
- 지역사회와의 강한 유대나 결속을 통해 극장의 고유 기능(공연) 이외의 다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함
-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조직적 측면의 변화 필요
 - 인력, 예산적 측면에서의 부족
 -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이슈 존재
- 일정 부분의 기획 역할이 필요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건강한 극장 운영을 위해 일정 부분의 기획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역량이 필요

2. 기후변화 대응 의견수렴 워크숍

가. 의견수렴 워크숍 개요

의견수렴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의견수렴 대상 : 외부 전문가 6명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내부 구성원 6명

- **기후변화 의견수렴 워크숍 추진 목적**
- 예술극장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내외부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공극장으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기후극장으로서 선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과제에 대한 논의 필요
- **논의 주제**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공공극장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라는 요구와 함께 전지구적 아젠다로 부상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 예술극장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 방향과 극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기후극장으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논의
- 다각적인 논의를 위해 극장 내외부 환경을 고려한 5가지 측면에서 접근
 - 콘텐츠적 측면 : 극장 본연의 기능인 공연과 공연 외 프로그램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 제작과정적 측면 : 공연 제작 과정에서의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 공연예술 생태계 및 산업 내 확산을 위한 방안
 - 인프라적 측면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대 관련 기술 및 시설(친환경에너지, 탄소배출 저감, 탄소발자국 측정 등)
 - 전반적 운영 측면 : 전반적 극장 운영에서의 기후변화 노력방안, 공연예술 생태계 및 산업 내 확산을 위한 방안
 - 인식확산적 측면 : 일반국민(관객) & 예술가(단체) 대상 인식확산 역할 수행

나. 기후변화 의견수렴 워크숍 주요 내용

- ▶ 기후변화 의견수렴 워크숍은 전문가들의 극장 또는 사회전반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극장의 역할과 실천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됨
- ▶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고 논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 ① 소통의 확대, ② 네트워크 형성, ③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④ 사업화에 대한 우려,
 - ⑤ 한계점 인식 및 극복과제로 도출됨

■ 소통의 확대

- 극장이라는 하드웨어와 예산을 바탕으로 토론회 및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 필요
 - 목표와 실천 가능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찾아가는 과정(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 현장 예술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성과에 그칠 수 있음
 - 다만, 대관 진행 시 기후변화 실천 파트를 심사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활동의 수치화에 따라 예술가들이 느낄 수 있는 압박과 저항감 발생 가능성 존재
- 창작자 입장에서 극장과의 '소통'이 중요
 - 기후문제와 관련된 작품 창작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제공)가 필요. 국내 공연 사업들이 단기적인 편이라 공연 전후로 이뤄지는 소통, 소통의 지속가능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
- 예술가를 비롯한 예술 행정가들의 스터디와 리서치가 필요한 상황
 -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이 존재하나 개별적인 단위에서 그치고 있어, 제작 과정에서 예술가와 예술 행정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 필요

■ 네트워크 형성

-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의 상징성 활용 필요
 - 상징성(장소성)을 이용해서 극장이 지역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필요. 극장들간의 소통에도 중심이 되어, 기후관련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소통방법을 계속 제시해야 하는 역할 필요
- 국제적 네트워크 참여보다 국내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 필요

- 국내 각 지역 주요 공공극장들의 일부라도 같이 협력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판단됨
- 현재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중심의 국제 네트워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적으로 아시아 국가 중 공연예술계에서 기후변화를 화두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는 소수임. 국내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하여 향후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에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역할 정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 극장의 역할(관객들과의 소통의 장) 특수성을 활용 필요
 - 예술극장의 접근성 활용과 관련해 극장의 권위적인 인상을 줄여서 시민들과 창작자들이 고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기후문제 해결에 중요한 방법
- 인식확산을 위한 다양성 확보 필요
 - 기후 관련된 작품이 당장은 잘 나올 수 없겠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을 때 관객에게 영감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극장에서 진행되는 '봄 작가, 겨울 무대'처럼 기후에 대한 관점을 그릴 수 있는 작가들의 워크숍 등을 통한 계기 마련도 중요
 - 기후 문제를 가지고 작업하는 예술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계속해서 동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자 하는 것. 이런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사업화에 대한 우려

- 기후변화 아젠다의 직접적인 콘텐츠(사업화)적 접근은 가급적 지양 필요
 - 콘텐츠(사업화)적 접근에 따른 그린워싱의 문제점 발생 가능성 있음
 - 노동, 재난, 어린이 인권 등 다양한 주제들이 기후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여러 사회문제에서 기후 감수성을 감지하고 어떻게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것이 극장과 창작자의 공동 역할
 - 사회적 역할은 다양함(기후와 생태를 포함하여 접근성, 다양성, 정통성, 사회적가치, 동시대성 등). 점수화는 효율적이지만 평가로 인한 논의 확장성 제한과 예술가들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문제점 존재

■ 한계점 인식 및 극복과제

- 현장에서는 매뉴얼에 대한 부담감 존재
 - 미투, 배리어프리 등의 움직임은 민간에서 시작해 매뉴얼을 만들고 시작되어 공공까지 확산되는 과정이 있었으나 기후변화 문제는 탑다운 방식의 해결 방식으로 인식
- 예술가 인식 확대 필요
 - 현재 기후변화 문제는 일부 예술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상황. 제작 극장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예술가에게 작품을 만들라는 요구로 진행되는 케이스도 존재
 - 예술가의 창작성을 저해하지 않고 대안을 찾아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같이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좋은 생산성에 기여할 것이며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을 것
- 극장 내부 구성원에 대한 인식 내재화 필요
 - 직원 교육이 있어야 예술가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것이고, 직원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향점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술가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자발적 동참과 의향을 제고 할 수 있음
 - 극장 내부에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 존재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극장만의 기준 필요
 - 현재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여러 평가 지표들이 있으나 극장(공연·예술 생태계)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탄소배출에 대한 측정 등). 탄소 배출의 측정은 기술적 원인을 찾는다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한계가 명확
 - 극장이 예술가, 관객, 극장이 소통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통했고 무엇을 고민하였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3. 분과 워크숍 의견수렴

가. 의견수렴 워크숍 개요

의견수렴 일시 : 2023년 1월 13일, 17일
 의견수렴 대상 : 외부 전문가 7명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내부 구성원 6명

■ 의견수렴 워크숍 추진 목적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실시되었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예술인, 관객 대상 개별 인터뷰 내용에서 도출된 발전방안과 수행과제를 중심으로 정리된 전략 방향 공유
- 전략방향에 대한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전략방향을 보완하고, 향후 분과 워크숍에서 진행될 실행 과제 구체화

나. 의견수렴 워크숍 주요 내용

■ 선도적인 플랫폼 역할 자임에 따른 극장의 변화 함께 필요

- 기관이 제시하는 의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감성과 당파성을 읽기 위한 노력 필요
- 기후극장으로서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극장 운영에서의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차별적 역할 부각 필요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극장은 말 그대로 ‘공간’으로 창작자들의 대관 이외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워크숍, 리서치) 고민 필요
- 양과 질로 검증되는 1번부터 50번째 대관단체들이 아닌 51번부터 100번에 속한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극장의 접근성 제고 방안 고민 필요
- 다만, 수월성(안정성) 대신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예술인들의 동의를 얻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 가능성 존재
- 예술감독 책임 하에 공모 단체와의 사업·워크숍·미팅 진행을 통해 아르코 색깔 강화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관객을 대상으로는 예술의 수월성과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는 대관이 아닌 다른 공간을 통한 접근성 및 다양성 제고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됨
- 기후변화 아젠다 관련 직접적인 콘텐츠(사업화)적 접근은 가급적 지양 필요
- 현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부문에서 의미 있는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극장이 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지원 및 메뉴얼 제작 등에 대한 고민 우선 되어함
- 소통을 통해 민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더 큰 단위에서 조력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플랫폼 성격 규정 필요
- 공공극장은 모두 플랫폼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산(지리적 특성 등) 중심의 지향점이 아닌 대관 극장 차원에서 플랫폼 성격 규정 필요
- 위계적인 극장은 예술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님. '파트너' 성격의 대관극장으로서 예술인들에게 신뢰 회복과 의제설정 필요
- 예술인들의 신뢰 회복 및 협력 관계 구축 필요
- 과거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와 운영체계 변화와 별개로 지원방식을 공정히 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제도를 확보야 한다고 판단됨
- 또한, 블랙리스트 신뢰 회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및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제안을 수용하고 녹이는 작업 필요
- 기후변화 아젠다 설정에 대한 부담감 존재
- 기후변화 의제는 인기와 비교해 내용의 깊이가 떨어짐. 주제로 끌고 가기에 한계가 명확
- 동시대성을 보이는 작품들을 대관 및 지원사업을 통해 아르코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방법도 존재

제5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발전방안 도출

제1절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핵심 고려요인 도출

1. 고려요인 도출을 위한 대내외 여건분석

가. 여건분석 시사점

1) 기초예술 여건

- 기초예술 분야 공연에 대한 낮은 관심⁶⁾ 및 관람비중 저조에 대응한 일반대중과의 다양한 소통 및 교류 필요성 증대
- 전체 일반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수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초예술 분야로서 연극, 무용 분야의 관람률은 타 문화·예술 분야에 비교해 낮은 수준
- 공연예술 시장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티켓판매 수입 기준으로 뮤지컬이 65%로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연극(11.9%)과 무용(0.9%)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

관련 사례 및 인터뷰 내용

- (국립극장) 문화광장을 야외공연장으로 활용, 무료 야외공연 포함 축제 및 다양한 문화 활동이 가능한 관객 친화형 극장 조성
- (로열 오페라 하우스) 관람객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들도 이용 가능한 개방 공간(음식점, 카페 등) 마련, 관람 목적 이외의 접근성 향상
- (인터뷰) “극장 내 카페 및 활용, 로비 전시회 등 공연관람 외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인터뷰) “공연 애프터 토크를 통해 해당 공연에 대한 의견 교류 및 관객이 예술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및 접점 확대 프로그램 필요”

- 관람을 넘어 참여 및 신기술 융합을 통한 체험 니즈 증대에 대응한 기초예술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소통 확대 필요
- 예술 분야의 향유에 있어, 결과(작품)에 대한 향유를 넘어 창작과정, n번 관람 등 다양한 부분과 방식으로의 향유 유형이 확대
-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예술작품이 선보여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예술체험에서도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방식이 시도

관련 사례 및 인터뷰 내용

- (LG아트센터) 기초예술이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을 대상 극장 로비 관객 체험형 공연을 진행하는 ‘클럽 아크(Club ARC)’ 운영
-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 대상 일상 속 연극 향유 기회를 위해 소규모 이동형 공연 개발 및 ‘연극인 잔차’ 등 야외마당을 특별공연 공간으로 조성
- (인터뷰) “기초예술 공연 관람 목적을 설명하는 것 보다, 스포츠나 음악처럼 ‘그냥’ 보는 경험 필요하며 청소년 시기에 점점 마련 중요”

6)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21)/공연예술조사(2022), 문화체육관광부

2) 코로나19 영향

- 공연예술 분야 피해 급증 및 누적⁷⁾에 따라 보다 안정적 창작환경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020년 문화·예술 활동 수치가 큰 폭으로 감소(2019년 81.8% → 2020년 60.5%)
- 공연 시장 규모 또한 2019년 8,50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4,000억 규모로 크게 감소

관련 사례 및 인터뷰 내용

- (두산아트센터) ‘두산레지던시 뉴욕’ 젊은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 최초 뉴욕 주정부와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받고 설립
- (예술의전당) 장비 접근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실감’ 운영을 통해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 및 창작과 유통 기회 제공
- (인터뷰) “예술의 역할 중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뿐 위로와 사색 성격 강조, 멈추지 않는 극장 필요”

- 비대면·온라인 등 공연의 다양성 대두⁸⁾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한 변화와 시도의 요구 가속화
- 코로나19 펜더믹 상황에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비대면·디지털 활동 확대
-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는 오프라인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 전망

관련 사례 및 인터뷰 내용

- (LG아트센터) 코로나19로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관객들을 위해 국내외의 공연 콘텐츠를 디지털 스테이지 ‘컴온 (CoM+On, CoMPAS Online)’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
-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술 콘텐츠 (발레·클래식·뮤지컬·연극 및 전시 등)를 영상 또는 실시간으로 송출
- (인터뷰) “기초예술의 경우 공연 에티켓이 많이 요구됨, 공연 중간 사진 촬영 등 관람 형태에 있어서 변화 필요”

3)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대두

- 기후위기, 배리어프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대응에 대한 요구 증대
- 전 지구적 아젠다로 부상한 기후변화 대응은 공연예술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참여의 형태로 사례 확산
- 또한, 공연예술의 창작, 관람 등 다양한 과정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요구 (실질적인 공연 관람을 위한 방안 마련 포함)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매개 역할 수행의 필요성 제기
- 문화·예술 자체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지속되어 왔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문화·예술계 내외부 공감대 형성
-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참여와 협력 등 보다 능동적인 역할에 대한 필요성 증대

7)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21)/공연예술조사(2022), 문화체육관광부

8)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사례 및 인터뷰 내용

- (국립극단) 공연물품 무료 나눔 사업 ‘빨간지붕 나눔장터’ 기획,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 실천 및 공공예술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링컨센터) 실내 수직 정원 설치 및 인조 잔디를 사용한 잔디광장 조성
- (영국 국립극장) 발달장애 친화 공연(Relaxed Environment Performances) 및 촉각 투어 진행
- (인터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는 대상(예술가·관객·동아리 등)을 위해 관련 자료 축적,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에 대한 소통창구로 역할 필요”
- (인터뷰) “시대적 요구(기후위기, 젠더이슈, 국가간 교류 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관련된 화두 제시 필요”

[표 5-1] 고려요인 도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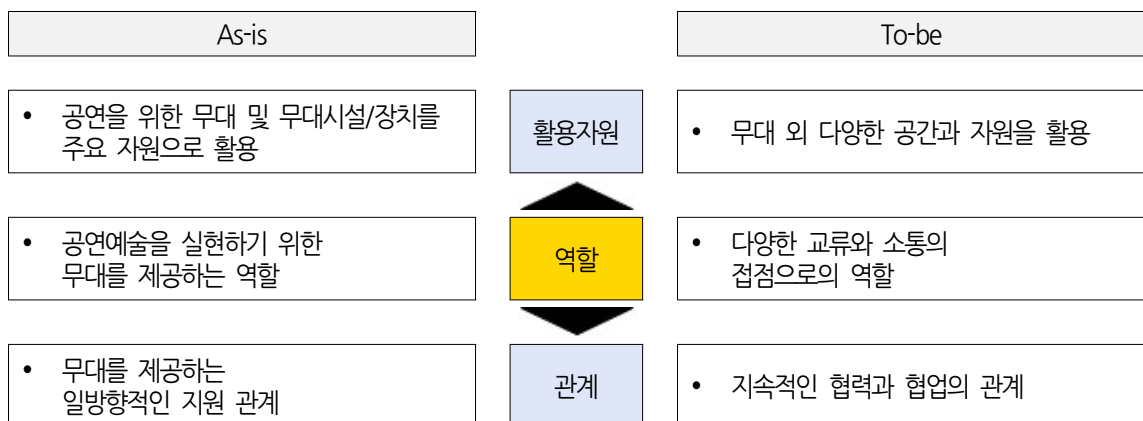
구분	대외여건	고려요인	역할 대상
기초 예술	기초예술분야 공연에 대한 낮은 관심 및 관람비중 저조	일반대중과의 다양한 소통교류 필요	관객
	관람을 넘어 참여 및 신기술 융합을 통한 체험 니즈 증대	기초예술의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코로나 19	공연예술분야 피해 급증 및 누적	안정적 창작환경 지원 요구 증대	예술인
	비대면·온라인 등 공연의 다양성 대두	다양한 공연 및 소통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	공연예술
사회적 가치	기후위기, 배리어프리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요구 증대	사회적 가치실현 및 대응에 대한 요구	사회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선제 대응 필요	사회적 가치 확산의 매개 역할 수행	

‘새로운 변화와 대응을 모색해야 하는 전환기적 시점에 직면한 공연예술’

나.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한 극장 역할의 확장

- 대내외 여건분석을 통해 요구되는 극장의 변화와 대응에 대한 요소를 크게 관객, 예술인, 공연예술, 사회 4개 측면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다각적인 역할확장을 위한 활용자원과 다양한 관계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
- **(극장의 역할)** 공연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상연하기 위한 무대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이러한 극장의 역할은 예술인에게 있어서는 예술의 가치를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기능
 - 다양한 이해관계자(예술인, 관객, 전문가 등)가 모이는 접점이자 공간이라는 극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류와 소통의 접점으로의 역할 확대
- **(극장의 활용자원)** 일반적으로 극장은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무대시설/장치라는 물적 인프라와 함께 극장을 운영/관리하는 인적 인프라를 보유
 - 이를 활용해 극장을 사용하는 예술인과 관람하는 관객을 대상으로 각각의 극장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공연 장르 등 특성에 따라 운영
 -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 외 다양한 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운영과 함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용자원의 적극적인 발굴 필요
- **(극장의 관계)** 극장은 예술인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예술인은 무대를 통해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일방향적 관계를 형성
 - 또한, 극장 관리자로서의 관계(극장)와 극장 이용자로서의 관계(예술가)가 구축되며 분절적 관계의 방향성으로 접근
 - 극장과 예술인 간 지속적인 협력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상호적 관계 강화 필요

[표 5-2] 고려요인 도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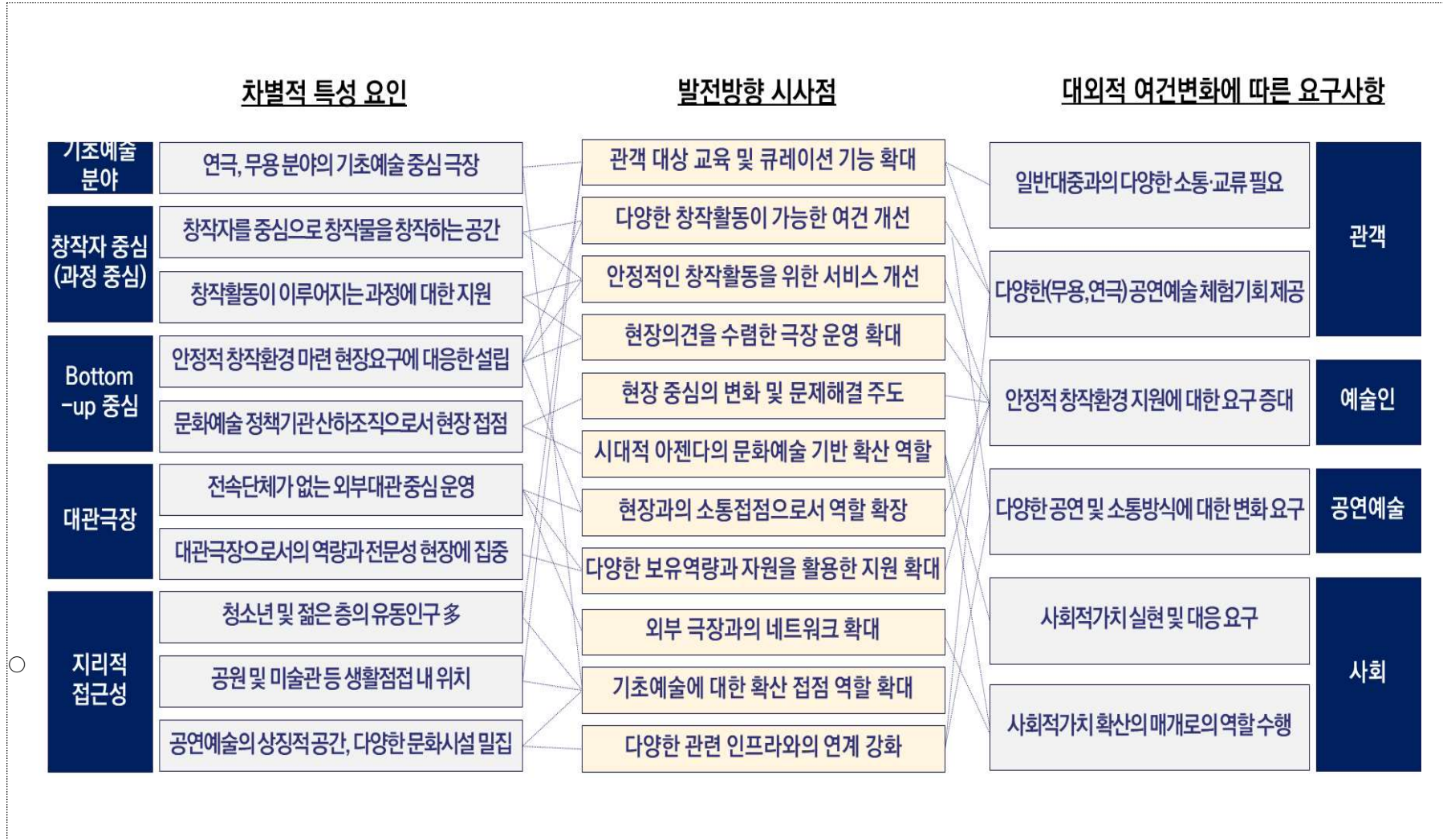
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차별적 특성에 따른 고려요인 도출

- **(기초예술)** 연극, 무용 분야 등 기초예술 창작자를 위한 공연예술의 중심극장
 - 이에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기초예술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큐레이션 확대가 요구
- **(창작자 중심)** 관객 중심의 공연예술을 향유 공간으로서의 무대보다는 창작자 중심으로 창작공간으로서 무대를 제공
 - 창작자의 창작 활동 과정에 대한 지원에 집중함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창작 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다양한 소통 및 새로운 시도가 가능한 인프라) 제공이 요구
- **(Bottom-up)** 예술인 중심의 안정적 창작환경 마련에 대한 현장요구에 대응하여 설립
 - 문화·예술 정책기관인 예술위의 산하조직으로서, 현장 예술인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극장 운영 및 현장으로부터의 변화와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
 - 또한, 정책기관인 예술위 산하의 조직으로서, 타 극장 대비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동시대 아젠다를 확산하는 역할 수행에 적합
- **(대관 중심 극장)** 전속단체를 보유하지 않은 외부대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극장
 - 보다 다양한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 방향 설정을 지양함에 따라 상연되는 작품을 통해 차별성이 드러나는 일반극장과 차별성 존재
 - 이에 보다 다양한 현장 예술인과 소통하는 소통 접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 유한한 자원으로서의 무대지원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외부 극장과의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 활용가능한 무대를 확충하는 등 무대 외 역량과 자원을 활용한 지원 확대방안 모색
- **(지리적 접근성)** 대학로라는 청소년 및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리적 공간에 위치 (마로니에 공원 및 미술관 등 일상 속 생활접점 내 위치)
 - 공연예술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다양한 극장 및 문화 시설이 밀집한 중심에서 다양한 관련 인프라와 연계한 기초예술에 확산의 접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그림 5-1] 예술극장과 타 극장과의 차별성 비교분석

	 아코·대악로예술극장	 국립정동극장	 국립극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운영현황 및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4개관 1,346석 (규모) 중극장(500석 규모) 운영 (운영주체) 단체소속 (문예위신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3개관 620석 (규모) 중극장(300석 규모) 운영 (운영주체) 독립적 운영 (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3개관 840석 (규모) 중극장(600석 규모) 운영 (운영주체) 독립적 운영 (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3개관 2,360석 (규모) 대극장(1,000석 이상 규모) 운영 (운영주체) 독립적 운영 (문체부 신하 책임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8개관 8,139석 (규모) 대극장(1,000석 이상 규모) 운영 (운영주체) 독립적 운영 (문체부 신하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8개관 4,618석 (규모) 대극장(1,000석 이상 규모) 운영 (운영주체) 독립적 운영 (서울시 신하 지방공공기관)
	예술인 중심 현장 접점 역할	독립적 운영, 대규모극장,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 규모 등으로 인한 공연예술의 확산, 확장을 위한 자체기획 중심의 독자적 역할 수행				
설립배경 및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배경) 연극인의 니즈와 활동에 의해 설립된 연극인회관의 확장 설립 (비전) 예술이 삶과 세계를 만나 다시 예술로 환류되는 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배경) 한국최초의 근대식 극장·원각사의 복원과 근현대 예술정신 계승 (비전) 공연예술의 고귀·치 실현을 선도하는 문화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배경) 연극예술 중심의 발전 및 인재양성 (비전) 누구나 경험하는 연극의 가치로 커가는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목적) 전통문화예술 중심의 국제적 위상 확대 (비전) 전통에 기반한 동시대적 공연예술의 창작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배경) 국가내 부족한 대규모 공연(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공간 마련 (비전) 문화예술의 가치제고를 통한 예술기관의 위상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목적) 시민회관 화재소실 이후 공연을 위한 다목적홀 건립을 위해 설립 (비전) 특별한 경험으로 시민 삶에 가치를 더하는, 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계의 니즈와 활동을 통한 Bottom-up 방식 설립	공연예술계의 니즈에 따른 국가 차원의 Top-Down 방식 설립				
운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한 공간 운영 대관운영 체계 혁신 예술현장 협업 구축 시민/관객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고품질 공연 기획제작 체계 구축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강화 정동극장대의 브랜드인지도 제고 경영효율화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시대 연극 선도 연극예술의 ESG 경영 문화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창작 공연예술부문 문화행정 확산 공연예술문화 향유 증진 열린 복합문화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 높은 작품 기획, 제작 인정적 제3환경 마련 예술창작과 향유의 플랫폼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경쟁력 제고 문화소외계층 지원, 교류 시민의 예술참여 및 공간 개방
	공간 중심 창작지원 집중	우수한 공연예술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집중 (공연예술을 결과의 향유 증대)				
대상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예술로서의) 연극, 무용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콘서트, 클래식, 무용 등 다양한 장르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중심 상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콘서트, 클래식, 무용 등 다양한 장르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명 예술인(단체) 초청 & 협력단체 공연 (시민오케스트라, 국립오케스트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전수단체 중심의 공연 기획

[그림 5-2] 예술극장의 차별적 특성요인과 대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응한 발전방향 도출



제2절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발전전략 도출

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차별적 특성에 기반한 발전전략 도출

[그림 5-3] 차별적 특성에 기반한 발전방향 도출 개요



- **(공연예술)** 기초예술 분야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사결정 역할 확대
 - 예술인 중심의 안정적 창작환경 마련에 대한 요구로 설립된 극장으로서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은 물론, 극장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현장 예술인을 참여시킴으로써'함께하는 극장'으로서의 차별적 인식 강화
 - 대관 중심 극장으로서 다양한 예술인·예술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예술극장과의 협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양한 기초예술 창작에 대한 지원을 위한 대관 선정 기준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전문가 및 예술단체는 물론 다양한 일반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공연예술)** 기초예술 분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주체 간 협력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 기초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부족과 코로나19, 다양한 융합기술 활용확대 등 대외적인 여건변화 속에 다양한 변화와 대응이 요구
 - 그러나 분절적인 예술인 개개인 노력을 통한 대응 및 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
 - 예술극장은 다양한 예술인과 전문가가 모이는 공간이자 접점으로서 이러한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외부 극장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방안까지 모색
 - 특히, 정책기관의 산하조직으로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달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예술인)** 다양한 기초예술 창작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예술인 중심의 인프라 개선
 - 무대를 중심으로 기초예술에 대한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예술극장은 건물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 및 편의성 측면에서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또한, 기존 건물이 극장시설을 목적으로 설계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발생하는 개선사항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
 - 특히, 최근 다양한 기술 및 분야 간 융복합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를 포함한 요구 역시 증대
 - 유한한 공간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타 극장과의 연계 방안 역시 인프라 측면에서 고려 가능
- **(예술인)**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한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예술인 간, 타 분야와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
 - 창작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공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통한 협력 및 융복합을 지원
 - 예술인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람들(관객 등)이 모일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극장이 이와 같은 소통과 교류의 접점으로서 역할을 수행
 - 이를 통해 창작활동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
 - 또한, 관객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해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피드백 제공 (관객 대상 창작자와의 만남을 통해 기초예술에 대한 관심 및 이해 제고)
- **(관객/일반국민)** 기초예술에 대한 이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초예술에 대한 교육 및 큐레이션 기능 강화
 - 일반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수요자 지향적으로 공연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극장과는 달리 예술극장은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지원
 - 기초예술의 경우 일반대중이 이해하고 소비하기 어려운 특성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교육과 소양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
 - 이에 기초예술에 대한 수요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큐레이션 제공이 필요하며, 기초예술에 특화된 극장으로서 이러한 역할 확대가 요구
- **(관객/일반국민)** 대학로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기초예술 확산을 위한 기초예술 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 확대
 - 일반대중과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극장으로서 기초예술 확산을 위해 기초예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이를 위해 기초예술에 대한 단편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극장 주변의 다양한 일반국민 접점 인프라 및 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
- **(사회)** 현장 예술인과의 협력 및 문화예술계 전반의 참여 등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메시지 확산
 - 예술극장은 정책기관의 산하조직으로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한 시대적 아젠다 확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극장
 - 특히, 현장중심의 변화를 선도하는 방향성 하에 사회적 확산에 있어서도 문화예술 분야 현장 예술인과 함께하고, 전 사회적 확산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과의 접점으로서 개개인을 통한 확산을 추구
 - 이를 위해 역시, 예술극장 주변의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한 확산 도모
- **(사회)** 기후변화에 대한 문화·예술분야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인식 확산 및 선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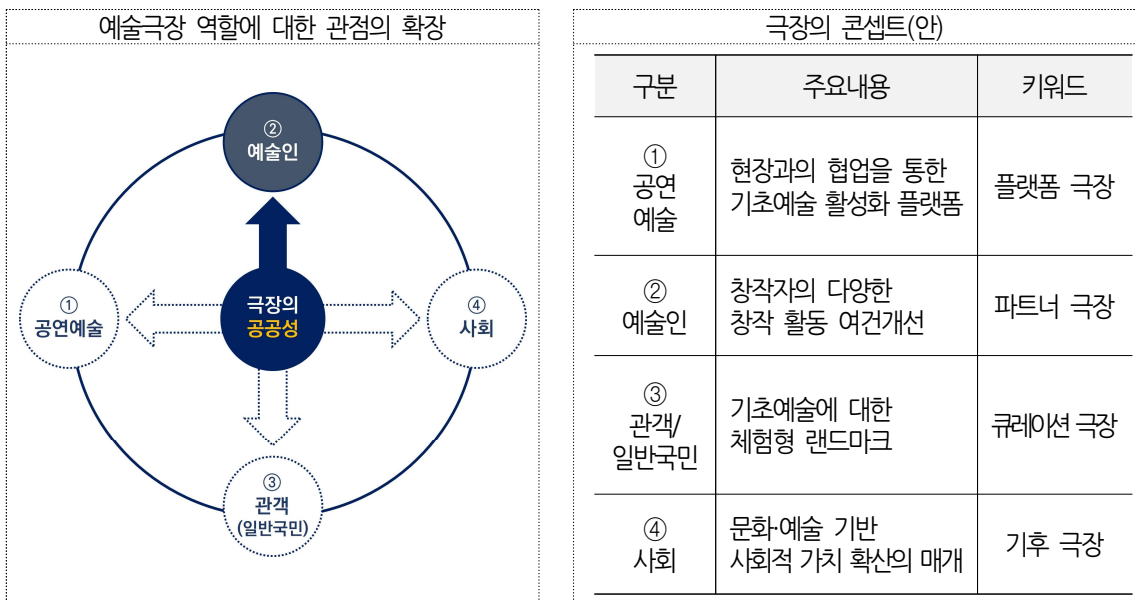
모델 제시

- 전 세계적 아젠다인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한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예술계 내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제공하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미중물의 역할을 수행
- 역시 정책기관의 산하조직으로서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역할을 현장 예술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차별성 기반에서 추진
- 시급히 요구되는 인프라 개선요구와 함께 인프라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제시

2. 차별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발전방안 도출

- **(키워드)** 대외적인 여건변화 속에서 다양한 변화와 요구에 직면한 기초예술분야에 있어 극장으로서 요구되는 다각적인 관점의 역할을 고려한 키워드 도출
- 현재 예술극장은 기초예술분야의 예술인(단체) 대상으로 무대라는 공간지원을 중심으로 한 역할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
- 그러나, 예술극장이 보유한 차별적 특성을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을 예술인(단체), 공연 예술, 관객(일반국민), 사회의 4개 부문으로 확장
 - 기초예술의 다양한 과제 및 애로사항을 현장 중심을 해결하기 위한 구심점
 - 기초예술인(단체) 다양한 창작활동을 위한 안정적 여건을 제공하는 공간
 - 일반대중(관객)이 기초예술을 일상에서 단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접점
 - 기초예술의 혹은 기초예술을 통한 메시지가 사회로 확산되는 매개

[표 5-3] 차별적 발전전략 관련 키워드 도출



■ (발전방안) 다양한 개념의 확장을 통한 예술극장이 추구해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

○ (As-is) 무대라는 공간(①)에 대한 일반적 대관(②)이라는 지원(③)의 역할 수행

- “무대라는 공간” : 활용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무대라는 특정 공간을 넘어 예술극장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물리적 공간과 상징적인 장(플랫폼)으로까지 확장
- “일반적 대관”: 공공극장으로서 무대 대관이라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다양한 사람과 메시지를 연결하고,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
- “지원” : 예술극장을 찾는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가 1회성의 지원 관계가 아닌 다양한 공공성을 함께 실현하는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서 참여형 극장으로 발전

[그림 5-4] 아코대학교예술극장의 발전방안



○ (To-be) 예술극장의 자원과 역할의 개념적/구조적 확대를 통한 발전적 관계 강화를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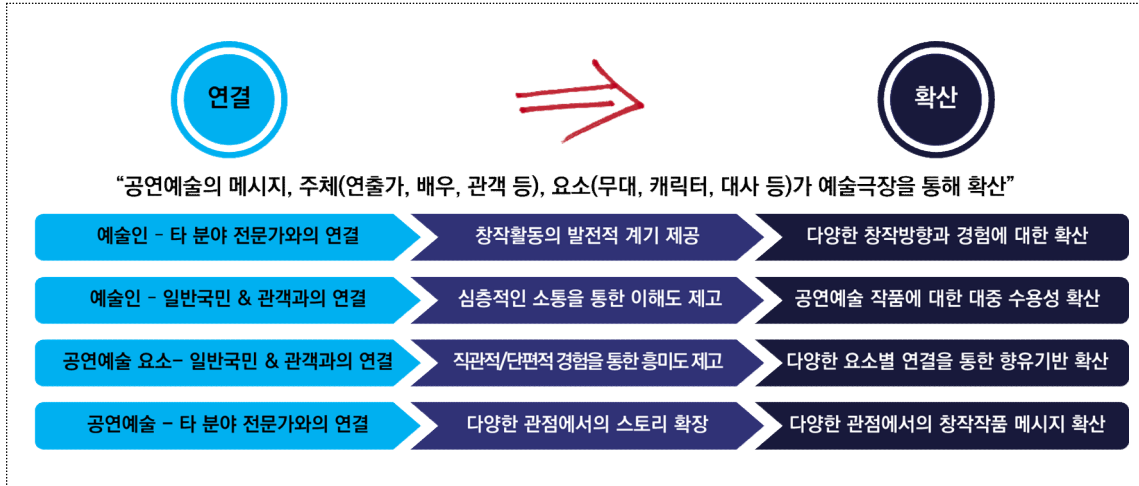
- ① [자원] 무대 → 공간 → 장(場) : 예술극장이 관객(일반국민) 다양한 공연예술과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예술을 접하고 공연예술을 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과 소통

[그림 5-5] 발전방안① - 활용자원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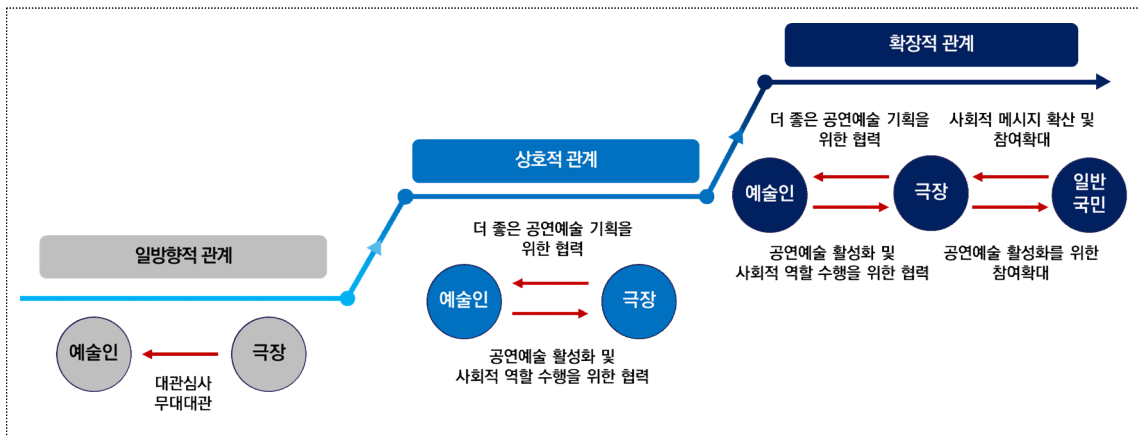
- ② [역할] 대관 → 연결 → 확산 : 공연예술의 메시지, 주체(연출가, 배우, 관객 등), 요소(무대, 캐릭터, 대사 등)가 예술극장을 통해 확산

[그림 5-6] 발전방안② - 역할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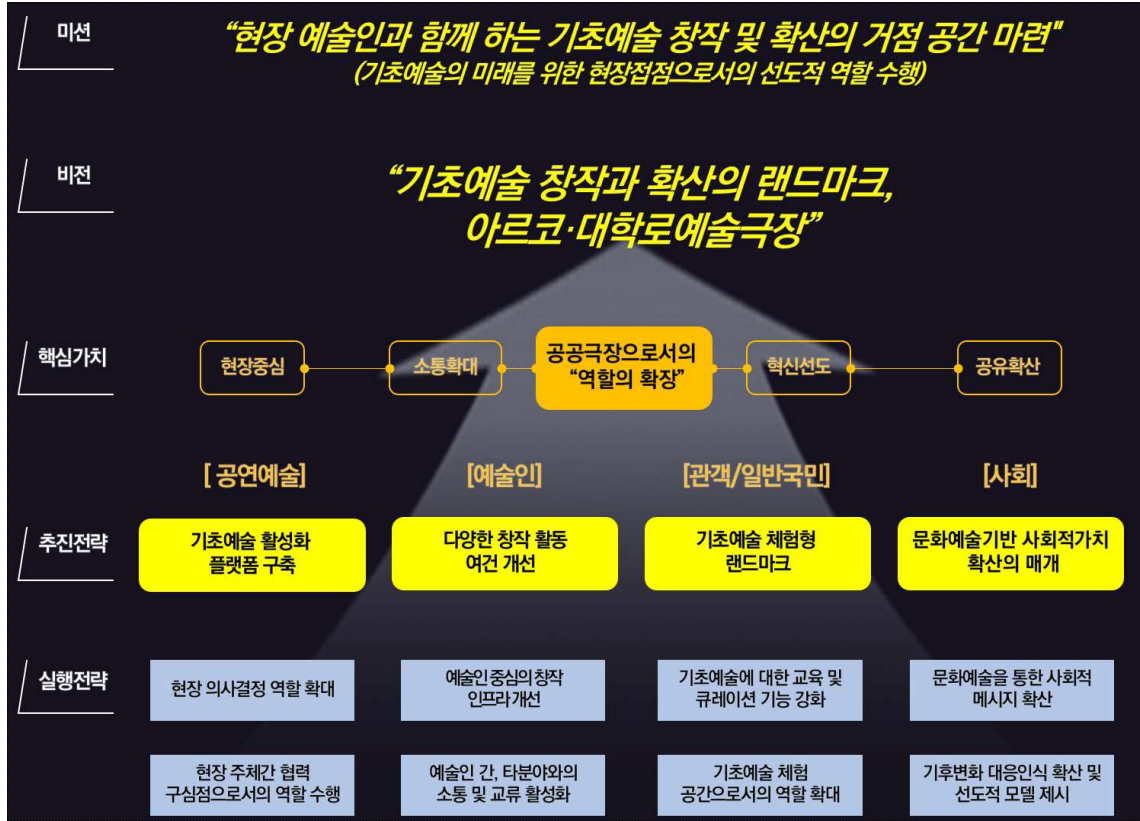
- ③ [관계] 지원 → 협력 → 참여 : 예술극장이 예술가에 대한 지원적 관계를 넘어 공연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이끌고 나아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를 형성

[그림 5-7] 발전방안③ - 관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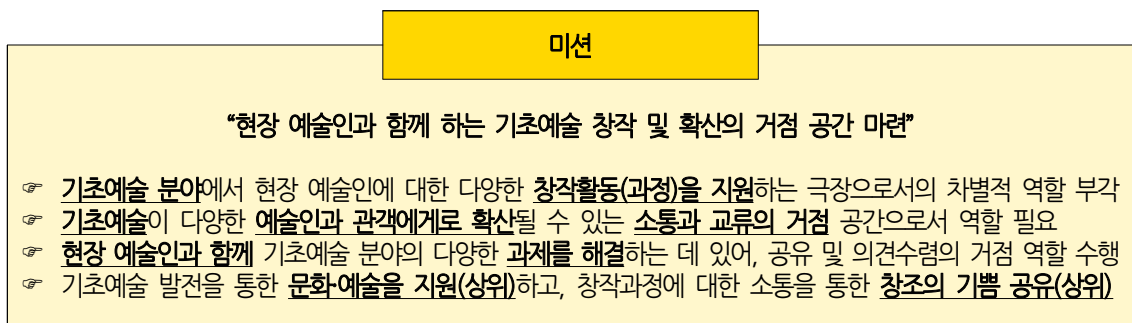


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발전전략 체계도 도출

[그림 5-8]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전략 비전전략 체계도



- **(미션)** 기관이나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존 미션을 기준으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설정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차별적 역할에 대한 리포지셔닝을 통해 개발
(기초예술 분야, 창작과정을 지원, 현장 접점&구심점, 사회적 가치 확산)
 - 상위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의 미션과의 부합성 고려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
 -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경쟁자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비전)** 조직이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미래상, 지향, 열망하는 바로서 목표와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개발

비전

“기초예술 창작과 확산의 랜드마크,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 ☞ **창작 예술인 대상** 기초예술 **창작활동의 거점**으로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하여 기초예술 **발전을 위한 협력** 도모
- ☞ **관객 및 일반국민 대상** 기초예술의 확산 거점으로서 기초예술에 대한 **관심 및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험 및 교육의 랜드마크**로서 차별적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소통 및 교류의 거점**으로서 역할 수행

- **(핵심가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되는 원칙과 기준으로서 다양한 측면의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설정
-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핵심가치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계 및 확장성 있는 가치체계를 설정

핵심가치

(MAIN) 공공극장으로서 “역할의 확장”

- ☞ **대관 중심 극장**으로서 기초예술 분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의 확장**이 핵심 고려요인
- ☞ 기존의 대관 및 지원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역할확장**을 고려한 **업무추진 및 인식의 변화**가 필요

○ 현장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창작자 중심으로 기초예술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기초예술 분야의 다양한 과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예술인을 통한 Bottom-up 문제해결 방안을 주도 ☞ 기초예술의 확산을 위해 일반국민의 생활접점 현장에서의 관심 및 이해 제고 추진
○ 소통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간은 물론 타 분야와의 소통 및 교류의 접점으로서 새로운 방식의 창작활동 지원 ☞ 현장접점으로서 예술인 대상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의 과정을 주도
○ 혁신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예술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과 사회적 가치에 대응한 공공극장의 선도적 모델 제시 ☞ 또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및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 공유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소통, 교류를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공유 및 성과/결과의 확산을 추진 ☞ 기초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및 아젠다의 효과적인 확산 매개로의 역할 수행

- **(전략) 비전(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술의 운영방안으로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추진전략 및 실행전략을 설정**
- 아르크·대학로예술극장의 다양한 역할 및 차별적 특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발전방안 및 관점을 제시

추진전략

- **(공연예술) 기초예술 활성화 플랫폼 구축**
 - ☞ 기초예술분야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사결정 역할 확대**
 - ☞ 기초예술분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주체 간 협력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 **(예술인) 다양한 창작활동 여건 개선**
 - ☞ 다양한 기초예술 창작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예술인 중심의 창작 인프라 개선**
 - ☞ 다양한 창작활동에 대한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예술인 간, 타 분야와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
- **(관객/일반국민) 기초예술 체험형 랜드마크**
 - ☞ 기초예술에 대한 이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초예술에 대한 교육 및 큐레이션 기능 강화**
 - ☞ 대학로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기초예술 확산을 위한 **기초예술 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 확대**
- **(사회) 문화예술기반 사회적가치 확산의 매개**
 - ☞ 현장 예술인과의 협력 및 문화·예술계 전반의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메시지 확산**
 - ☞ 기후변화에 대한 문화·예술분야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인식 확산 및 선도적 모델 제시**

■ (주요사업) 추진전략에 기반한 주요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

[표 5-4]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전략에 기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전략에 기반한 제안 사업 개요

추진전략	실행전략	주요 사업 제안	추진 목적	추진 시기
1. (공연예술) 기초예술 활성화 플랫폼 구축	현장 의사결정 역할 확대	1.1. 기초예술인 창작환경 개선·협력공동체 운영	• 예술극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 예술인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과 함께 하는 극장으로서의 차별적 인식 강화	단기
		1.2. 다양성을 위한 대관 심포지엄 운영	• 대관극장으로서 공연예술 분야 및 사회적 가치에 대응한 대관운영 방식의 전환에 있어 현장 예술인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유와 공감에 기반한 운영	단기
		1.3. 예술인-예술극장 파트너십 리빙랩 운영	•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현장 예술인들이 스스로 과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소통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 및 실행지원	중기
	현장 주체간 협력 구심점으로서 역할 수행	1.4. 기초예술인 정책지원을 위한 청원 시스템 구축	•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해당 분야에서의 협업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장니즈에 기반한 추진근거 확보 및 예술극장 중심의 실질적인 추진동력 마련	단기
2. (예술인) 다양한 창작활동 여건 개선	예술인 중심의 창작 인프라 개선	2.1. 예술인(창작자) 중심의 예술극장 인프라 개선	• 비 공연장 목적의 건물설계, 노후화,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창작시도가 가능한 여건 등에 기반한 예술극장 전반의 리모델링 및 인프라 개선 요구 高	장기
		2.2. 중단되지 않는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화 역량 강화	• 영상 콘텐츠 활성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창작방법의 일환이자, 공연중단 사태 시 해결대안으로서 공연 영상화 역량 및 인프라 구축 • 기초예술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 및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한 영상 콘텐츠 활용	장기
		2.3. 기초예술인 소통 및 창작 공유공간·창작 실험실 운영	• 예술인 간 소통 및 창작과정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실험적 창작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개형 공간을 마련하여 예술인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중기
	예술인 간, 타 분야와 소통 및 교류	2.4. 타 분야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극장 파트너즈 운영	• 예술인과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용가능한 전문가 Pool 구축 및 관리운영	단기

추진전략	실행전략	주요 사업 제안	추진 목적	추진 시기
	활성화	2.5. 기초예술 국제교류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예술인, 단체 단위에서 추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지원을 통해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다양한 창작 및 창작 트렌드 역량 강화 지원 	단기
3. (관객/일반국민) 기초예술 체험형 랜드마크	기초예술에 대한 교육 및 큐레이션 기능 강화	3.1. 청소년 기초예술 함양 제고를 위한 기초예술체험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예술에 대한 잠재적 수요대상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기초예술 역량 함양을 위한 체험학교운영을 통해 관심-이해-관람의 단계적 관객역량 제고 	중기
		3.2. 마로니에 공원 연계 '예술극장 주간'(페스티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로 유동인구의 일상접점인 마로니에 공원과 연계한 단편적인 기초예술 체험이 가능한 페스티벌 운영을 통한 기초예술 체험접점으로서 역할 강화 	중기
	기초예술 체험공간으로서의 역할 확대	3.3. 예술 복합공간 전환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로 유동인구와의 접점을 활용하여, 기초예술의 단편적인 체험공간이자 인식접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로비 및 야외 시설에 대한 공간 리모델링 추진 	장기
4. (사회) 문화·예술기반 사회적가치 확산의 매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메시지 확산	4.1. 현장 중심 사회적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의 자발적인 사회운동 중 예술극장이 추구하는 가치와 연계할 수 있는 가치를 연계 협업하여 메시지 확산 추진 (사회적 가치 기반 일반국민과 소통) 	단기
	기후변화 대응인식 확산 및 선도적 모델 제시	4.2. 범 공공극장 연계 '기후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기관의 산하조직으로서 전 세계적 아젠다인 기후변화에 극장 및 기초예술계가 참여할 수 있는 선도적 방안을 마련, 확산하고, 국민적 인식확산에 기여 	중기

제6장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전략 수행을 위한 제언

제1절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제언

1. 창작자와의 소통 강화 및 사회 의제의 적극적 발굴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창작자 중심의 기초예술에 대한 공연예술 중심의 극장으로서 관객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으로서의 무대보다는 창작자를 중심으로 창작물을 창작하는 공간으로서 극장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
- 기초예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초 예술을 창작하는 예술인들의 의견과 창작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술 극장 소통 확장 노력 필요
- 창작자 중심의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는 다양하고 새로운 창작 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예술인 중심의 안정적 창작환경 마련에 대한 현장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예술인과의 직접적인 현장 접점으로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극장 운영 및 현장으로부터의 변화 및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역할 수행 필요
- 이를 위해 창작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함께하는 극장으로서의 극장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예술극장과 의 협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시스템) 마련 필요
- 또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공공극장으로서 기초예술을 중심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작품을 상연하고, 창작자의 새롭고 도전적인 창작방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강화 필요
- 공연을 포함한 공연예술 분야는 다양한 창작과 방법으로 사회의 제반 이슈를 발굴하고 대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술극장은 이러한 예술의 역할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 가능
- 이러한 다양한 창작방법 실현과 사회의제 발굴의 역할 강화는 상위기관인 예술위와의 적극적 협업과 소통과 함께, 창작자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리서치 및 워크숍 등 공연 이외의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 필요

2. 공연의 지속을 위한 대안 마련 및 기초예술에 대한 관심 제고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공연예술 분야의 미친 영향은 공연의 취소와 연기 등으로 현장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공연예술 산업 부문 및 일반국민의 문화예술 관람활동이 축소
- 새로운 형태의 공연, 장르 간 협업 등 새로운 창작활동 시도를 통해 팬데믹을 비롯한 공연중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창작자의 개별적 노력으로는 공연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연예술계는 대응 지침 마련,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극장 및 대관단체 이행사항’ 마련을 통해 선제적 대응
- 일상회복 시점에서 공연예술계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연예술계는 대응 지침 마련, 다양한 지원활동 등 지속적인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위기 대응에 대한 노력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공연예술의 온라인 및 영상화가 이루어지며, 공연의 지속성과 관련한 새로운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
- 이러한 환경변화에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상연 공연의 단순한 영상화가 아닌 기초예술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가능성 발굴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과정이 중심이 되는 기초예술의 경우 일반대중의 이해가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한계점은 기초예술에 대한 낮은 관심 및 기초예술 부문의 축소로 이어져 기초 예술의 수요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공연을 위한 관객 대상 기초예술의 경험에 기초한 교육과 훈련 필요
- 이를 통해 일반 대중들도 기초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속 가능한 공연의 발전 도모 기대
- 또한, 지속가능한 공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개별적/단기적 노력이 아닌 극장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통합적이고 장기적 노력이 필요
- 이는 공연예술이 가지고 있는 현장 중심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극장이 선도해야 할 역할로서 위기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의 창구, 대안의 제안자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지속가능한 공연은 앞서 설명한 공연예술계의 사회적 의제로서 연계될 수 있으며, 창작자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연구와 속의 또한 필요

3.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리모델링

- 극장의 시설은 관객 측면에서 더 나은 공연 경험을 제공하고, 개선된 편의시설을 통해 관객의 공연 및 공연장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세스이며, 창작자 측면에서는 공연의 상연 시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극장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의미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는 현장 창작자들과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을 통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핵심가치 키워드인 현장중심, 소통확대, 혁신선도, 공유확산과 추진전략인 기초예술 활성화 플랫폼 구축, 다양한 창작 활동여건 개선, 기초예술 체험형 랜드마크, 문화예술기반 사회적가치 확산의 매개의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결문제로서 중요한 제언
- 또한,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극장, 접근성 개선(배리어 프리),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융합공연이 가능한 인프라 확충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미래지향적 극장 리모델링 필요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시설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장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 단기적으로 창작자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창작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관객의 더 나은 공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아르고대학교예술극장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필요
- 이를 위해 효과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별도 연구용역을 비롯해 창작자와 내부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 선행 필요

[표 6-1] 타 공공 공연장 개관년도 및 리모델링 시행 사례

공연장	개관년도	리모델링 시행	총공사비 (백만원)	설계비 (백만원)	비고
아르고예술극장	1981년	미추진	48,500	2,800(5.8%)	-
국립극장(해오름)	1973년	18-21	65,800	1,700(2.6%)	03~04 1차 리모델링
국립정동극장	1995년	미정	30,000	1,380(4.6%)	예산 확보
대학로극장 쿼드	1989년	20.4~21.6	15,061	-	-
광주문화예술회관	1991년	21.6~23.3	29,700	950(3.2%)	건축 분야 일부 제외
인천문화예술회관	1994년	23.4~25.3	48,400	2,900(6.0%)	-
의정부예술의전당	1999년	22.1~23.6	20,000	1,170(5.9%)	-

별첨. 전략과제에 대응한 세부 실행과제 제언

1. 기초예술 분야 세부 실행과제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이 중요 또한, 코로나19, 다양한 융합기술 활용확대 등 대외적인 여건변화 속에 새로운 변화와 대응이 요구 그러나, 예술인(단체)의 개별적, 분절적인 노력으로는 예산 및 조직 등 대응의 한계가 존재 예술극장은 예술현장의 요구로 설립된 극장으로 현장 예술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는 현장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발전 	
	전략과제	세부 사업
	기초예술 분야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사결정 역할 확대	1. 기초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협력공동체 운영 2. 다양성을 위한 대관 심포지엄 운영
	기초예술 분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주체간 협력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3. 기초예술인-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파트너십 리빙랩 운영 4. 기초예술인의 수월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청원 시스템 구축

가. 기초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협력공동체’ 운영

- **(의미 및 목적)**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 방향에 기초예술인 창작환경 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사결정 공동체 운영
 - 기초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
 -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 방향의 추진 동력과 지지를 확보하며, 예술인을 위한 운영 기반을 강화
- **(운영방안)** 분기 단위로 의제설정(의견수렴)과 개선방안 논의
 - 의제 설정(의견수렴)과 개선방안 논의 과정을 통해 기초예술인 중심의 운영 가시화
 - 개선방안을 운영방안에 적용함으로써 기초예술 창작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 의제설정(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는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논의하여 운영방식 변화의 체감도 제고

[그림 6-1] 기초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협력공동체’ 운영 개요



[표 6-2] 시기별 기초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협력공동체' 운영 세부사항

시기	초기 (운영 초기 1~2년)	중장기 (운영 후 3년 이상)
대상	해당연도 대관단체(예술인)	전체 기초예술인
목적	협력공동체의 원활한 운영 및 제도 정착	기초예술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 도출
주요 논의주제	대관 운영, 극장 사용 편의성·개선점	기초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
운영방안 적용	공동체 협의 및 합의를 통한 개선사항 우선 추진	내부추진 한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상위조직에 정책 건의 또는 장기적 개선과제로 설정
추가 활용	홈페이지 등 보유 채널을 통해 운영방식의 변화를 지속적 알림	연간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 유도 및 관련 내용 아카이브화
기대효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예술인 중심 운영의 추진 동력 및 지지 확보	창작환경의 실질적 개선으로 기초예술 분야 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중요성 및 위상 강화

- (초기) 사업의 정착 및 내재화를 위해 원활하고 실질적인 활동 중심으로 운영
 - 원활한 협력공동체 구성과 활동을 위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당해 (또는 직전) 연도의 대관 단체(예술인) 대상 시행
 - 대관 단체(예술인) 대상 대관 운영과 관련된 의제설정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운영방안에 적용
 - 협력공동체 운영의 효능감 제고를 위해 실행가능성을 고려하며, 공동체 협의 및 합의를 통한 내부 개선사항 위주의 주제 선정
 - 선정된 주제와 운영방안 변화에 대한 지속적 알림 필요(보유 채널 활용)
- (중장기) 기초예술 분야 속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중요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기초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운영
 - 모든 기초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환경 개선 관련 다양한 의제설정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이를 운영방안에 적용
 - 내부추진 한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상위조직 정책 건의하여 창작환경 개선 관련 지속적 이슈화 주체로 역할하거나 내부 장기적 개선과제로 설정
- (추진시기) 보유 공간 활용으로 관련 조직 마련 시 시행 가능 (단기과제)
- (연계방안)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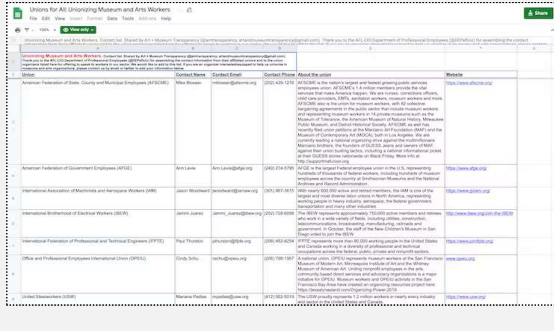
[표 6-3] 기초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협력공동체' 연계방안

사업 연계		• '대관운영체계 개선'의 고려사항으로 활용
본 사업 요소 연계	개선방안 논의	• (예술인) 기초예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운영방안 적용	• (타 극장) 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공공극장 운영 토론회 개최


예시사례

□ 문화·예술계 노동연대, Art + Museum Transparency 연합

- 2018년 더 나은 예술 생태계와 박물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형평성 증진을 위해 결성, 큐레이터·투어가이드 등 박물관 스태프 대상 임금 인상 및 근무 조건 개선과 무급 인턴의 처우 개선을 요구
- 근무지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및 포지션 등을 포함한 임금 스프레드시트 개방, 이사회에의 다양성 추구를 위해 구성현황 요구
- 또한, 더 나은 교육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 예술가들이 보다 공평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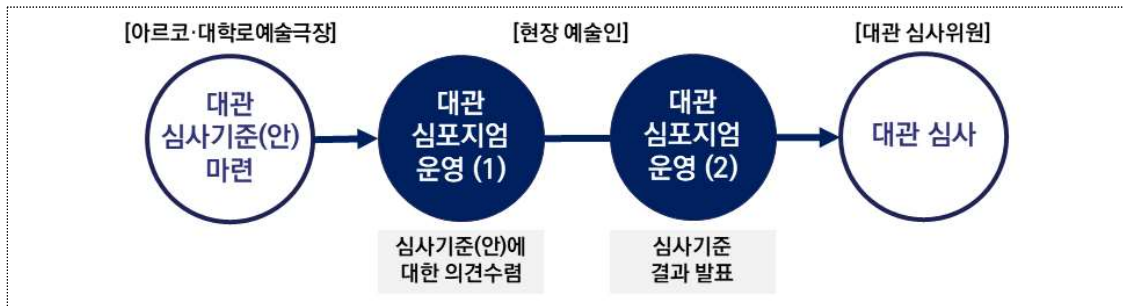
Name	Contact Name	Contact Email	Contact Phone	About the union	Websit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ookbinders (IAB)	John Lewis	johnlewis@iab.org	(202) 637-1212	IAB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bookbinders and related professions. IAB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IAB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bookbinders and related professions. IAB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www.iab.org
National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NFFE)	Ann Lewis	annlewis@nffe.org	(202) 637-1212	NFFE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NFFE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NFFE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NFFE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www.nffe.org
National Association of Museum and Heritage Workers (NAMH)	John Lewis	johnlewis@namh.org	(202) 637-1212	NAMH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museum and heritage workers. NAMH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NAMH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museum and heritage workers. NAMH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www.namh.org
National Brotherhood of Bookbinders (NBB)	John Lewis	johnlewis@nbb.org	(202) 637-1212	NBB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bookbinders. NBB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NBB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bookbinders. NBB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www.nbb.org
National Federation of Professional and Technical Engineers (NFPE)	Paul Thomas	pthomas@nfpe.org	(202) 637-1212	NFPE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professional and technical engineers. NFPE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NFPE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professional and technical engineers. NFPE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www.nfpe.org
Other and Professional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OPEIU)	John Lewis	johnlewis@opeiu.org	(202) 637-1212	OPEIU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other and professional employees. OPEIU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OPEIU is the largest national union in the U.S. representing other and professional employees. OPEIU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www.opeiu.org



2) 다양성을 위한 대관 심포지엄 운영

- **(의미 및 목적)** 대관 공연의 다양성(작품, 예술인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관 제도, 대관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운영
- 대관 제도 및 심사기준 설정에 대관 당사자인 예술인이 참여하고 설정함으로써,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차별적인 예술인을 위한 공간임을 강조
- 대관 제도 및 심사기준 설정에 예술현장의 흐름과 현장성을 반영
- **(운영방안)** 대관 심사기준 마련 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심사기준(안)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대관 심포지엄 운영

[그림 6-2] 다양성을 위한 대관 심포지엄 운영방안 개요



- 다양한 예술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심포지엄 개최 시 온·오프라인 운영
- 대관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심포지엄과 의견을 반영하여 대관 심사기준을 공표하는 심포지엄으로 2회 개최
 - 대관 심사기준을 공표하는 심포지엄의 경우 기존 정기대관 모집공고 계기 활용
- 대관 심사기준 결과 발표 시 예술인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임을 강조
 - 대관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대관 운영의 방향성(예술인 중심의 안전한 창작환경 지원) 강조

[표 6-4] 다양성을 위한 대관 심포지엄 운영 세부사항

대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작품과 예술인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관 기준 마련 • (절차)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심사기준(안)을 토대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규정, 공연 운영지침 설명 - 공연장 운영규정 외의 극장이 설정할 수 있는 대관 기준에 대한 논의 • (기대효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공감 제고
심사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정기대관을 통해 추구하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 • (절차)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설정한 주요 가치를 토대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견이 다르므로, 예술극장 측에서 특정(5~10개) 가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 • (기대효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추구 가치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예술인과의 접점 강화

- (추진시기) 정기대관 모집 공고 이전 3개월 전 시행 (단기과제)
- (연계방안) 기존 운영 중인 다양한 협의체 활동과 연계하여 함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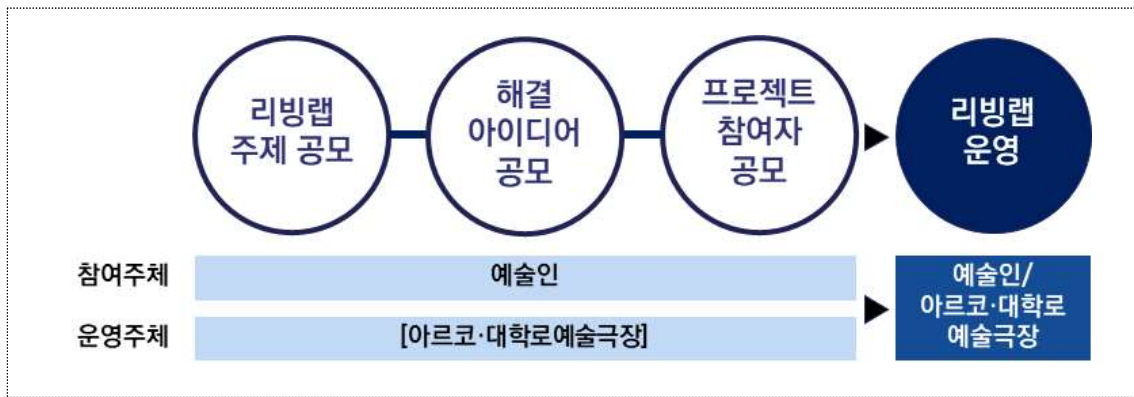
[표 6-5] 다양성을 위한 대관 심포지엄 연계방안

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운영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활용 • ‘정기대관 모집 공고’ 계기를 활용 • ‘대관 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운영하나, 참여도 가능하게 운영
-------	--

3) 기초예술인-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파트너십 리빙랩 운영

- **(의미 및 목적)**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의식이 있는 기초예술인이 스스로 문제의 해결법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리빙랩 운영
 - 리빙랩이란, 생활 속 문제를 당사자가 해결해보는 실험사업을 의미하며, 만성적인 생활문제 해결을 당사자가 함으로써 해당 문제의 관심을 유발하는 목적 또한 보유
 - 문제 제기과 해결을 통한 안정적 창작환경의 조성과 함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내부직원이 주요 참여자로 활동하여 예술인과의 파트너십 강화
- **(운영방안)** 애로사항, 해결 아이디어, 실행 예술인 3단계의 모집 과정을 거치며, 리빙랩 운영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내부직원이 함께 참여

[그림 6-3] 기초예술인-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파트너십 리빙랩 운영 개요



- 기초예술인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겪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 참여자를 선정하여 예산 및 조직을 지원
 - 리빙랩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문제의식을 확산할 수 있으므로, 주제 선정 시 일상적이고 만연한 문제점 선택이 필요
- 예술인과의 현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리빙랩 운영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내부직원 참여 필요
 - 단순한 예산 및 조직 지원이 아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과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

[표 6-6] 기초예술인-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파트너십 리빙랩 운영 세부사항

사전운영단계	리빙랩 주제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창작환경에서 만연하며 지속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공모 • (방식)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보유 채널을 활용해 온라인 공모 • (선정) 공모된 주제 중 내부역량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부에서 주제 선정
	해결 아이디어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운영) 해결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리빙랩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참여자 모집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 - 리빙랩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여 관심도를 제고 • (방식)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보유 채널을 활용해 온라인 공모 • (선정) 공모된 해결 아이디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온라인 투표로 아이디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선정 과정에서 해당 아이디어 제출자를 주요 프로젝트 참여자로 사전적으로 접촉 - 투표 시 동의를 통해 향후 프로젝트 참여자를 미리 접촉하며 리스트업

	<p>프로젝트 참여자 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공개모집과 섭외를 동시에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 아이디어 공모자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모집을 도모 - 공개모집에 참여자를 우선 선정 - 참여자 부족 또는 향후 리빙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 내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섭외를 동시 진행
<p>운영 단계</p>	<p>리빙랩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창작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또는 관심 제고)과 기초예술인과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의 파트너십 강화 • (운영) 3개월 간 운영과 과정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1개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조사 및 준비단계 - (중기-1개월) 해결 아이디어 적용 및 실질적인 행동 단계 - (후기-1개월) 활동을 피드백하여, 활동 변경 또는 강화 - 활동 단계별 간이 보고서 형태로 활동 과정 공유
<p>사 후 단계</p>	<p>성과 확산 및 이슈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창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관심 제고 • (운영) 리빙랩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빙랩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확산 - 리빙랩 활동의 현장 스케치를 통해 관련 홍보 콘텐츠로 활용

■ (추진시기) 리빙랩 운영을 위한 조직, 예산 확보 후 시행 가능 (중기과제)

■ (연계방안) 기존 운영 중인 다양한 협의체 활동과 연계하여 함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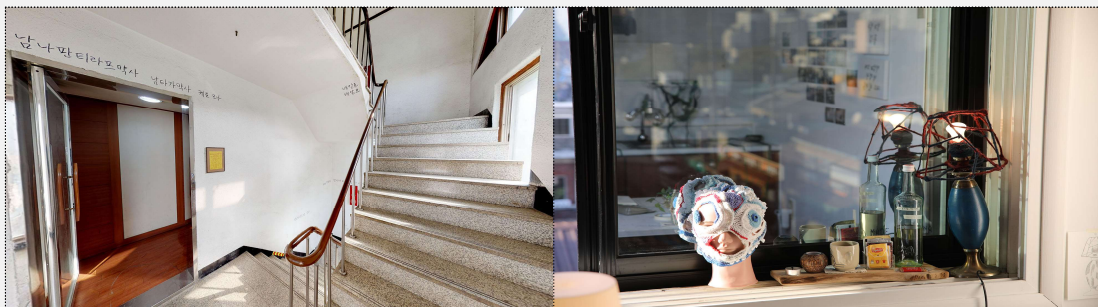
[표 6-7] 기초예술인-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 파트너십 리빙랩 연계방안

<p>본 사업 요소 연계</p>	<p>리빙랩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협력공동체'를 통해 주제 사전수집 • 리빙랩 과정과 결과를 기초예술인 정책 지원을 위한 청원 시스템 구축에 활용
-------------------	---------------	--

예시사례

□ 아트프로젝트 텃빈곳 '개인전' - 예술인 도시재생 리빙랩

-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술인의 아트프로젝트를 진행함, 공간의 미래가 예술창작자들에게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전시
- 예술인에게 공간이 필요하나 사회에서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창작자의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폐허 같은 공간을 예술인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 문제의식 전달



□ 자원 순환예술 실현 - 예술인 사회적 가치 리빙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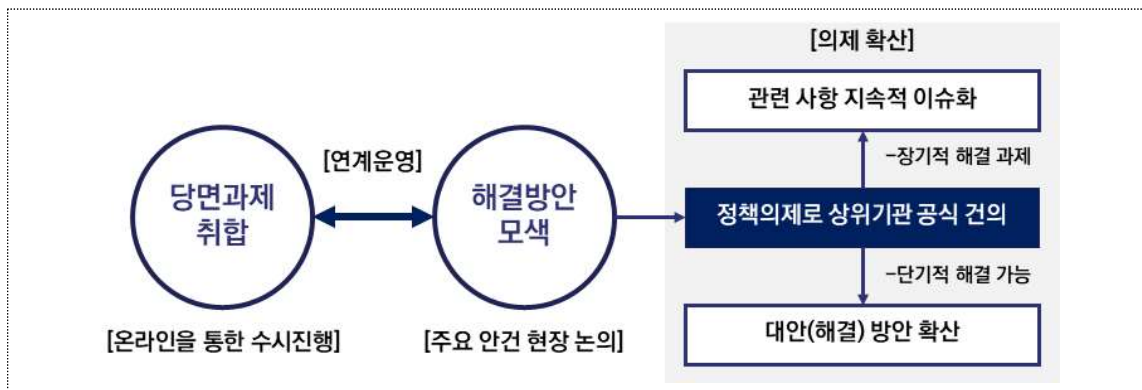
-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과 예술의 결합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제품 및 소품으로 디자인, 윤리적 소비 증진과 환경보존의 중요성 확산
- 주민 참여로 수거한 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를 다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으로 구현,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기후위기 시대 개인의 실천 확대



4) 기초예술인 정책 지원을 위한 청원 시스템 구축

- **(의미 및 목적)** 기초예술인이 개별적 해결이 어려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 및 논의공간(온오프라인 시스템) 운영
 - 기초예술 분야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취합 및 누적
 - 다양한 예술인의 참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 운영
- **(운영방안)** 애로사항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이 일정 부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정책의제로 문체부, 예술위 등 관련 상위기관에 공식 건의 추진과 함께 대안(해결) 방안 확산

[그림 6-4] 기초예술인 정책 지원을 위한 청원 시스템 구축 운영



- 공연예술 부문 현안 사항과 함께 이 외의 애로사항 수시 건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주요 안건에 대해 협력공동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하는 오프라인 포럼을 개최
 - 포럼의 온라인 송출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
- 단기적 해결 가능 또는 해결 안건에 대해서 대안(해결)방안에 대한 예술인(단체), 타 공공극장 전파
- 장기적인 해결 과제 또는 해결을 위해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이슈화를 도모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현장 의견을 담아 기초예술인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언급하고, 상위기관 등에 해결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

[표 6-8] 기초예술인 정책 지원을 위한 청원 시스템 구축 세부사항

주요 논의 주제	관련 주요 활동
외부요인으로 인한 공연중단 사태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지속보장법 • 극장 재난대처
사회 변화 속 공연예술의 고려요인과 애로사항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시대 공연예술 대응 • 공연예술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 **(추진시기)** 단기적으로는 의견수렴과 대안방안 확산의 협의체로 운영, 장기적으로는 활용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필요 (단기과제)
- **(연계방안)** 다양한 협의체 등을 통해 도출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취합

[표 6-9] 기초예술인 정책 지원을 위한 청원 시스템 구축 연계방안

본 사업 요소 연계	청원 시스템	• 창작환경 개선 '협력공동체'에서 제시된 의견을 함께 취합 및 누적
		•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으로 리빙랩과 연계하여 시행

2. 예술인 분야 세부 실행과제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극장의 노후화로 인한 기초예술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의 개선에 대한 현장요구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최근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창작방식과 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 또한, 기존 공연장을 목적으로 한 시설물이 아닌 한계로 관객 및 예술인의 편의 및 장애인 등 다양한 주체의 상연을 지원하기 위한 무대여건을 고려한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 인프라적인 측면의 창작여건 외에 타 분야의 예술인 또는 전문가와의 관계 형성의 기회가 낮은 개별 예술인의 경우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교류를 통한 창작활동의 범위와 전문성 제고에 대한 니즈가 존재
전략과제	세부 사업
다양한 기초예술 창작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예술인 중심의 인프라 개선	5. 예술인(창작자) 중심의 인프라 개선 6. 중단되지 않는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화 역량 강화
다양한 창작활동에 대한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예술인 간, 타 분야와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	7. 타 분야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극장 파트너즈' 운영 8. 기초예술인 소통 및 창작 공유 공간 '창작 실험실' 운영 9. 기초예술 국제교류 강화

1) 예술인(창작자) 중심의 인프라 개선

- **(의미 및 목적)**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노후화 등 인프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가운데 안정적 창작환경 마련을 위한 예술인(창작자) 중심의 인프라 개선 필요
- 단순한 시설의 개선 측면이 아닌 다양한 예술인의 제약없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이용을 위해 배리어 프리, 창작을 위한 다양한 시설 구비 등 예술인 차원의 인프라 개선 필요
- **(운영방안)** 예술인의 다양한 창작 시도, 편의성 개선, 안전 확보 차원의 인프라 개선 필요
- 공간적, 기술적 한계 또는 장비 문제로 인해 예술인의 다양한 창작 시도가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내부의 공연과 준비과정에서 예술인의 편의성, 안전 확보의 부족한 지점 존재
- **(추진시기)** 공간 리모델링 예산 및 기간 확보가 필요한 장기적인 추진 필요(장기과제)

[표 6-10] 예술인(창작자) 중심의 인프라 개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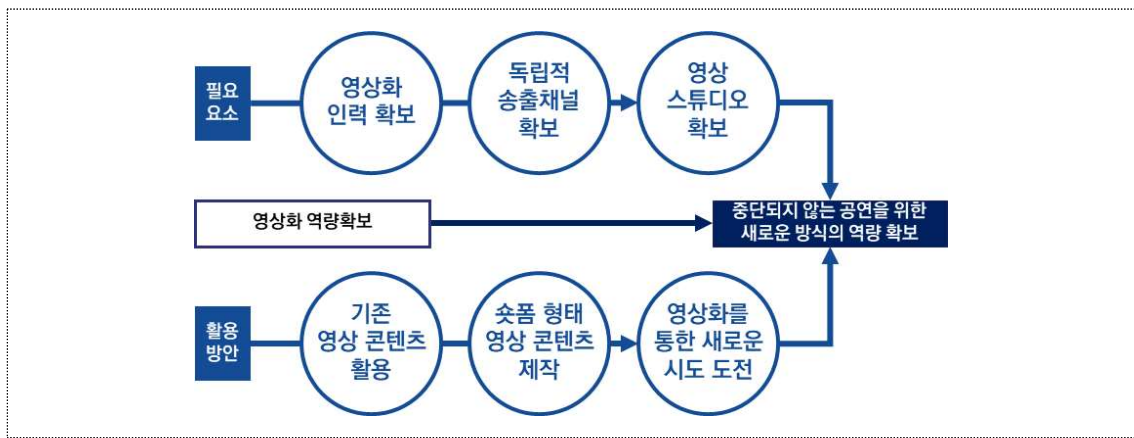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다양한 창작 시도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복합, 4차산업 기술 적용 등 다양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르코의 경우 시설 문제로 다양한 시도 제한 극장 자체가 오래되어서 다른 신생 극장과 같이 기술력 및 새로운 시도 어려움 아르코예술극장 사이즈에 맞는 4차산업 기술을 가지고 오기 어려움, 대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를 시도하는 단체들에게 물리적인 환경 제공이 필요 어느 극장이든 1층이 가장 중요, 예술인들이 스트레스 풀고 활력을 넣는 제3의 장소로 활용이 필요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마당과 다락은 극장의 미션이나 취지에 맞게 실험적인 작품을 시도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필요 배리어프리, 기후변화 등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해온 사업들에 공간 지원 역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멈추지 않는 공연예술 측면에서 촬영본 송출 공간 및 메타버스 활용도 방안 • 대부분 극단이 극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공연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필요 • 로비에서 조명과 장치 없이 1인극 가능한 공간 마련
편의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휴게공간 부족 및 분장실 노후화 • 공연장 구성에 급급하다 보니 부대시설 및 극장의 공간 부족 심각 • 씨어터카페를 예술가들의 회의 공간(네트워킹 공간)으로 다시 활용해야 할 필요성 • 하늘 스튜디오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시 이후 사용이 불가능해 리서치 작업조차 어려움 • 극장이 시간, 내용, 주제 등을 정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기보다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예술가들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다락방 같은 장소 필요 • 기본 객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연 형태와 관객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즐기는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 비해 극장은 관객의 시야 각도를 이유로 500석 중 100석이 사석, 대관단체들의 불만 多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계 소식 전달과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광장으로서 아코예술극장 로비 활용이 필요 •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튜브 스튜디오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소통공간 및 자료 축적 공간으로 활용이 필요
안전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로예술극장은 애초에 상가였던 건물을 극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연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방음, 소음 문제 심각
	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문제나 장비 여건 문제로 할 수 없는 것들 많음, 방염처리도 극장에서 선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방염처리가 되지 않는 장비 존재 • 노후화 문제로 장애인 배우 안전 문제 대두

2) 중단되지 않는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화 역량 강화

- **(의미 및 목적)** 상연공연의 단순 영상화가 아닌, 영상을 통한 새로운 시도 또는 해석이나 극장 무대의 대안 가능성 모색을 위한 공연 영상화 추진
- 영상을 통한 새로운 시도, 해석을 도모함으로써 기초예술의 저변 확대 도모
- 외부 이슈로 인한 공연중단 사태 시 해결 대안 모색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시도를 시험
- **(운영방안)** 아코·대학로예술극장 내 상연작품을 영상화할 수 있는 스튜디오 운영 및 온라인 공개 독립 채널 운영 (공연 영상화 및 송출 플랫폼 개선)

[그림 6-5] 중단되지 않는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화 역량 강화 운영 개요



- 공연 영상화를 위한 관련 인력(영상 PD, 음향 엔지니어 등) 확보와 영상화를 위한 추가 공간 마련
- 아코·대학로예술극장 상연작품 이외도 기초예술 공연의 영상화 독립적으로 지원 (물리적으로 유한한 무대 인프라에 기반하지 않는 지원 대상 확대)

[표 6-11] 중단되지 않는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화 역량 강화 유사사례와 비교

구분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	아코·대학로예술극장 영상 역량 강화(안)
운영방식	상연 공연의 온라인화	관객 요청에 따른 개별 예술인의 작품 영상화	영상을 통한 작품의 새로운 해석 도전
목적	공연 송출의 새로운 시도 공연 관람의 향유기회 확대	우수 콘텐츠 영상기록화 작품 향유기회 확대	중단되지 않는 공연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송출 플랫폼	별도 채널 운영	내부 유튜브 활용	별도 채널 운영 필요

- (추진시기) 온라인 극장 운영을 위한 공간, 조직, 예산 확보 후 시행 가능(장기과제)
- (연계방안) 기진행 중인 영상 콘텐츠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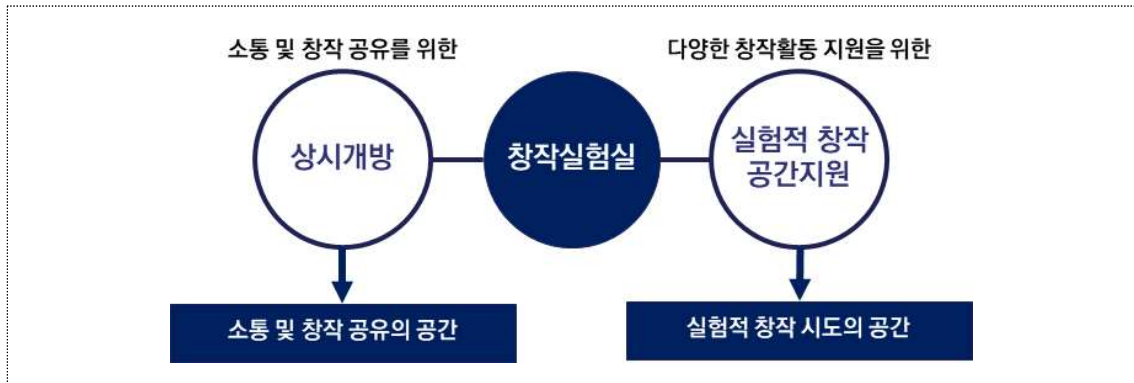
[표 6-12] 중단되지 않는 공연을 위한, 공연 영상화 역량 강화 연계방안

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댄스 필름, 팔로우 스팟, 다큐/숏필름, 온라인 오픈 리허설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독립적 송출채널 확보 • 읽는 극장을 활용하여, 리뷰와 낭독을 통한 기초예술의 표현방법을 새롭게 시도
-------	--

3) 기초예술인 소통 및 창작 공유 공간 ‘창작 실험실’ 운영

- (의미 및 목적) 기초예술인 간 소통 및 창작과정 공유를 통해 개별 예술인의 창작 활동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실험공간을 개방 및 운영
- 예술 활동의 결과(공연)를 넘어 창작과정을 지원하여 아르고·대학교예술극장의 예술인과의 관계접점을 강화
- (운영방안) 예술인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상시 공개형 공간으로 운영

[그림 6-6] 기초예술인 소통 및 창작 공유 공간 운영 개요



- 기초예술인이 모여 소통 및 창작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상시 개방
- 다양한 창작을 실험할 수 있도록 소규모 무대 또는 관련 공간 운영

[표 6-13] 기초예술인 소통 및 창작 공유 공간 운영 세부사항

운영 고려사항	세부내용
공간 유인요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예술위가 보유한 기초예술 해외사례, 트렌드 등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간된 자료의 경우 해당 공간에 배치 • (소통 강화) 관심 주제에 맞추어 소규모 토론, 논의 세션 운영 • (관계확장) 연극인, 무용인 등 타 분야 예술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미팅 운영
실험적 창작공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내 소규모 무대 설치로 창작자의 실험 현장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적 창작 활동의 결과를 아르고·대학교예술극장에서 영상으로 기록하여 전달 - 예술에 새로운 기술 접목을 위한 소규모 실험을 위한 장비 또는 인프라 구축 - 실험적 창작 활동의 결과를 아르고·대학교예술극장에서 상연

- (추진시기) 창작 실험실 운영을 위한 공간, 예산 확보 후 시행 가능 (중기과제)
- (연계방안) 추가 공간 확보가 단기간 내 어려운 경우, 씨어터 카페를 교류 역할 장소로 활용

[표 6-14] 기초예술인 소통 및 창작 공유 공간 연계방안

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어터 카페 (공간 유인을 위한 이점 제공 필요) • '관객과의 대화'를 해당 공간에서 진행 • '아티스트 토크'를 해당 공간에서 진행 - 외부매체 연계 인터뷰, 홍보'에서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홍보를 함께 병행
본 사업 요소 연계	창작의 실험	(예술인) 실험적 작품 상연 (기초예술 분야) 예술과 기술 간 융합 시도를 위한 인프라 마련

예시사례

□ 낭독극 시리즈, 뉴욕 라마마 극장

- 작가가 실험적인 창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낭독극 시리즈 및 포럼 개최
- 작가와 신진 예술가 간 협업을 통해 新작품 낭독극 개최, 관객들의 발전적 피드백 공유 및 상호교류가 가능한 기회 제공
- 관객 개발 및 연간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못한 소규모 극장에서 예술인 중심의 프로그램 마련, 관객과의 접점 확대



□ 예술 공간지원, 영국 켄트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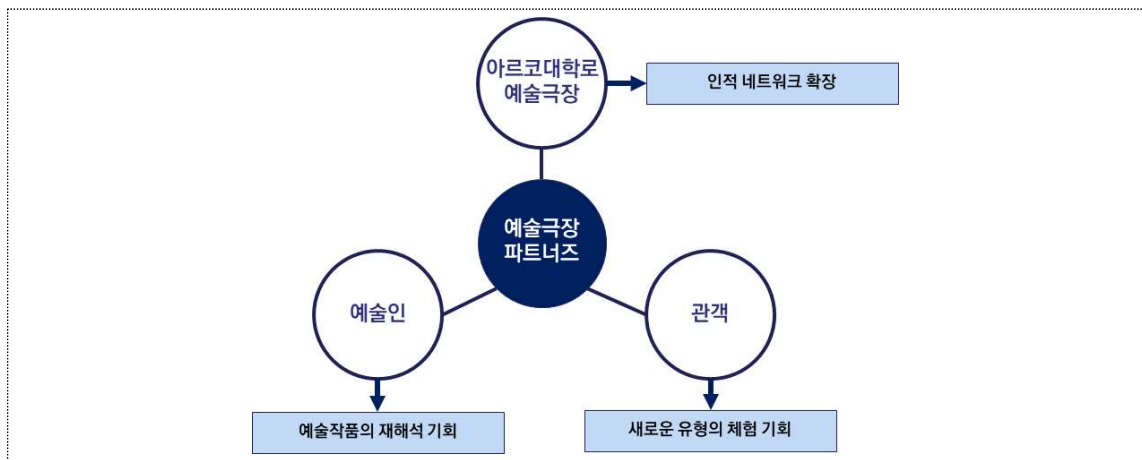
- 스튜디오, 갤러리 및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 조성
- 예술창작 공간으로서 역할과 동시에 학제 간 소통 및 학생들 간 교류 거점 등 유연한 공간으로서 역할 기대
- 전시, 공연 등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과 동시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개방된 형태



4) 타 분야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극장 파트너즈' 운영

- (의미 및 목적) 학문, 문화이론가와의 만남을 통해 예술작품의 재해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운영
- 타 분야의 예술작품 재해석 과정으로 예술인과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 제공
-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타 분야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이를 예술인(단체) 개별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활용
- (운영방안) 분기별/반기별 타 분야 전문가 초청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관련 다양한 관계 점점 확대

[그림 6-7] 타 분야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극장 파트너즈' 운영 개요



- 대관단체(예술인) 대상 연 단위 콘셉트 선정을 통해 인문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을 비롯해 응용, 실용 학문에 이르는 광범위한 타 분야 전문가와 작품 프리뷰 및 리뷰 진행
-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신규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 누적하여 향후 협력 체계 마련

[표 6-15] 타 분야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극장 파트너즈' 세부사항

대상	기대효과	세부내용
예술인	작품 재해석 경험을 통한 새로운 창작 인사이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재해석) 인문학, 자연과학 등 학문을 통한 작품 재해석 경험 • (전문가 교류) 예술 외 타분야의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관객	예술작품에 대한 새로운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체험) 예술작품 향유에 있어 확장적인 새로운 경험 체험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인적 네트워크 확장 및 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네트워크) 예술 분야 이외의 전문가들과 새로운 접점 형성 - 예술극장에서 운영 중인 프리뷰 프로그램 등에 참여자로 섭외 • (관객 접점 확산) 타 분야 전문가(작가, 문학가 등)의 관객(독자) 대상으로 기초예술의 체험기회 확대

- (추진시기) 예술극장 보유 네트워크를 활용으로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 가능 (단기과제)
- (연계방안) 해당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여 관객의 관심 유도과 예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방안 마련
- 작품 관람 예정 또는 관심층 관객 초청 등 모객 홍보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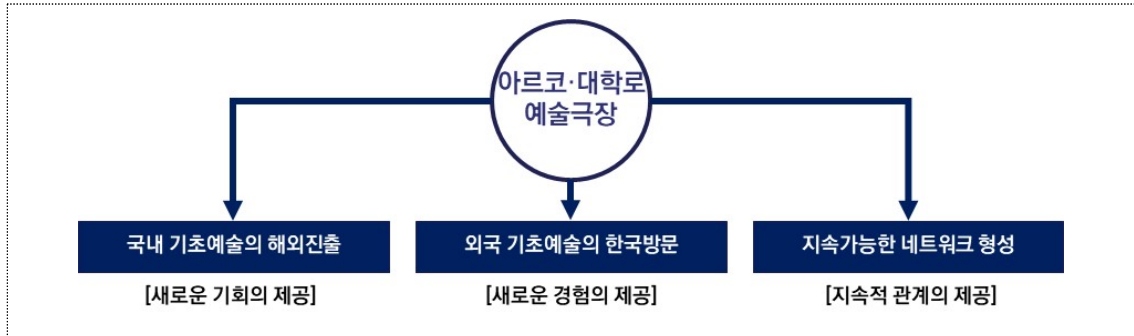
[표 6-16] 타 분야 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술극장 파트너즈' 연계방안

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작가, 겨울 무대' 작가와 협업 • 아르코 라이징 스테이지 • '대학로 다락방', '읽는 극장'의 참여자로 활용
-------	---

5) 기초예술 국제교류 지원 강화

- (의미 및 목적) 예술인 개별 또는 단체 단위의 국제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보유 네트워크 및 역량을 활용한 기초예술 국제교류 지원을 강화
- (운영방안) 해외 주요 극장 또는 단체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그림 6-8] 기초예술 국제교류 지원 강화 운영



- 기초예술인의 리서치, 공동협업작업, 초청사업 등 국내외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기초예술교류 활동을 지원
 - 기초예술 결과(작품)의 교류뿐만 아닌 전반적인 기초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의 창작과정 속의 모든 부분의 교류를 지원
 - 기초예술교류 활동 지원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활동에 대한 단편적 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측면의 지원수행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및 예술위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해외 창작 플랫폼을 개발하여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

[표 6-17] 기초예술 국제교류 지원 강화 세부사항

부문	고려사항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상대적으로 역량을 보유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협단체와 그렇지 못한 민간단체 간 지원의 균형유지 필요 • (대상 확대) 해외 연출가, 예술가 등을 초청하는 경우 국내 예술인의 교육과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확산성을 고려
국제교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확대) 국제워크숍, 국제심포지엄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해당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공개함으로써 많은 예술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

■ (추진시기) 예술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단기과제)

예시사례

□ 아시아 문화위원회(ACC), 개인 펠로우십

- 아시아와 미국의 예술가 간 문화·예술 분야의 상호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예술가에게 3~6개월간 아시아, 미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연구(워크숍) 경제적 지원 및 창작활동 기회 제공
- 교환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작품 창작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 능력 확장
 - 학술적 또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 확대

□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아티스트 교류 프로그램

-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 무용단인 아메리칸 발레시어터-덴마크 왕립발레단-영국 로열 발레단 간 아티스트 교환 프로그램 진행
- 무용수들에게 낯선 환경에서의 무대 경험 제공 및 타 발레단 스타일의 기술 및 다양한 표현력 연마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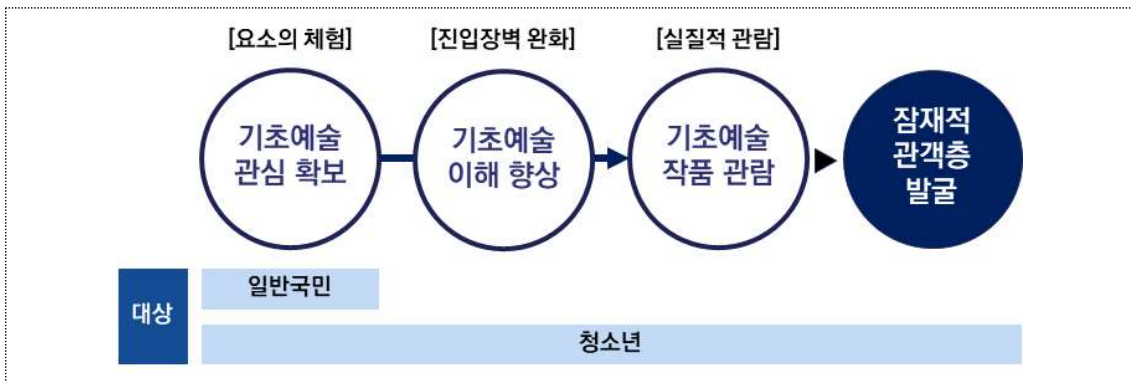
3. 관객/일반국민 분야 세부 실행과제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예술의 경우 창작자 중심의 자유로운 창작과정 지원에 집중함에 따라 창작결과물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가 어려운 한계로 인해 올바른 기초예술 수요를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가 필수 또한, 전반적인 낮은 관심의 기초예술 확산을 위해 예술극장이 위치한 대학로 내 일상생활 속 높은 접근성을 활용한 역할 기대 	
	전략과제	세부 사업
	기초예술에 대한 이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초예술에 대한 교육 및 큐레이션 기능 강화	10. 청소년의 예술함양 능력 정진을 위한 기초예술체험학교 운영
	대학로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기초예술 확산을 위한 기초예술 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 확대	11. 마로니에 공원 연계 '예술극장 주간'(페스티벌) 운영 12. 예술 복합공간 전환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

1) 청소년의 기초예술 함양 제고를 위한 기초예술체험학교 운영

- (의미 및 목적) 청소년이 기초예술을 체험하고, 기초예술 관람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초예술 이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의 잠재적 관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예술 분야의 기반조성에 기여
- (운영방안) 기초예술 구성요소와 특정 작품을 매개로 '관심-이해-관람'의 연속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림 6-9] 청소년의 예술함양 능력 정진을 위한 기초예술체험학교 운영 개요



- 기초예술의 '이해'를 중요 포인트로 설정하여 기초예술체험학교를 통해 실제적인 기초예술 '작품의 관람'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

■ (추진시기) 운영을 위한 조직, 예산 확보 후 시행 가능 (중기과제)

[표 6-18] 청소년의 예술함양 능력 정진을 위한 기초예술체험학교 운영 세부사항

단계	목적	세부내용
관심	기초예술에 대한 흥미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미 유발) 연극, 무용 요소(움직임, 표현 방식) 직접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관심 확장) 관심 단계의 프로그램은 일반시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로니에 공원 등 야외공간을 활용하며, 당일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 관련 접점을 지속 확장
이해	기초예술에 대한 중요성 공감 기초예술 관람을 위한 이해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적 배경) 기초예술의 역사, 배경 등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배경지식 교육 수행 • (실질적 이해) 기초예술의 최근 트렌드, 방향성 등 실질적 관람에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작품을 매개로 관람을 위한 교육 수행
관람	기초예술의 실질적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상연공연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 후 원작자의 프리뷰 등을 함께 수행하여 대상 공연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향후 지속적 관람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멤버십 운영

■ (연계방안) 기진행 중인 청소년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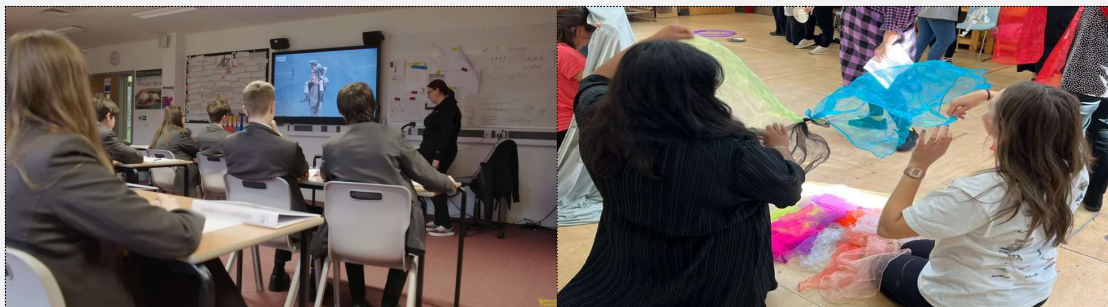
[표 6-19] 청소년의 예술함양 능력 정진을 위한 기초예술체험학교 운영 연계방안

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워크숍’, ‘스테이지 투어’ 등을 관심 단계의 운영과 연계하여 활용
-------	--

예시사례

□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국 국립극장

- 영국 국립극장은 영국 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작품 영상 제공 및 연령, 관심분야를 반영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예술적 소양 함양
- 학기 말 짧은 학생들이 짧은 주제를 가지고 공연할 수 있도록 교직원 대상 워크숍 진행 및 교육 자료 제공
- 극장 조명음향비디오 등 기술 워크숍(14-18세), 연극을 위한 글쓰기 수업(16-21세), 무대 관리 및 기술 실습(18-25세, 전공자 기준)



□ 문화예술 향유 및 이해 능력 신장 교육,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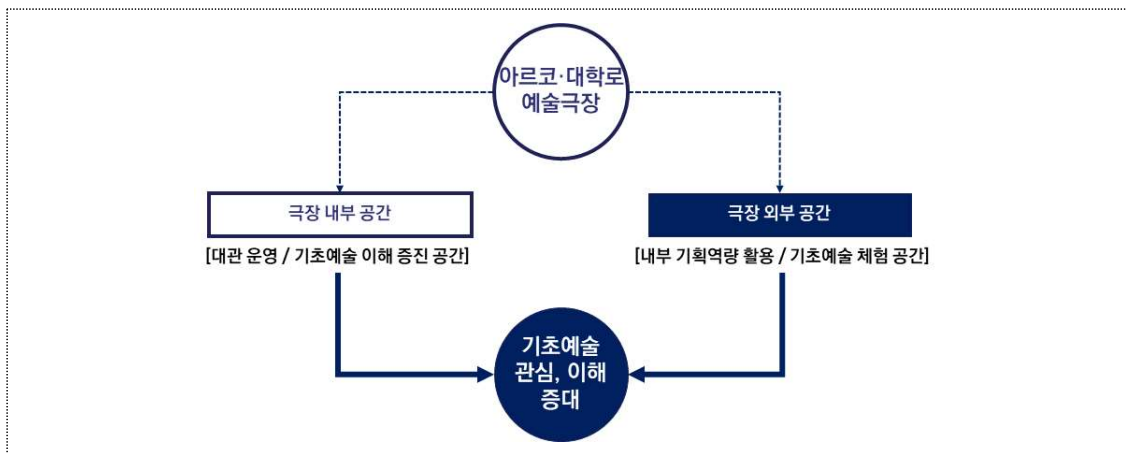
- 독일의 경우 문화예술 향유 및 이해 능력 신장을 위해 기초학교부터 일반계 중등학교(김나지움) 과정까지 미술을 포함한 예술교육 관련 수업을 비중 높게 진행
- 학교는 학교 외부의 예술공간(박물관, 극장, 음악당 등)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적 감수성 자극
- 특히, 연극의 경우 재학 기간 동안 연극제·연극 동아리·무대 관리 기술 교육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예술에 대한 접점 확대



2) 마로니에 공원 연계 '예술극장 주간'(페스티벌) 운영

- **(의미 및 목적)** 대학로 유동인구 대상 단편적 체험기회 확산을 위해 극장 외부공간을 활용한 페스티벌을 연중 상시 운영
 - 외부 페스티벌 형태로 활용하여 아르크·대학로예술극장 내부 기획역량 확보 및 발전
 - 관객에게는 기초예술의 체험기회 확산과 관심을 유도하며, 예술인에게는 새로운 예술 활동 기회와 공간을 제공
- **(운영방안)** 예술극장 내부의 기획역량을 외부 페스티벌 형태로 활용

[그림 6-10] 마로니에 공원 연계 '예술극장 주간'(페스티벌) 운영 개요



- 예술극장 내부의 기획역량을 세부 프로그램 형태로 활용하여 야외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수행
 - 연극, 무용 버스킹 등 참여 의사가 있는 예술인과 협업 및 활동 지원
 - 야외를 활용한 짧은 연극이나 무용 또는 설명회 등을 운영

[표 6-20] 마로니에 공원 연계 '예술극장 주간'(페스티벌) 운영 세부사항

세부 프로그램(안)	세부내용
무대 외 공간을 활용한 실험적 공연 시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아르크·대학로예술극장의 공연장을 제외한 공간(계단, 연습실, 카페 등)에서의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실험적인 연극 또는 무용을 기획 • (방식) SNS 또는 온라인을 통해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공연 당일 오프라인에서는 게릴라성 홍보를 진행 • (협업) 해당 기획 취지를 설명하여 이에 공감하는 예술인을 사전 섭외 후 진행하며,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기획하여 많은 인원이 모임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 (확장) 아르크·대학로예술극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종로구), 대학로 내 타 극장 등과 연계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확장을 도모
아르크예술극장 방문을 위한 팝업 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팝업 공연) 마임, 모노드라마 등 비교적 활동반경이 작고, 소수로 진행할 수 있는 공연을 중심으로 아르크예술극장 앞마당 또는 마로니에 공연을 통해 야외 팝업 공연 진행 • (예술극장 체험) 정해진 시간에 공연을 진행하여 기대감을 증폭시키며, 해당 공연을 통해 아르크예술극장 내부를 방문하도록 유도 • (정보 제공) 아르크예술극장에 관심, 관여도가 낮은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간을 체험하도록

	<p>록 하며, 이 과정에서 공연 포스터, 공연예술 소식지 등 지속적 관심 유도를 위한 팸플릿 등을 제공</p>
<p>야외 간이 홀로그램 공연(장) 운영 (1~2분의 인물 중심 편집 영상 송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홀로그램) 관심 및 흥미 높은 기술콘텐츠와 연계한 단편적 연극, 무용분야의 공연예술 경험을 제공 (야간) • (야외) 대학로 및 마로니에 공원 유입인구 대상 배우, 무용수 등 인물을 중심으로 단편적 경험을 제공 • (포토타임) 사진/영상을 통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포토타임 (정지 홀로그램) 구성 (LED 빛으로 포토타임 표시) • (극장유입 활성화) 이색 콘텐츠를 통한 극장 내 다양한 체험 대상자 유입 활성화 (극장 내부로의 유입 확대)
<p>“당신에게 전하는 말과 몸짓” 아르고 공연예술 포춘퀴기형 홍보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여도) 공연예술의 세부 요소 콘텐츠(무대배경, 몸짓, 대사)를 개인의 생활, 상황, 고민과 연계를 통한 관여도 제고

■ (추진시기) 마로니에 공원 활용을 위한 사전협의 및 내부 조직 확보 후 시행 가능 (중기과제)

■ (연계방안) 야외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대안 공연장으로서의 실험(공연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예술극장 주간을 활용한 야외 공연 (실험적 공연) 지원

[표 6-21] 마로니에 공원 연계 '예술극장 주간'(페스티벌) 운영 연계방안

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 프리뷰' 등을 야외에서 진행하며 해당 사업과 연계
본 사업 요소 연계	예술극장 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예술함양 능력 정진을 위한 기초예술체험학교과 연계하여 운영

3) 예술 복합공간 전환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

- (의미 및 목적)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을 공연 관람 공간을 넘어 기초예술의 복합적 체험공간으로 전환
- 기존 보유 자원(공간)의 효율적 활용 외에도 향후 리모델링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운영방안) 예술 복합공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요소 강화 또는 리모델링

[그림 6-11] 예술 복합공간 전환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 개요



- 기초예술 체험 접점 확대를 위해 기존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
 - 공연장 이외 공간인 로비, 외벽, 씨어터카페 등 추가적인 공간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반 국민 대상 기초예술 체험 접점 확대를 도모
- 미래형 공공극장으로의 리모델링을 위해, 수요자 측면의 개선사항 지속 누적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 공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 필요
 - 공연장 내부의 VOC, 공연/창작자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 의견 지속 누적
 - 배리어프리, 기후극장 등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과 미래 공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 수집 및 누적

[표 6-22] 예술 복합공간 전환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 세부사항

목적	세부내용
기초예술 체험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활용) 아르코예술극장의 외벽을 활용한 홀로그램, 영상 송출을 통해 기초예술 작품에 대한 관심도 제고 • (로비 활용) 관객 외의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근처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로비의 조도 개선, 기초예술 관련 안내시설물(키오스크, 책자, 팸플릿 등) 배치 강화 • (씨어터 카페) 씨어터 카페 운영 시 기초예술의 요소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작품 프리뷰 또는 리뷰 등 공개형으로 운영)
미래형 공공극장으로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화) 81년 개관 이후 부분적인 시설 개보수만 이루어져 공연장 자체의 리모델링 필요성 대두 • (수요자 의견) 관객 대상 VOC 누적, 공연예술인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극장 리모델링의 필요 우선순위 도출 • (미래형 극장) 배리어프리, 새로운 기술 등 현재의 가치를 포함하고, 미래의 기초예술 공연환경을 대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관련 자료 수집 필요

- (추진시기) 추가적 시설, 공간 필요와 극장 리모델링이 함께 이루어지며 시행 가능 (장기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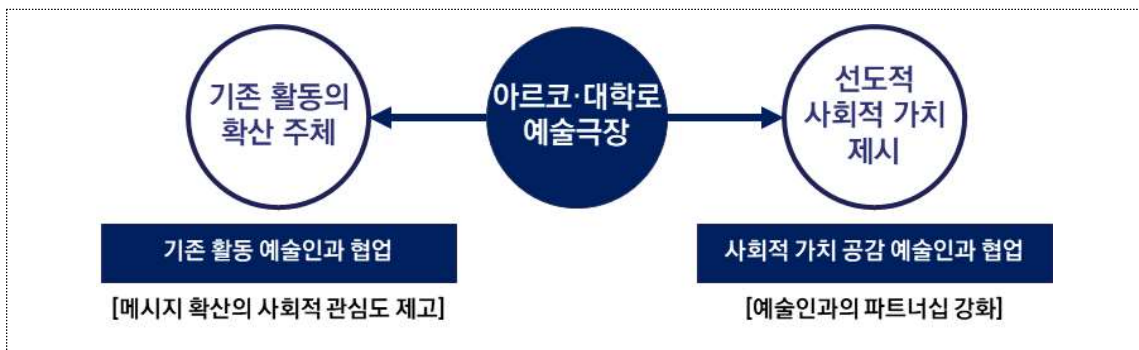
4. 사회 분야 세부 실행과제

추진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사회적가치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예술극장은 정책기관의 산하조직으로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한 시대적 아젠다 확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극장으로서의 특성 보유 특히, 현장접점, 현장중심을 차별성으로 하는 상황에서 개별 예술인이나 개별 관객으로부터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접점으로서의 특성 보유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공공극장으로서 위상을 활용한 파급확산 가능 	
	전략과제	세부 사업
	현장 예술인과의 협력 및 문화예술계 전반의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메시지 확산	13. 현장 중심 사회적 가치 확산
	기후변화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인식 확산 및 선도적 모델 제시	14. 범 공공극장 연계 ‘기후포럼’운영

1) 현장 중심 사회적 가치 확산

- **(의미 및 목적)** 예술인의 자발적 사회운동의 확산 주체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역할 부여
- 예술인의 자발적 사회운동 중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추가하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주제가 있는 경우 예술인 단체와 연계 활동 수행
- **(운영방안)** 1년 단위의 사회적 메시지를 현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확산을 위한 활동에 예술극장이 주요 주체로 활동

[그림 6-12] 현장 중심 사회적 가치 확산 운영 개요



- 관련 메시지 및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 극장 내부직원, 그 외 참여자(시민단체, 외부 활동가 등)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메시지 전달 활동을 수행
- 관련 메시지 및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공연, 또는 관련 가치를 창작과정에 담음으로써 간접적인 추가 확산을 도모

■ (추진시기) 예술인 및 관련 단체(개인)과의 협업을 통해 시행 가능 (단기과제)

[표 6-23] 현장 중심 사회적 가치 확산 세부사항

운영 고려사항	세부내용
기존 예술인 활동의 확산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기존 예술인 활동의 메시지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을 통해 확산 - 확산을 위한 장소 연계(타 극장 및 마로니에 공원 등 외부 공간) • (운영방안) 성명 발표, 수시대관 제공 등 공간 제공 - 활동 중인 예술인 사회활동단체와의 협업 방안 모색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을 통해 이슈화될 수 있도록 공간 제공
선도적 사회적 가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선도적인 사회적 가치 메시지 확산 • (운영방안)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과의 파트너십 강화 - 사회적 가치 선정 과정에서 예술현장 의견 반영과 참여자 모집 - 극장 내부 인원과 함께 캠페인 진행

■ (연계방안) 기진행 중인 사회적 가치 내재화와 연계

[표 6-24] 현장 중심 사회적 가치 확산 연계방안

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리어 프리 활성화' 등 현재 극장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과 연계하여 협업
-------	--

예시사례

□ 문화예술을 통한 성평등 인식 확산, 대구문화예술기획자 그룹 '어나더스'

- 대구문화예술기획자 그룹 '어나더스'는 문화예술계 내 여성 창작자 및 기획자 간 교류 공간 및 공론의 장으로서 '우리목소리' 페스티벌 개최
- 작가와의 토크 시간을 통해 평등 가치를 확산시킨 사례 공유 및 관련 정책 제안
- 축제를 통해 여성 창작자들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확산 역할 및 네트워킹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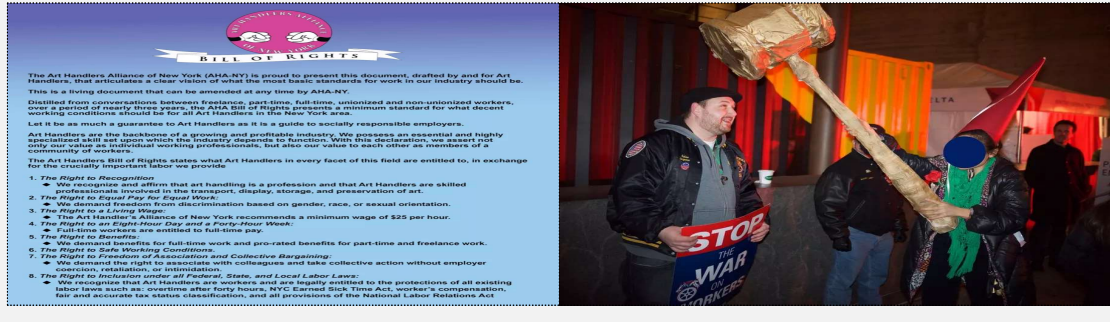
□ 동물권 보장 촉구, 창작그룹 '이동시'

- 창작그룹 '이동시'(이야기와 동물과 시)는 예술인 30명과 함께 퍼포먼스 및 선언문을 통해 동물의 권리를 위해 꾸준히 활동
- 동물, 환경, 기후위기 관련 이슈를 예술로 표현하는 창작 집단으로서 '동물축제반대축제', '동물당 창당 퍼포먼스' 및 선언문 등 퍼포먼스를 통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공유



□ 문화예술계 노동연대, 뉴욕 Art Handlers Alliance

- 뉴욕의 Art Handlers Alliance는 2015년 부터 예술 노동자들이 직면한 임금체불, 해택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위, 패널토론, 언론 홍보 등 활용
- 그 외 예술산업 내 다양성을 위해 여성과 유색인종의 예술현장 진출을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안, 문화예술노동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신조 마련
- 예술인 권리 및 예술업계 노동자의 기본 보호를 위한 온라인 청원 신청, 할렘에서 할리우드까지 예술업계 전반에서 채택될 것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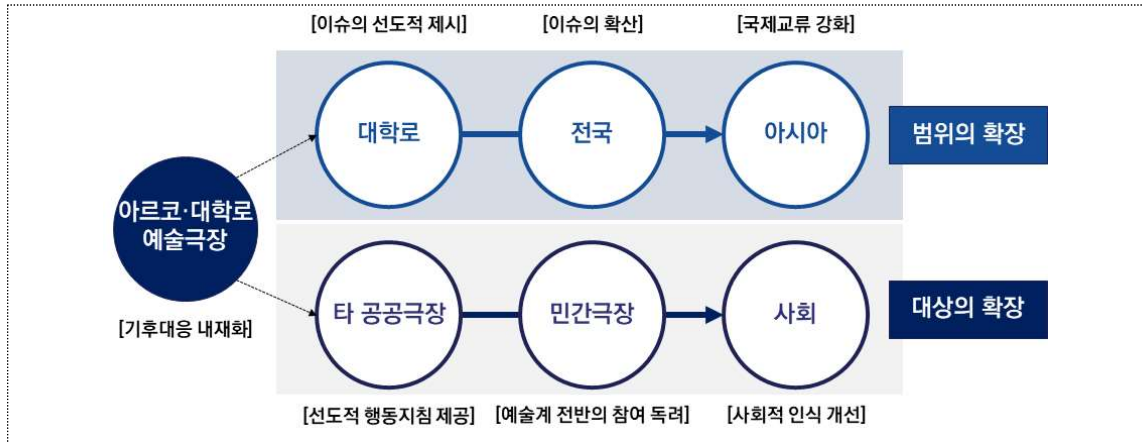


2) 범 공공극장 연계 '기후포럼'운영

■ (의미 및 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기후극장으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논의

■ (운영방안) 전국 공공극장과의 기후극장 운영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협의를 위한 분기 1회 포럼 진행

[그림 6-13] 범 공공극장 연계 '기후포럼' 운영 개요



- 기후극장 운영과 확산의 상징성 보유를 위해 지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대학로, 전국, 아시아로 이어지는 범위의 확장 도모
- 기후극장 운영과 확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대적 접점이 높은 공공극장부터 상대적 접점이 낮은 사회로까지의 단계별 기후변화 대응의 행동과 인식 측면의 대상 확장 도모

[표 6-25] 범 공공극장 연계 '기후포럼' 운영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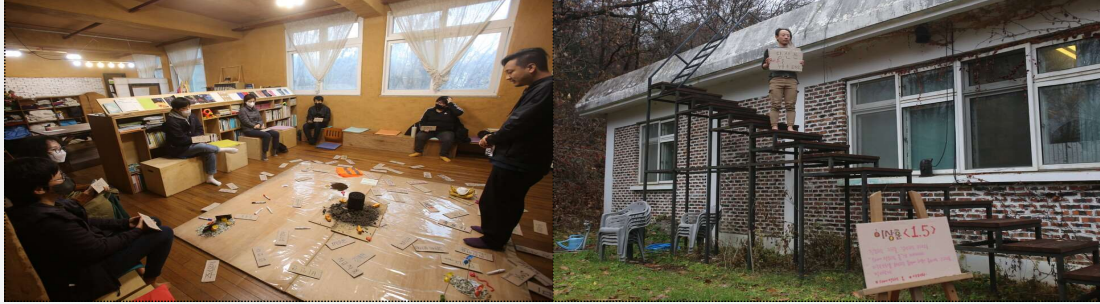
주요 대상	운영 고려사항	세부내용
타 공공극장	기후극장 운영 매뉴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기후극장 관련 선도적 역할 수행 • (운영방안) 매뉴얼 제작을 위한 기후포럼, 전문가협의회, 극장협의회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전문가-관객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극장의 대응방안 논의 - 제작된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배포하며, 매뉴얼에 따른 실천서약서를 받아 기후극장 관련 이슈화 시도
민간극장	공연제작 과정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지침 발굴과 예술계 전반의 참여 독려 • (운영방안) 공연 제작 공간 제공 및 탄소중립 무대 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언식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연제작과정 수행 - 우수사례 발굴 시 공공극장에 선제적으로 배포, 향후 민간극장과의 연계 고려 • 향후 극장 리모델링 시 고려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
사회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극장의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기후변화 인식확산과 내재화를 위한 사회적 메시지 전달 • (운영방안) 기후 관련 연극 상연, 기후 관련 페스티벌 운영 • 보유 공간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인식 확산에 집중 • 인식확산을 위한 상시적인 조형물 등 극장 외부에 배치

■ (추진시기) 기후극장의 확산 및 공고화를 위한 참여자 및 협업기관 등 모집 후 시행 (중기과제)

예시사례

□ 예술터밭 예술가 레지던시

- 연극시각예술영화영상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및 기획자 등이 창작공간에 거주하며 기후변화를 주제로 '예술적 실천' 활동과 작품활동 병행
- 기후위기 속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서 역할 및 환경이슈에 대해 예술가 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참고문헌

1. 경기문화재단(2020).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연구 결과보고서. 2020. 11. 30.
2. 구문모 외(2017) 해외 주요국가의 예술산업 이론·사례 분석과 한국 예술산업 생태계 모형 제안. 2017.10. 국회입법조사처
3. 김재경(2022). 코로나 시대, 전통과 변화 사이의 영국 국립극장 연구 - 2020년도 온라인 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제36호, pp. 229-250
4. 김한내(2015). '대학로X포럼': 연극인들 현안 놓고 장시간 릴레이 토론. 『연극IN』 제60호
5. 백선휘(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연예술의 전망과 과제. 서울연구원. 2020.08.
6. 이성훈(2020). 코로나 시대의 국내외 문화예술산업 현황과 정책 탐색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제6호. pp. 597-573
7. 이수영(2021). 코로나19로 본 공연예술계 충격과 그 대응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3호, pp. 453-463
8. 차민경(2021).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02.
9. Joanne Scheff Bernstein(2016). 『공연예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북스
10. 국립극단(2020). 국립극단 2019. 2020.06.30.
11. 국립극장(2021). 2020 국립극장 연보. 2021.08.06.
12. 국립정동극장(2020). 2021년 업무계획. 2020.12.19.
13. 국립정동극장(2021). 2022년 업무계획. 2021.11.23.
14. 국립정동극장(2021). 2021년 국립정동극장 공연사업 실적. 2022.04.16.
15.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2021). 공연장 운영규정. 2021.8.25.
16.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2021). 공연장 공연 운영지침. 2021.8.25.
17. 예술의전당(2022). 2021년도 예술의전당 운영보고서. 2022.
18. 세종문화회관(2021). 2021 세종문화회관 연차보고서. 2022.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8). 문예진흥원 32년사:1973-20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2021년 운영 계획(안). 2021.02.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2022년 운영 계획(안). 2022.02.16.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2020). 2019년도 종합운영실적 보고서. 2020.01.23.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대기술부(2020). 2019년도 종합운영실적 보고서. 2020.01.23.
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2021). 2020년도 종합운영실적 보고서. 2021.03.22.
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대기술부(2021). 2020년도 종합운영실적 보고서. 2021.03.22.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2021). 2021년도 종합운영실적 보고서. 2022.01.17.
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대기술부(2021). 2021년도 종합운영실적 보고서. 2022.01.17.

[참고 웹사이트]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https://www.kopis.or.kr/por/main/main.do>
- 국립극단 <https://www.ntck.or.kr/ko>
- 국립극장 <https://www.ntok.go.kr/kr/Main/Index>
- 국립정동극장 <https://www.jeongdong.or.kr/portal/main/main.do>
- 세종문화회관 <https://www.sejongpac.or.kr/portal/main/main.do>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https://theater.arko.or.kr/home/main>
- 예술의전당 <https://www.sac.or.kr/site/main/home>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발행인 : 박종관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

인쇄일 : 2022.12.30.

발행일 : 2022.12.30.